

상선암 주지 보성 스님
"이웃 위한 봉사가
진정한 보시입니다"
16·17면

현대불교

육신은 나를 얽어매는 굴레다
욕구와 욕망은 정신의 굴레이며
강정의 매달림도 굴레요 족쇄다.
금주의 법구 〈아함경〉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7년 단기 4346년(음력 2월 9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932호 2013년 3월 20일 수요일



정전 60년 한반도에 평화를… 한국전쟁 정전60주년 한반도평화대회 운영위원회(봉행위원장 자승)는 3월 15일 한국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아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호국영령들의 호국정신을 되새겼다. 한반도의 평화의지 정착과 세계평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봉행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을 비롯해 위원회 상임운영위원장 수불 스님, 김정훈(자문위원단장)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해 헌화와 분향,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후 묘역을 찾아 반야심경 봉독과 축원을 진행했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용성 스님 대각사상 집대성 된다

대각사상硏, 총서 발간 및 전산화 5개년 계획 발표

한글 역주, 해외포교, 독립운동 등 근대 불교계 선구적 역할을 한 용성 스님〈사진〉 관련 자료가 집대성된다.

대각회 이사장 도업 스님과 대각사상연구원 원장 보광 스님은 3월 13일 서울 조계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백용성 대종사 총서〉 발간 및 전산화 사업'을 발표했다.

'〈백용성 대종사 총서〉 발간 및 전산화 사업'은 그동안 발간돼 배표된 〈용성 대종사 전집〉을 기반으로 저술과 사상연구를 재조사, 수집해 진행된다.

사업은 총예산 8억원 규모로 5년 동안 진행되며 대각사상연구원의 주관 하에 동국대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가 전산화 부분을 진행한다.

전산화는 자료 원본 이미지화와 재번역 자료의 DB구축으로 진행되며 동국대 불교학술원의 관리 하에



탄신 150주년 맞아 DB구축
이미지화 및 한글 재번역
인터넷으로 쉽게 열람 가능
대각교 활동 재조명 등 기대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2013년에는 자료수입 및 번역작업이 우선적으로 진행되며 2년차 증의작업, 3년차 스캔 및 한글파일화, 4년차 편집 및 교정 · DB설계, 5년차 검색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개발 등으로 진행된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사업 총괄을 맡은 보광 스님은 "용성 스님이 1863년 탄생하시고 150주년을 맞이해 이번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며 "7년 전 도업 스님이 낸 〈용성 대종사 전집〉 18권을 기반으로 재번역 및 원전 수록으로 진행한다"고 사업을 소개했다.

간행위원장을 맡은 대각회 이사장 도업 스님은 "용성 스님은 우리 시대 진보적 불교운동의 대표적 인물"이라며 "대각으로 대변되는 민중불교운동과 민족독립운동 정신의 계승과 현대화를 기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각회는 이번 사업과 함께 4월 20일 서울 국립극장에서 용성 스님의 일대기를 주제로 한 '용성' 칸타타를 개최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법인법 제정 이번엔 가능할까

조계종 중앙종회 안건 상정… 통과 의지 높아

조계종 소속 승려나 사찰이 출연한 법인들을 종단에 등록해 관리하는 법인법 제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조계종과 관련 법인은 재단이 95개, 사단법인 111개로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삼보정재 망실과 사유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법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반영된 게 법인법이다.

첫 발의는 2011년 3월 제186회 중앙종회 임시회에 총무원장 자승 스님 명의로 올라왔지만 선학원과 대각회 등 주요 법인들의 반대로 제정이 미뤄져 왔다. 당시 주요법인들은 '선학원과 대각회의 이사 1/3을 종단 추천 스님으로 한다'와 '주지 품신을 종단 본말사인사규정에 의거해 품신한다'는 조항 등을 문제 삼았다. 운영권과 인사권이 침해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총무원은 중앙종회 종헌개정 및 종법 제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에 법인법 제정안 수정을 위임했고, 특위는 해당 법인들과 수차례 논의를 거쳐 수정안을 도출했다.

법인법 제정안 수정 제안을 살펴보면 중앙종무기관, 사찰 및 승려가 설립한 법인을 종단에 등록할 것을 명시했으며, 종단은 법인의 재산 · 운영관리권 등 고유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것을 밝혀놨다.

문제가 됐던 조항에 대해서도 △법인 사찰 주지는 이사장 임명 후 총무원에 보고 △선학원 이사의 1/3은 종단이 추천하되 추천 이사는 법인 연고 사찰 승려로 하는 등 완화된 법안을 내놨다. 또한 선학원에 대해서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문제 사항을 조정할 것을 명시했다.

총무원은 3월 14일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인법 통과에 대한 의지를 내비친 이유도 이런 완화된 법안에 자신감을 보인 것이다.

이날 총무부장 지현 스님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찰을 설립했음에도 종단에 등록하지 않고 법인 산하에 둬 조계종과는 무관하게 운영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법인이나 법인 산하의 사찰들이 종헌 종법 체계에 편제되도록 하는 최소한의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법인법 제정안은 해당 법인과 구성원이 종도임을 확인하는 기본적 기준과 절차"라고 강조했다.

일부 법인들의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재)선학원(이사장 법진)은 3월 11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선학원 임원을 종단 징계 절차에 회부하거나 △종단이 선학원의 인사권, 재산권, 운영 관리권 등을 침해

총무원 2년 걸쳐 수정 제안
법인 인사운영권 침해 안해
삼보정재 망실 · 사유화 우려
미등록 법인 징계권도 포함

선학원, 대각회 등 반대 의견
"수용 후 대화 해결" 여론도

할 시 2002년 종단과 합의 후 개정된 재단의 정관을 이전의 내용으로 환원하기로 결의했다.

대각회 이사장 도업 스님도 3월 13일 간담회에서 "50년 전 만들어진 법인을 조계종이 법인법을 만들어 관리하겠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고 반대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이 같은 반대 의견에 조계종의 입장은 강경하다. 지현 스님은 14일 기자회견에서 "법인법 제정안은 일부 특정 법인만을 대상으로 성안된 것이 아니다"며 "종단은 법 제정을 추진하면 해당 법인들과 대화는 물론 공식적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일부 법인들은 공식적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을 수용 후 대화로 풀겠다는 의견도 있다.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승적 차원의 수용의사를 밝혔다. 스님은 "조계종과 한 뿌리다. 6개월의 유예 기간 안에서 대화로 조율하자는 데 이견은 없다"며 "종단과 일부 재단 스님들과의 온도차가 크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중앙종회에는 법인법을 비롯한 종법 제개정안과 △원로의원 추천, 재심호계위원 · 종립학교관리위원 · 소청심사위원 ·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 · 특위 위원장 및 위원 보선 등 인사안 △특수출가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불교방송 사장의 종교 정체성 의혹에 대한 공개 검증 요구 결의문 채택 △불교닷컴 제재 결의 해제의 건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차주 상보〉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새 교황, 인류 번영에 도움주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교황 선출 축하메시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3월 14일 프란치스코 1세가 제266대 교황으로 선출된 데 대해 축하메시지를 발표했다.

자승 스님은 축하 메시지를 통해 "제266대 교황으로 프란치스코 1세가 선출된 것을 한국의 모든 불자들과 더불어 축하드린다"며 "인류의 빈곤과 기아 문제의 해결, 평화와 행복이 가득한 세상을 만드는데 카톨릭이 더 많이 노력하고 기여하기를 바란다. 그 길에 프란치스코 1세의 헌신과 기도가 항상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 266대 교황으로 선출된 아르헨티나의 호르헤 마리오 베르골리오 추기경(76)은 첫 남미 출신 교황으로 그는 즉위명으로 청빈의 성자인 프란치스코를 선택했다.

신중일 기자

932호 INDEX

종합 2·3
조계종 법규위 '위헌 판결' 역풍
차별금지법 잇달아 발의
농어촌 포교 활성화 방안 시급
오현 스님 시조 '숲' 교과서 수록

시방세계 5
티베트 민중봉기 54주년 법회



신행 · 복지 6·7
1일 1식 단식 템플스테이
장애인 사찰음식 나누기
마음의 감기 '우울증'

테마가 있는 사찰기행 12
정선 정암사

사고

기자를 찾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불교전문지 〈현대불교신문〉이 함께 일할 인재를 찾습니다.

응시자격 및 전형방법

모집부문	모집인원	응시자격	전형절차 1차	전형절차 2차
취재부 경력기자 수습기자	약간명	① 경력기자 3년 이상 경력자 ② 수습기자: 2013년 2월 졸업자 ③ 공 통: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남자는 병역필 및 면제자)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 접

원서접수기간 및 방법

1.접수기간 : 2013년 3월 31일(일)까지
2.접수방법 : 본사 홈페이지 현불닷컴(http://www.hyunbul.com) 또는 본사가 운영하는 인터넷신문 현불뉴스(http://www.hyunbulnews.com)에 접속하시면 모집공고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메일 접수: cgseo@hyunbul.com
3.제출서류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를 시험당일에 제출하십시오.
4.1차 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및 인터넷 공고 (문의전화 : 02-2004-8204, 8205, 8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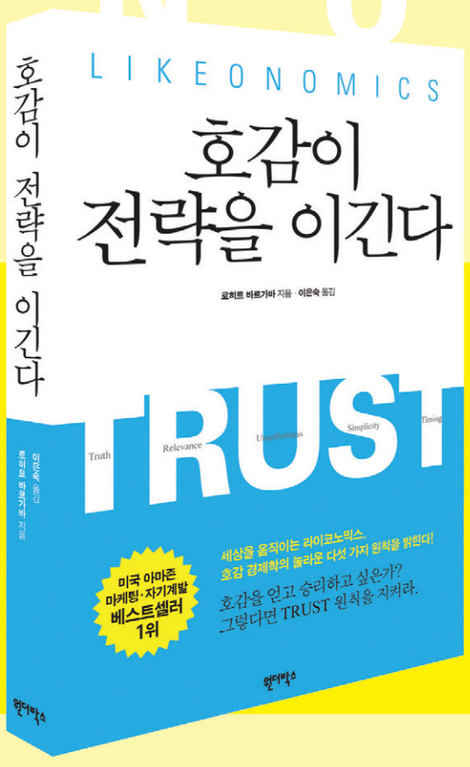
LIKEONOMICS

호감을 얻고 승리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TRUST 원칙을 지켜라!

세상을 움직이는 라이코노믹스,
호감 경제학의 놀라운 다섯 가지 원칙을 밝힌다!

더 이상 기업과 마케팅, 광고를 믿지 않은 신뢰성 위기의 시대에 호감을 얻는 자만이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다. 탁월한 마케팅 전문가 로히트 바르가바의 이 책은 호감을 얻고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주요 원칙을 통해 비즈니스에서 남보다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로히트 바르가바 지음 | 이은숙 옮김 | 328면 | 값 15,000원



미국 아마존 마케팅·자기계발
베스트셀러 1위

지혜로운 생각으로 가득한 이 책을 통해 시장에서 좀 더 개방적이고, 다가가기 쉬우며, 신뢰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성공을 찾아가길 바란다.
– 다니엘 핑크(『드라이브』, 『새로운 미래가 온다』의 저자)

일에서든 인생에서든 성공에 이르는 길은 크게 다르지 않다. 두 가지 모두 성공하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라! – 디팩 초프라(『성공을 부르는 일곱 가지 영적 법칙』의 저자)

거칠고 지배적인 사람이 지배하는 시대는 끝났다. 호감 경제학의 시대에서는 인간관계가 최고다. – 조너선 베허(SAP 최고 마케팅 책임자)

신뢰와 의사 결정을 좌우하는 호감도의 영향력과 이 책을 뒷받침하는 개념이 정말 맘에 든다! – 오리 브래프먼(『스웨이』, 『클릭』의 저자)

사업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운에 맡기지 말고 이 책과 저자의 온라인 워크북을 곁에 두어라. – 헬린 리(『오픈 리더십』, 『그라운드스웰』의 저자, 알티미터 그룹 설립자)

원더박스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bulkwang

원더박스는 불광출판사의 일반 교양 브랜드입니다.

티베트 스님의 50가지 지혜



언제 죽음의 신이 나타날까?

아무도 대답할 수 없으니,

언제나 경계심을 늦추지 말지어다.

죽음이란 것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번개처럼 들이닥칩니다. 어떤 상황이건 아무런 경고도 없습니다. 당신은 건강한 사람일 수 있고, 친구와 맛있는 음식을 즐기거나 혹은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당신은 가까이하던 것들을 다 놓아야만 합니다. 오고 가던 대화는 다 마치지 못할 수 있고, 먹던 음식도 다 먹지 못하고, 계획은 마무리되지 못한 채 떠나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죽는 일이 늘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사고를 당한 사람, 살해당한 사람, 오염된 음식에 중독돼 죽은 사람, 혹은 약을 잘못 투여해 죽은 사람, 게인이나 운동 중 부상을 입어 죽은 사람, 전쟁에 의해 희생된 사람 등 죽음은 늘 이렇게 가까이에 숨어 있는 위협적 존재입니다.

죽음은 산적이 들끓는 곳을 통과해야 하는 여행자 같아서, 늘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합니다. 정치적 지도자는 언제 암살당할지 모르므로 늘 주위를 경계해야 합니다. 그는 한 장소에서 이틀 밤 이상 묵지 않고 죽을지도 모르는 절박한 상황을 늘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매일 밤 잠을 청하기 전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일 아침 나는 침대에서 시체로 발견되지 않을까?"

이 글은 민족사에서 펴낸 〈세상 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 티베트 스님의 100가지 지혜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종헌 위배 결정' 법규위, 역풍 맞다

위원장 허운 스님 사임… 유감 표명 입장문 발표

1994년 종단 사태로 체탈도첩된 의현 스님(서황룡)의 심리를 위해 무리한 법 집행을 한 조계종 법규위원회가 결국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 현 위원장인 허운 스님(前 동화사 주지)은 사임을 밝혔고 법규위는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법규위원회는 3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분과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제78차 회의를 열고 일련의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법규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제77차 회의서 법규위원회법 제2조 2항을 위헌종법조항 결정한 것은 위원회의 권한이라 판단했다. 이 같은 결정은 각 위원의 승가 양심과 소신에 따른 심판"이라며 "다만 진행 과정에서 법 조항의 취지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종도들에게 우려와 논란을 불러온 책임을 지기 위해 현 법규위원장이 그 직에서 사임의사를 표명했다"며 "많은 종도들의 우려와 같이 94년 종단개혁과 종단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법규위원회는 앞선 회의에서 의현 스님의 '체탈도첩 징계 특별재심 요청 심판청구의 건'을 다뤘다. 의현 스님의 심판대상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인 법규위원회는 결국 법규위원회법 제2조 2항은 종헌 위배라는 판정을 내렸다. 법규위원회법 제2조 2항은 위원회의 행정처분 범위를 '종무행정기관(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교구본사)'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헌으로 판정함으로서 법규위원회는 의현 스님의 청구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심리를 진행했다.

의현 스님 청구 기각 방침

중앙종회 반발에 한발 후퇴

종회, 법규위法 개정 변함없어

하지만 이 같은 법규위의 결정은 당장 중앙종회의 반발을 샀다. 중앙종회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법안, 이하 종헌종법특위)는 3월 14일 제5차 회의를 열어 '법규위원회법 개정안'을 제193회 임시회에 상정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종헌종법특위가 마련한 법규위원회법 개정안은 현 제2조 2항을 삭제하고, 2항과 똑같은 내용이 담긴 제2조 제3항을 신설한다는 게 주요골자다.

이에 대해 법안 스님은 "위헌 판결을 받은 조항은 과거 법규위원회가 사법처분에 대해 관여하면서 논란이 돼 관장사항을 명확히 정의한 것"이라며 "그러나 법규위원회가 의현 스님의 청구를 다루기 위해 종헌 규정을 무리하게 확대·적용했다"고 지적했다.



3월 15일 열린 조계종 법규위원회 제78차 긴급 회의. 이날 법규위는 위원장 사임과 일련의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중앙종회는 3월 8일 의장단, 상임분과위원장 비공개 연석회의를 열고 "종헌 위배 결정을 한 법규위원회가 종헌의 삼권분립 취지를 위반했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중앙종회의원 장명 스님은 법규위원장의 불신임 결의를 중앙종회 제193차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하는 등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법규위에 대한 중앙종회의 입장은 아직 강경한 편이다. 허운 스님의 사임으로 불신임 결의 안건은 철회되겠지만, 종헌종법특위가 상정한 법규위원법 개정안은 그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법안 스님은 "위원장 사임과는 별개로 법 개정은 추진할 것"이라며 "법규위원법 개정을 통한 조항 환원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일련의 사태로 법규위원회가 의현 스님(서황룡)의 심리를 기각할 것으로 알려져 사면 복권의 추진은 다시 수면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차별금지법 잇달아 발의 '입법화 주목'

불교계, 조계종 등 찬성… 개신교 반대 움직임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포괄적인 차별 금지 조항을 담은 법안들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지난해 11월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과 지난 2월 민주통합당 김한길 의원 등 51명이 제출한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최원식 의원 등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등이다. 현재 이들 법안은 국회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접수돼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 법안 모두 생활영역에서 성별과 장애, 인종, 학력, 종교와 사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각론적으로는 고용이나 재화·용역의 공급, 교육기관의 교육 및 훈련, 법령과 정책의 집행 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당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 조치 및 손해배상을 판결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최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의 경우 국무총리소속 하에 '차별금지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차별금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해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것을 명문화 했다.

불교계는 이 같은 '차별금지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다. 이미 오래 전부터 증오범죄법, 종교평화법 등의 제정을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실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3월 5일 국회 정각회 조찬법회 후 가진 강창희 국회의장과의 회동에서 차별금지법의 국회 처리를 주문하기도 했다.

문제는 개신교의 반대 움직임이다. 표면상으로는 동성애나 동성혼 등이 조장돼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치고 종교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할 수 없다는 게 이유지만 속내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과 같은 강압적 노상전도 등이 불가능해진다는 위기감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회연합은 3월 12일 성명을 통해 "차별금지법이 또 다른 사회적 갈등과 종교간 분쟁을 촉발할 수 있다. 최근 불교계가 추진한 '종교평화법'과도 연관성이 있어 궁극적인 목적에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으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도 "법안이 사회적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반대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등이 참여한 '한국교계 동성애 동성혼 입법 저지 비상대책위'도 3월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과 2010년에도 비슷한 법안이 상정됐으나 시기상조를 이유로 부결됐다. 거센 개신교계의 반대 움직임에도 차별금지법이 입법화될 수 있을지 향후 주목되고 있다.

신중일 기자

정전 60주년 평화대회 공식 홈페이지 오픈

한반도 정전 60주년 한반도 평화대회 홈페이지가 문을 열었다.

대회 운영위원회는 "정전 60주년 한반도평화대회의 전반적인 행사와 빠른 정보를 전달하고 대중들과 소통하는 창구로 홈페이지(http://budpeace.org)를 개통했다"고 3월 12일 밝혔다.

평화대회 홈페이지는 △봉행위원회 소개 △알림마당 △프로그램 안내 △종합자료실 △자원활동 △한국전쟁과 부산 등으로 구성했다.

한반도평화대회 심볼과 로고도 제작됐다. 심볼과 로고는 참여연대 심볼을 제작한 아트디렉터 이상철(이가 스퀘어) 씨가 도안했다. 신중일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3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쵯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3년 4월 중

◆ 개강일시 :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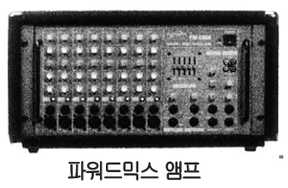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좋은 소리는 스피커와 마이크에 의해 결정됩니다.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파워드믹스 앰프



스테레오 앰프



• 高音質 무선마이크

전국 법당의 앰프 신규설치 및 교체 전문,
사용중인 앰프, 스프커의 소리보완 클리닉!!

신제품!!
고급 엠프케이스 출시
• 가격 : 250,000원 (배송료 포함)



• 법당전용 스피커





• 일반마이크 aV-620

• 무선 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마이크

◆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고성능 탁상마이크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농어촌 포교 더 방치해선 안 돼"

조계종 포교원, 포교종책연찬회서 제안

이웃종교에 비해 날로 침체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 포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불교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계종 포교원이 3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농어촌포교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제51차 포교종책연찬회에서는 각 지역 포교현장 활동가들이 나서 농어촌 포교의 현황을 짚고 포교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그동안 농어촌에 위치한 사찰은 농어촌이 도시화, 산업화로 급격한 인구감소를 겪으며 포교기반을 상실하는 처지에 처했다"며 "특히 불교계는 사찰이 대부분 산중과 농어촌에 위치함을 들어 이들 지역에 대한 포교를 방치해 이웃종교에 비해 더욱 포교기반을 상실하는 상황에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농어촌 포교 활성화를 위해 나설 것을 밝혔다.

광주전남전법단 지도법사 도제 스님은 '어촌포교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발제에서 전남 신안지역 포교 실태를 통해 개척포교당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도제 스님은 "암태도, 비금도 등 신안 지역 사찰은 거의가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을 정도 였다"며 "특히 육지와 떨어진 낙도 지역의 경우 일수록 기독교 세력이 장악한 불교신앙의 소외지역임을 느꼈다"고 말했다.

도제 스님은 "이들 지역의 주민들 마음

농촌-사찰 주도 공동체 복원

어촌-개척 포교당으로 극복

"도농 상생 프로그램 개발"

속에는 불교적 심성이 잔잔히 흐름에도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은 기독교계가 '개척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선교에 나섰기 때문"이라며 "'개척포교당'을 신설하고 '개척포교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제 스님은 또 "매년 불교 행사도 진행하는 한편 어촌에서 필요로 하는 용왕제나 수륙재 등 불교행사를 통해 어촌인들의 불교정서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도제 스님은 포교기반 조성을 위해 △사찰 주도의 봉사활동 전개 △어린이놀이터 제공, 무료급식 등 생활형 포교 진행 △템플스테이와 교리지도 등 교육불사 △신행상담과 불교계율지키기운동 등 신행활동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도제 스님


선오 스님

당진 정토사 주지 선오 스님은 '농촌포교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발제에서 정토사를 비롯한 당진지역 포교실태를 통해 생활공동체의 복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오 스님은 "노령화로 인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향약, 품앗이 등 공동체 전통을 살리는 방향으로 농촌포교가 진행돼야 한다"며 "지역발전을 위해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 강좌 등을 적극 활용해 사찰이 주도하는 공동체 살리기 운동이 펼쳐져야 한다"고 말했다.

선오 스님은 △다양하고 특화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개발 △사찰음식 활용 프로그램 마련 △ 병원진료를 위한 차량 제공 및 심부름 대행 등 노령화 대비 프로그램 운영 △지역단체나 공익 행사 시 지원 등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포교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108산사순례회를 통해 농어촌 포교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 선묵 스님은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 등 108산사 순례기도회의 농촌사랑실천운동 사례를 소개하며 "도시와 농어촌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불교계가 앞장서서 개발해야 한다"며 "불교가 가진 자원을 활용해 귀농지원 등에 나서 사회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면 절로 포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포교종책연찬회에서는 해남 미황사 주지 금강스님과 수지행 남원 실상사 종무실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오현 스님 시조 '숲', 교과서 수록

지학사 중1 국어 교과서에

그렇게 살고 있다 그렇게들 살아가고 있다
산은 골을 만들어 물을 흐르게 하고
나무는 겉껍질 속에 벌레를 기르며



시조 시인으로 잘 알려진 신흥사 조실 무산 오현 스님〈사진〉의 시조 '숲'이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다.

오현 스님의 시조 '숲'은 2009 교육과정으로 집필된 (주)지학사 중학교 1학년 2학기 국어교과서 '스스로 읽는 즐거움' 단원의 더 읽을거리에 실렸다.

이번 교과서 수록에 대해 김혜경 (주)지학사 국어팀 부장은 "국어 교과서에는 글감이 중요하다. 오현 스님의 시조는 숲의 모습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를 노래하고 있다"며 "대표 저자인 방민호 서울대 국문과 교수가 직접 선정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삶의 의미를 성찰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문화융성이 모든 정책 근본돼야"

자승 스님, 정부 신임인사 예방서 강조

박근혜 정부 신임 인사들이 잇따라 조계종 총무원을 예방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를 맡은 정홍원 총리는 3월 8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했다. 정 국무총리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사회통합으로 불교계가 많이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어 3월 11일 유진룡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예방 자리에서 자승 스님은 "정책 기조 중 문화융성이 정책의 근간이 돼야 한다"며 "이와 함께 불교문화가 국민 정서 순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유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노덕현 기자


정홍원 신임국무총리는 3월 8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했다.

템플스테이, 독일 관광박람회 우수 홍보관

6~10일 참가… 아시아대양주 부문 1위 기염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정산)이 3월 6일부터 10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국제관광박람회 ITB(The International Tourism Bourse)에서 우수 홍보관 아시아대양주 부문 1위를 차지했다.

독일 국제관광박람회는 세계 4대 관광박람회 중 하나로, 템플스테이 홍보관은 환대성, 관람객의 주목을 끄는 다채로운 이벤트, 관람객 대상의 활발한 홍보활동 등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박람회 기간 동안 선보인 인경 체험, 연등 만들기, 차담을 비롯해 특별 제작된 '템플스테이 닥종이 인형전'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참선'과 '차담' 두 가지 주제로 제작된 닥종이 인형전은 스님과 템플스테이 참가자의 실제 모습을 형상화한 귀여운 모습으로 현지 관람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홍민석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팀장은 "박람회 기간 내내 한글로 제작한 팔만대장경 인경체험과 스님과의 차담을 체험하기 위해 관람객이 인산인해를 이루어 한국관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며 "또 현지 여행사와 각국 관광업체의 요청으로 독일어 홍보물이 조기 소진되는 등 한국전통문화체험 콘텐츠의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고 전했다. 신중일 기자



독일관광박람회에 설치된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템플스테이 홍보부스 전경. 아시아 대양주 부문 1위를 차지했다.

2만여 불자의 아침을 깨우다

BBS 부처님 말씀 문자 서비스 1년… 5월부터 '시즌2'

불교방송 경전 문자서비스가 개시 1년 만에 유료 회원 2만명에 육박했다. 지난해 3월 15일 첫선을 보인 불교방송 문자서비스는 이같은 성과에 힘입어 5월부터는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 회원들을 찾아간다.

불교방송 측은 "많은 불자들이 1년에 한두 번 사찰에 나가는 것이 현실인데 이것만으로는 삶의 고(苦)를 덜어내는 지혜를 증득하기가 힘들다. 이러한 불자들의 갈증을 문자서비스로 채워줄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문자 서비스"라며 취지를 전했다.

BBS 불교방송은 이런 성과에 힘입어 5월에는 시즌2로 스님이나 사찰 단위의 다양한 법문 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다. 불교방송은 "시즌 1보다 더 다양한 콘텐츠와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로 불자들의 신심을 북돋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교방송은 지난해 3월 △불자들의 새로운 법보시 문화 확산 △청장년 비불자들에게 거부감 없는 전법 등을 목적으로 유료문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정혜숙 기자

"찾아가는 레크리에이션 강좌 제공"

불레협, 사업계획 발표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가 불교레크리에이션 전문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전국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수도권 지역 어린이·청소년 포교활성화를 위해 법회 지도자 아카데미를 연 2회 개최한다.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회장 혜만, 이하 불레협)는 제13대 회장으로 취임한 혜만 스님과 3월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3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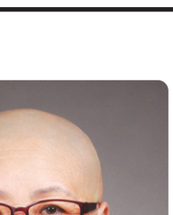
혜만 스님은 "어린이·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갖고 맞춤형 포교를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레크리에이션 전문지도자 양성 교육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불레협은 올해부터 불레협 2급 지도자과정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 포교 활성화를 위해 4~6월과 9~11월 '법회 지도자 아카데미'를 개설하는 등 지역별 지도자들 간의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 이나은 기자

불자 변영섭 교수, 문화재청장 내정

변영섭 고려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사진〉가 3월 15일 문화재청 청장에 내정됐다.



독실한 불자인 변 내정자는 평소 육식을 멀리하고 채식을 즐겨하며 불교계와 교류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 내정자는 안동여고를 거쳐 이화여대 사학과를 졸업했다. 이화여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1991년부터 고려대 세종캠퍼스 교수로 부임해 후학들을 지도하고 있다. 한국미술사학회장, 문화재청 전문위원, 조계종 성보보존위원으로 활동 했다. 노덕현 기자

참선·지혜의 체험 할인선원 금강단식
3,6일간의 깨달음
왜 참선인가! 몸과마음. 이대로 두고 달라지는 것이 깨달음이다.
참선인가! 몸과마음. 바꾸지 않고 달라지는 것이 깨달음이다.
참선인가! 참선, 다시 해보자!
금강단식: 면역성 피부미용아토피 금연금주즉각해결 고혈압 당뇨 성인병 정신 우울증 예방치유 다이어트1일최고3kg 한달25kg
참선 수련회 6일 3월22일(금)~27일 4월19일(금)~24일 5월 3일(금)~ 8일
선 회 3 일 3월22일(금)~24일 4월19일(금)~21일 5월 3일(금)~ 5일
깨달음이란? 머리가 둔하면 둔한대로 머리가 흐리면 흐린대로 깨달아지는 것이다.
금단식강
행복제작소 제주원명선원중앙선방 활인선원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비봉산
☎1644-5266
자세한 내용은 www.hwalin.net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대륜불교조계종
제2대 총무원장 曉圓能仁 취임

대륜불교조계종은
근본 가르침을 복원하고 불조의 혜명을 이어가기위해
삼수삼행(三修三行)과 무차무애(無遮無碍)로 평등자비(平等慈悲)를
실천하는 청정승단(淸淨僧團)입니다.

수행을 원하십니까?
부처님 가르침대로 오로지 수행만 하고자 하십니까?
대륜불교조계종으로 오십시요.

입종문의는 종단홈페이지 참조【 http://www.arahan.org 】

일 주 문



제28회 불국사 어린이 사생대회

경주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은 4월 28일 불국사 범영루 앞 광장에서 제28회 불국사어린이 그리기 · 글짓기 대회를 개최한다.(054)746-1472



쌍계사 보살계 대법회

하동 쌍계사 주지 성조 스님은 4월 14~16일 2013년도 정기보살계 대법회와 대장경 정대불사 및 육조봉찬회 총회를 봉행한다. (055)883-1901



화엄사 홍매화 템플스테이

구례 화엄사 주지 종삼 스님은 4월 6~7일 홍매화 사진 콘테스트와 함께하는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061)782-7600



'사생연' 불교경전식물 답사

조채의 사찰생태연구소 소장은 4월 7~8일 선암사, 송광사 일대에서 '불교경전 속 식물' 이해를 돕기 위한 '식생' 답사를 실시한다. (02)745-5813

신임 조계종 종립학교 관리위원장에 덕문 스님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 신임 위원장에 덕문 스님이 선출됐다.

종립학교관리위원회(이하 종관위)는 3월 13일 제88차 회의를 열고 3월 23일 위원장 임기가 만료되는 원경 스님의 후임으로 덕문 스님을 선출했다. 또 부위원장 장명 스님과 간사 오심 스님에 대해서는 재임을 결정했다.

이날 덕문 스님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위원 스님들 말씀을 경청해 종단과 종립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중일 기자**

금강대, 필리핀 세부의대와 학술협정



정병조 금강대 총장은 3월 14일 필리핀 세부의학종합대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 금강대는 매년 2명 교환학생 파견, 공동연구 및 학술대회 개최 등의 교류협력 사업을 펼쳐갈 계획이다. 금강대는 이로써 7개국 26개 해외대학 및 교육기관과 교류협정을 맺게 되었으며, 금년 상반기 내 미국과 캐나다의 3개 대학과도 학술교류협정을 맺을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총지종 종회의장 대원 대정사 원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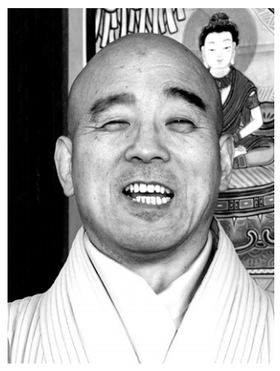


불교총지종 중앙종의회 의장 대원 대정사(부산 정각사 주교)가 3월 15일 오후 1시 원적에 들었다. 세수 65세.

총지종 통리원은 '통리원장'으로 장례를 엄수했다. (051)550-9991

"의례는 종교 근간…후학 양성 매진"

조계종 신임 어산작법학장 법안 스님



어산 작법, 스님이라면
필수적으로 교육받아야
유구하게 전승된 의례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전임 학장이셨던 인묵 스님이 15년간을 일궈온 학교입니다. 그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인묵 스님의 원력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학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월 6일 서울 개운사 대원암에서 조계종 신임어산작법학교 학장으로 취임한 법안 스님〈사진, 서울 우면사 대성사 주지〉은 취임 소감에 대해 이 같이 밝히며 말머리를 풀었다.

어산작법학교는 조계종이 불교전통의례 의식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세운 특수교육기관이다. 1997년 중앙승가대 부설로 설립됐다가 2002년 종립으로 전환됐지만 초창기에는 교육 공간이 없어 학교 기숙사 지하를 전전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열악한 상황에서도 어산작법학교는 지금까지 본과 10기, 전문어산과 6기 등 총 26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등 의례 대중화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해왔다.

법안 스님은 의례는 종교의 근간인만큼 소중히 보존 · 계승 · 발전돼야 할 유산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어산 작법은 스님이라는 한 번은 배워야할 필수적인 교육임을 강조했다.

"종교에서 의례는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의례가 없다면 유구한 역사 속에서 종교는 전승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산작법학교는 조계종도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전문적으로 수학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간 선을 종지종풍으로 삼았던 조계종은 의례에 대해 많은 관심을 두지는 않았다. 하지만 불교 의례에 대한 관심은 종단 안팎으로 높아지고 있다. 종단은 의례위원회를 구성해 한글 의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진관사, 삼화사 국행수륙재가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되기도 했다.

법안 스님은 이러한 상황들이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한글 의례도 당장의 성과를 내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의례를 다듬고 만들어가야 한다고 봤다.

"불교 의례에 대한 관심은 이전과는 다르게 많이 향상됐습니다. 불교 의례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고 종단에서는 한글 의례를 보급하기 위해 노력 중이죠. 당장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의례는 긴 호흡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한글 의례 역시 전통 한문 의례가 그랬던 것처럼 유구한 역사 속에서 만들어지고 다듬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의례에 대한 공부는 깊이가 있습니다."

인터뷰 말미, 스님은 현 상황을 도약기로 삼아 어산작법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올해 새로 입학한 20여 명의 후학 스님들에게는 집중해 공부해 수행과 전법교화의 방편으로 삼을 것을 강조했다.

"올해를 어산작법학교의 도약기로 삼아 후학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이론과 실습을 공부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수학하고 있는 스님들도 여벌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공부해주십시오. 스승의 것을 흉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탁마해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수행과 나아가서는 중생교화의 방편으로 발전시키길 바랍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진지한 만남 · 대화가 갈등 해결"

도법 스님-샨티가르바 3월 12일 대담 나눠



샨티가르바



도법 스님

홀로 사는 것은 없다
더불어 사는 삶이 대안

"태양이 없다면 부처도 예수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홀로 살아가는 존재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에게 상호 작용하며 인드라망과 같이 살아갑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국가, 종교, 이념을 넘어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생명평화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생명평화운동의 상징이자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본부장 도법 스님은 영국 출신 비구이자 비폭력대화(NVC) 수행자인 샨티가르바를 만나 설파한 생명평화 운동의 의미다.

둘의 만남은 3월 12일 도법 스님의 집무실에서 이뤄졌다. 도법 스님은 이날 진지한 만남과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도법 스님은 "경전을 잘 보면 최고의 수행과 기도는 '대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처도 일생을 거쳐 여행하고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면서 가르침을 전했다"며 "그 속에서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존중한다면 우리의 삶도 평화로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샨티가르바도 도법 스님의 주장에 적극 동의했다. 샨티가르바는 "만나고 대화하며 소통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부처님께서는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불법을 따르라고 강조하지 않았으며, 상대를 이해시켰다"고 화답했다.

이어 도법 스님은 "생명은 허망하면서 존귀하다. 이를 알면 자신에게 겸손하면서도 당당해질 수 있다. 이것이 공존하는 게 생명평화의 길"이라고 말했다.

샨티가르바는 "한반도 대립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원인은 소통의 부재가 원인으로 사람과 사람사이의 공감, 살아있는 존재들과 공감대가 먼저 형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샨티가르바는 삼보종(三寶 the Triratna Buddhist Order, 옛 서구불교회 the Western Buddhism Order)의 원로 멤버이자 삼보종 영국 서남지부 의장으로 비폭력대화와 '마음챙김에 근거한 스트레스 완화'(Mindfulness-Based Stress Reduction, MBSR)를 가르치고 있다.

한편 샨티가르바는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와 (주)한국비폭력대화교육원, 생명평화대화공동체 붓다의 대화 준비위원회의 초청으로 방한했다. 또한 3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대중강연을, 16~17일에는 서울 국제선센터에서 2차 워크숍을 개최했다. **신중일 기자**

"4대강 사업 종교적으로 접근"

'모래가…' 영화 만든 지율 스님



"지난 9월부터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절이 어려워 밤새 작업을 했습니다. 기술은 부족합니다만 영화를 통해 대중들이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성천 지킴이 지율 스님이 연출한 '모래가 흐르는 강' 시사회가 3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렸다.

'모래가 흐르는 강'은 지율 스님이 2008년 4대강 착공식 뉴스를 보고 산에서 내려와 물길을 따라 걸으며 내성천의 변화를 담아낸 다큐멘터리 영화다.

스님은 사회와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좀더 교육적이고 종교적인 방향으로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고 말한다.

스님은 지난 4년 동안 내성천을 지키며 강에서 나름의 대안을 찾고 싶었다고 말한다. 스님은 "새 정부가 4대강 문제를 깊이 살펴보겠다고 했다. 영화를 통해 이 문제를 새롭게 보아주었으면 좋겠다"며 바람을 전했다. **정혜숙 기자**

해인승가대 총동문회, 대만불교 순례



해인사승가대학 총동문회(회장 정우)는 3월 6일부터 10일까지 4박 5일간 대만불교를 순례했다.

이번 순례에서 총동문회는 중대선사, 불광산사, 제원사, 원조사, 법고산사, 자항사 등 6개 사찰을 탐방했으며, 특히 불광산사 성운 대사를 친견하는 등 대만불교 현지 불사에 대한 다양한 현장을 체험했다. **신중일 기자**

국제선센터 · 양천경찰서 지원 협약



조계종 국제선센터(주지 탄웅)와 양천 경찰서(서장 김성중)는 3월 14일 선센터 2층 법당에서 범죄 피해자 지원 및 비행청소년 선도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국제선센터와 양천경찰서는 아동, 청소년, 부녀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청소년 관련 범죄예방을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신중일 기자

진골 척추교정법 교육 안내문

상담전화 016-560-7868

척추교정 및 인체의 균형(밸런스) 조절교육
외과전문의 및 한의사, 건강에 관심있는 분들이 필수적으로 익혀야할 척추교정법!

MBN 천기누설 방송 (2012. 9. 20)에 소장이 직접교육시켰던 외과의사 및 한의사와 같이 출연하여, 척추변형과 오장육부 질병의 중요성에 대하여 방송에 출연한바 있음. (네이버 "진골척추" 검색 동영상으로 방송을 볼 수 있음) 소장은 2006년부터 한의사 수백여명과 다수의 외과의사들을 상대로 척추교정과 인체의 균형을 통합적으로 교육시킨 사례가 있는 교육의 전문가임. 진골척추교정법은 카이로프라틱이 아닙니다!

귀의 삼보하옵고 부처님의 가개가 온누리에 충만하시고 사중에 제반 불사가 원만 성취되시길 지극한 마음으로 발원합니다.

소승이 진골척추교정법을 창시하신 임상만 원장님과 인연이 된것은 얼마 안되지만 원장님에 탁월하신 진골척추교정법을 친견하고 참으로 놀라움을 금지 못하였습니다. 암환자, 고질적인 환자들이 고통 속에서 찾아와 척추교정을 받고 편안하고 즐겁게 웃고가는 것이 너무나 경이롭고 놀라웠습니다. 손으로 경추, 흉추, 요추, 천추을 보고 만지며 진단하여 교정하는 시간은 3~5분에 불과했습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과장이 아니고 진실입니다.

하여 소승도 허리, 목, 등, 전립선 등이 불편하여 교정을 받았습니다. 편하고 시원하였습니다. 정좌를 해도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감히 제반스님들께 추천합니다. 법체가 불편하신 법우님들과 불자님들께 권하오닌 진골척추 교정법과 인연지어 불사원만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마하반야바라밀

해동사 영도 동인 합장

'재물을 잃는 것은 인생의 일부를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는 것은 인생의 절반을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는 것은 인생의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라는 격언이 있듯이 세상만사 인생을 살다가 보면 피치못해 건강이 악화되어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지 못할때가 많은데요, 건강은 인간 최고의 복이요 양식이라고 불릴만큼 중요하기에 어떠한 질병이든 예방이 제일 중요하지요.

소승도 10여년간 항시 등쪽과 오른쪽 허리가 뻐근하고 시큰 거려서 좋다는 운동법은 다해 봤지만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가 도반스님이 MBN의 천기누설과 방송을 한번 보라하기에 방송를 보다가 임상만 소장님의 진골척추교정법을 보면서 모든 질병과 만성병은 틀어진 척추와 골반에서 병이 온다는 임소장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직접 진골척추교정법 교육을 3회정도 받고 보니 허리와 등짝이 시원해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몸소 체험한바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무수한 질병을 와하시킬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30여년의 노력과 열정으로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고자 진골척추교정법을 완성시킨 임상만 소장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먼저 내가족, 진척들이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들을 완화시킬수 있는 것은 진골척추교정법 밖에 없는는 확신을 하면서 인연이 닿는 모든 분들이 익히고 배워서 고통과 질병없는 아름다운 불국토를 만들어가시길 기원합니다.

계룡산에서 도림 합장

영남전통범음 · 범패 교육과정 수강생모집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3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작법(바라춤,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신중작법39위,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다. 강 주 : 석법운 스님, 월봉 스님

2.수업일시
■ 수업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 5시
(사정에 따라 요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강의장소 및 접수처 :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1804-5번지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무원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1-544-26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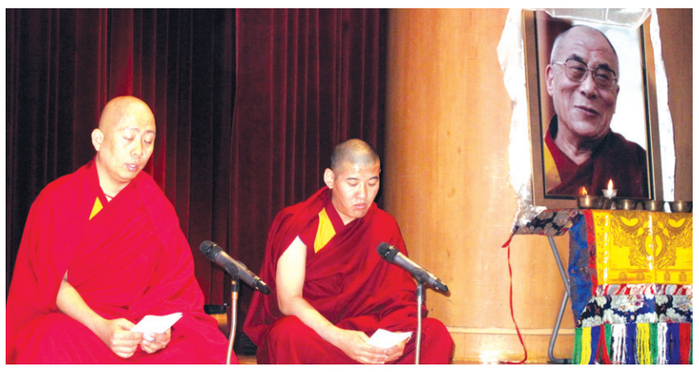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와 티베트하우스 코리아는 3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민중봉기 기념식과 추모 문화제를 개최했다. 공연장에 설치된 희생자 영전에 한 참가자가 분향하고 있다.


서울시 무형문화재 동환 스님이 분신 희생자들을 위한 회심곡을 부르고 있다.


티베트하우스 코리아 남카 스님이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기도를 올리고 있다.


아이들도 티베트 평화를 위한 모금에 동참했다.

3월, 티베트는 '자유·평화'를 꿈꾼다

불시넷 등 티베트 민중봉기 54주년 추문문화제
3월 10일 조계종 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서

"FREE TIBET! FREE TIBET!(티베트에 자유를)"

공연에 나선 티베트인 가수가 그들 국가의 자유를 외친다. 그것도 이역만리 타향의 한국 불교 심장부에서.

3월은 티베트 인들에게 뜻 깊으면서도 가슴이 아픈 달이다. 1959년 3월 10일 중국의 만행에 분개한 3만 명의 티베트 민중들이 자신의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를 지키기 위해 첫 봉기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총칼로 강경 진압했고 '신들의 땅'이라 불리우는 라싸는 8만 7000명의 티베트인들의 피로 얼룩졌다.

중국 정부의 침략이 이뤄진 1949년부터 1979년까지 30년 간 고문, 사형, 전투, 굶주림, 상해 치사 등으로 목숨을 잃은 티베트 인은 120만 7천여 명에 이른다. 이 같은 저항은 분신으로 이어져 최근에는 스님, 민간인을 포함한 분신 희생자가 100명을 넘어섰다.

티베트 첫 민중봉기가 이뤄진지 꼭 54년. 2013년 3월 10일 한국의 조계종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도 티베트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의 행사가 열렸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상임대표 퇴휴)와 티베트하우스 코리아가 주최하고 실천불교 전국승가회, 록빠 등이 주관한 '티베트 민중봉기 54주년 기념식 및 분신 희생자 추모문화제'는 티베트 현실을 한국인들에게 알리고 민족 자치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티베트하우스 코리아 텐진 남카 스님의 추모 기도로 문을 연 이날 기념식에서는 티베트 수상의 성명서와 한국 종교계, NGO, 예술인, 정치인들의 연대 선언들이 이어졌다.

롭상 생게 티베트 수상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1959년 3월 10일의 봉기는 오늘날 우리의 기본적 자유와 존엄성을 되찾기 위한 비폭력 투쟁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며 "이런 야만적인 상황을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중국이 강경노선을 철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롭상 생게 수상은 "달라이 라마 스님을 비롯한 티베트 망명정부는 '중도적 접근'을 추구해왔다"며 "중국 정부는 현 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마저 보여주지 않고 있다. 우리는 중국 정부와 얼마든지 대화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중국 지도부가 평화적 대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티베트하우스 코리아 텐진 남카 스님도 기념사를 통해 중국 정부의 대화를 제안했다. 텐진 남카 스님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는 비폭력과 대화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티베트 망명정부는 '분리 독립'이 아닌 '완전한 자치'를 원한다. 중국은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많은 티베트 스님과 불자들이 '티베트의 진실'을 외치며 분신하고 있다"며 "한국과 국제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국제조사단을 파견해 티베트의 현실을 조사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 종교계 · NGO · 정치권의 연대 발언도 이어졌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상임대표 퇴휴 스님은 '부끄럽다'는 말로 연대사를 시작했다.

1959년 3월 10일 첫 봉기 기려
중국의 강경 탄압 철회 주장

종교 · NGO · 정치권 연대 확인
"중국, 평화적 대화 촉구 나서라"
49일간 中대사관 앞 1인 시위

퇴휴 스님은 "이미 오래 전부터 달라이 라마 스님을 한국으로 모셔 법문을 듣기 위한 시도가 수차례 있어왔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를 의식해 비자를 허락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한국 정부가 자주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2000년 초반 티베트 라싸를 순례하며 중국의 폭압에 분개한 바 있다. 당시 순례를 함께 했던 사람들 모두 '우리가 티베트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했다"며 "한국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가에서 지지를 보내고 있는 만큼 티베트의 미래는 어둡지 않다. '불법으로 암흑을 이겨낸다'는 티베트 국가의 마지막처럼 용기를 잃지 않고 자유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원석 진보정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도 "자유를 위한 티베트의 투쟁은 가장 낮은 곳, 약자를 위한 진보 정치와 그 궤를 같이 한다"며 "인권은 보편적 가치인만큼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티베트 자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임용환 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 신부, 뚜라 버마행동 대표 등이 연대 발언을 했다. 또한 이날 참가자들은 민주봉기 54주년을 맞아 티베트의 자유를 천명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티베트는 자유를 갈망하고 있다"며 "이제 중국정부는 티베트 민중의 소원인 진정한 자치와 자유를 되돌려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중국정부에게 △티베트 망명정부와 성실한 대화에 나설 것 △티베트 인들에 대한 인권을 보장할 것 △투옥 중인 900명의 티베트 정치범들을 즉각 석방하고 임의 체포와 고문을 중단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주최 측은 3월 11일부터 4월 28일까지 49일 간 티베트 자유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중국 대사관 앞에서 매일 1시간 씩 진행하며, 4월 29일에는 이를 회향하는 촛불 문화제를 봉행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한국, 티베트 문제 관심 가져달라"

티베트하우스 코리아 텐진 남카 스님



"1946년 중국 군인들이 티베트 동쪽에서부터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당시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10년에 걸쳐 철저하게 침략 당했고, 결국에는 그들 영토에 포함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이 점령하는 과정서부터 지금까지 대다수의 티베트인들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티베트 하우스 코리아 사무총장 텐진 남카스님〈사진〉은 중국에 의한 티베트 침략의 소사(小事)를 설명하며 말문을 열었다. 남카스님은 중국 지배하에 놓인 상황이 결과적으로 티베트 국민들에게는 억압이 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우리를 전근대적 봉건사회에서 해방시켰다고 합니다. 전 민중은 행복해질 것이라고 말해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티베트 인들의 봉기는 끊이지 않고 있고 분신까지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주장한대로 티베트 민중들이 행복하다면 중국 측의 말을 따를 것이고, 유혈사태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중국이 티베트 현실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망명 정부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티베트가 원하는 것은 독립이 아닌 자치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철저하게 티베트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달라이 라마께서는 마지막까지도 비폭력 평화주의인 '중도정책'을 현재까지도 고수하고 있습니다. 티베트가 바라는 것은 자유와 평화입니다."

텐진 남카스님은 마지막으로 한국 불자와 사회에게 티베트에 대한 관심을 부탁했다.

"일제시대의 고통을 겪어 본 한국이야말로 티베트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같은 대승불교 전통을 지닌 국가의 국민으로서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수강생모집

알기 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정 · 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 · 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종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동방칠성교주,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강의 일정표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밥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구단구궁법대학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72길 ☎ 전화 010-7415-0803 / 051)343-0803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小食으로 속비우고 마음도 가볍게

단식 프로그램 진행 사찰 소개

'하루 세끼'라는 고정관념의 틀을 깬 '1일 1식' 식사법이 화제다. 일본인 의사가 책으로 발표하면서 국내에 큰 반향을 일으킨 '1일 1식' 식사법은 배가 고플 때 장수 유전자라고 불리는 시르투인이 활성화 되고 IGF-1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손상된 세포를 치유하고 당뇨병 치매 암을 예방한다는 이론이다. 이러한 식습관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면 수명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 '1일 1식'을 주장하는 이들의 의견이다.

부처님이 과식을 멀리했다고 알려져 있듯 불교에서는 소식과 단식이 이미 예전부터 전통으로 이어져왔다. 부처님은 꼬살라국의 빠세나디 왕이 과식하자 이에 대해 "사람이 항상 알아차리면서[sati] 음식을 대해 적당량을 알면 괴로운 느낌은 줄어들고 목숨 보존하며 천천히 늙어가리"라고 게송을 읊었다.

이처럼 소식(小食)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단식을 주제로 수행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찰들이 있어 눈길을 끈다. 다가오는 여름을 위해 건강과 다이어트를 한꺼번에 챙길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활인선원(선원장 대효, 1644-5266)은 단식과 참선을 함께 하는 '간화선 금강단식' 수련을 지도한다. 매월 5박 6일 단기출가를 진행하며 수련생들은 새벽 3시 30분에 기상해 오후 9시까지 공양시간 없이 수행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무절제한 현대인의 생활습관이 몸과 마음에 함께 병을 불러왔다는 문제의식 하에 죽염을 탄 미온수만 먹으며 일체의 곡기를 끊고 단식과 간화선을 함께 한다.

참가자들은 5박 6일 동안 선원에서 몸과 마음을 다스려 길을 다지고 남은 15·25일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 각자 정해진 단식 기간에 몸과 마음을 만들어 몸도 마음도 제자리 잡도록 한다.


활인선원에서는 간화선을 접목한 금강단식 수행을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활인선원, 간화선 금강단식
육지장사, 옥돌 쑥뜸체험
법왕정사, 아마따쵸 수행

대효 스님은 "단식은 몸에 낀 독소를 빼는 것이고 몸이 바라는 일이다. 식사는 몸이 아니라 마음이 요구하는 것일 뿐이다. 몸과 마음의 조화를 위해 수련기간 동안 완전히 버리고 떠나보면 그 참맛을 알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참가자들은 "내가 5일 동안 안 먹고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놀랍고, 단식보다 더 크게 마음에 일어난 변화가 놀랍다"는 소감을 밝힌다.

하계수련회에 참가했던 송수진 씨는 "배신, 짜증, 눈물, 미움, 자살 등 온갖 생각에서 마음이 편해지고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게 됐다. 이곳에서 많은 것을 얻었고 앞으로 내 본성에 치우치지 않으며 살아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양주 육지장사(회주 지원, 031-871-0101)는 '산사의 건강 비전-단식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고 있다. 산사에서 스님들 사이에서 내려오던 전통적인 건강비법 단식을 현대인들이 단기간에 체험하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2박 3일 단기 일정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다. 육지장사 단식 프로그램은 단순히 음식물의 섭취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108배 명상, 숲길 보행명상과 명상, 단전호흡, 풍욕, 쑥뜸온구 체험, 뇌경락추나 옥동회랑에서의 걷기 명상 등 체내의 맑은 기운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2박 3일 동안 프로그램에 맞춰 단식을 하고 나면, 단기 일정에도 불구하고 2kg 가량 체중도 감량하고 지친 심신을 치유해 만성피로 증후군을 해소할 수 있다.

육지장사는 게르마늄 맥반석 옥돌과 쑥뜸 온구체험, 옥돌보행 및 모유정 체험 등 육지장사만의 특별한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노폐물을 제거하고 신체의 자연치유력을 강화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육지장사 템플스테이의 특징이다.

육지장사는 "인간의 몸을 주관하는 신경에는 몸을 긴장시키는 교감신경과 이완시키는 부교감 신경이 있는데 단식 중에는 부교감신경만이 활동해 느긋해 지고 집중력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며 "짜증이 많은 사람이나 수험생, 업무 효율이 떨어진 직장인에게 적합한 템플스테이"라고 설명했다.

법왕정사(주지 청견, 052-254-7768)은 '웰빙 건강 다이어트 명상'을 진행하고 있다. '신의 음료'로 알려진 마테차를 통해 정신을 맑게 하고 지속적인 체력을 유지해 신체 균형을 개선하는 것이 관건이다. 청견 스님이 개발한 마테차를 원료로 한 '아마따 차'를 마시며 바디마사지와 와선(臥禪), 절수행, 걷기명상, 햇빛명상을 통해 몸속의 독소와 노폐물을 빼낸다.

법왕정사는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 등 영양소가 골고루 갖춰진 아마따 차는 지방이 에너지로 분해되도록 촉매재 역할을 한다"며 "3일 기본코스에서 가슴명치의 감정응어리가 사라지고 몸속의 독소 노폐물과 숙변이 빠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영산법화사 신림 도량**(주지 행일, 02-856-8128)은 매월 첫째 주 금요일~일요일 3일간 단식기도를 진행하고 있다. 3일 동안 사찰에서 생활하며 법화경 독경 수행을 하며 주지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된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2030위한 리더십 아카데미 모집

4월 2일부터 매주 화요일…박원순 시장, 박경철 원장 등 강연

법륜 스님, 방송인 김제동 씨, 시골의사 박경철 씨가 펼치는 강의를 통해 청춘을 고민하고, 또래 청년들과 마음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된다.

평화재단(이사장 법륜)은 정의, 사회참여, 힐링, 노동, 행복 등을 주제로 강연을 펼치는 2030 청년들을 위한 '제5기 청년 리더십 아카데미'를 4월 2일~6월 11일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평화재단 강당에서 진행한다.

강좌가 열리는 첫째 날 김대규 변호사의 '청춘의 재발견, 시대와의 동행'을 시작으로 △법륜 스님의 '통일신라의 역사를 통해 배우는 리더십' △박원순 서울시장의 '나는 시장이다_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위하여' △윤여준 평화재단 교육원장의 '2012년 그 후, 다시 정치를 말하다' △김제동 방송인의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법' △박경철 경제평론가의 '패러다임은 이미 바뀌었다' △심상정 정당인의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세상' 등이 진행된다. 모집은 20세부터 만 35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3월 22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02)6925-0522

이나은 기자

홍콩 친구들에게 한국 문화 알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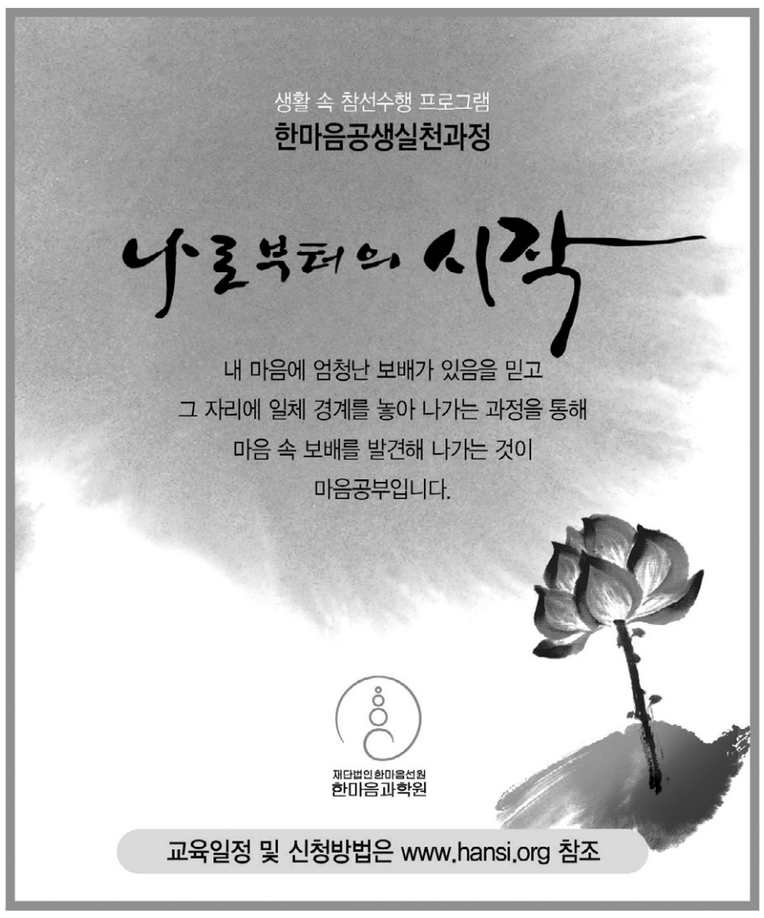
파라미타, 홈스테이 참가자 20명 모집…3월 25일 마감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정여)는 3월 28일~4월 1일까지 홍콩 청소년을 초청해 교류하는 '제2회 한국·홍콩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홍콩 HKFYG Lee Shau Kee College 소속 청소년 30명과 지도자 3명이 한국을 방문해 한국의 청소년들과 함께 한국 역사문화와 과학기술, 홈스테이 등을 체험하고 하게 된다. 행사에서 한국 및 홍콩 청소년 60여명은 국립과천과학관과 디지털파빌리온, 코엑스, 세텍, 전쟁기념관, 연세대, 이화여대 등을 탐방할 뿐만 아니라 경복궁, 북촌 한옥마을 탐방과 역삼청소년수련관에서 한복입기 등을 통해 한국전통문화를 체험하게 된다.

파라미타는 3월 30~31일 홍콩청소년들과 생활하는 파라미타 청소년 가정 홈스테이 희망 참가자 20여 명을 모집한다. 참가 희망자는 파라미타 사무국으로 신청하면 된다. (02)723-6166

이나은 기자



봉은사, 첫 어린이 연등 경연대회 연다

전통문화 주제로 연등 꾸며… 4월 15일까지 접수

서울 강남 봉은사(주지 진화)가 지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첫 연등 꾸미기 경연대회를 연다.

봉은사는 "강남구 어린이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자긍심과 애정을 느끼고 지역 구성원으로 정체성을 마음속에 간직하기를 기원하는 취지로 '제1회 강남어린이 연등 꾸미기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3월 13일 밝혔다.

이번 경연대회는 봉은사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어린이 문화축제로, 강남구에 사는 유치원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우리의 전통문화'를 주제로 전래놀이, 전통예술, 옛 건축물, 전래동화 등 우리 옛 문화와 관련된 소재를 자유스럽게 선택해 크레파스, 물감, 사인펜 등으로 색칠하거나 색지를 붙여서 연등을 꾸미면 된다. 연등은 주최 측에서 제공하며, 참가비는 없다.

이번 경연대회는 유치부, 초등 저학년부(1~3학년), 초등 고학년부(4~6학년)의 세 부문으로 이뤄지며, 각 부문에 9작품, 총 27작품을 선정해 시상한다.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한 달 간 접수를 받으며, 4월 22일 봉은사 홈페이지를 통해 수상자를 발표한다.

시상식은 5월 3일 오후 7시 전통등 전시회 개막식 자리에서 진행되며 접수 작품은 5월 3일부터 19일까지 봉은사 경내에 전시될 예정이다. (02)3218-4800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장애인과 함께 만드는 사찰음식

문화사업단 2월 28일 국제선센터서 강좌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정산)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첫 나눔 교육이 실시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2월 28일 서울 양천구 국제선센터에서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소속의 지적장애 학생 25명과 함께 '장애인과 함께 하는 사찰음식 특별강좌'를 실시했다.

이번 특별강좌는 사찰음식을 통해 우리 사회 다양한 계층에 나눔정신과 건강한 식문화를 전파하고자 진행됐다.

이날 참가한 학생들은 국제선센터 내 사찰음식 전문교육관인 '향적세계'에서 풋내 사찰음식연구원장 정관 스님과 함께 냉이된장무침과 버섯장떡 2개 메뉴를 직접 만들고, 시식했다.


2월 28일 국제선센터서 열린 '장애인과 함께 하는 사찰음식' 강좌

특히 이번 교육은 지난해 실시된 1차 사찰음식 특별강좌의 호응에 힘입어 재실시 된 것으로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장애인과 함께 하는 사찰음식 나눔 강좌'를 올 상반기 매월 1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신중일 기자



A등급 불교복지관 437개소 중 49곳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진영)가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노인양로시설 등 4개 유형 765개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를 3월 13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A등급을 받은 복지시설은 437개소로 불교계 복지시설은 49개소가 포함됐다.

A등급으로 선정된 사회복지관 263개소 중 27곳이 불교법인이 운영하는 시설로 파악됐으며 서울(8개소), 부산(6개소), 경기(7개소)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인천, 광주, 전북, 전남, 제주지역은 한 군데도 선정되지 않았다.

또한 노인복지관은 111개소가 A등급으로 선정됐으며, 불교계가 운영하는 복지관은 19곳으로 파악됐다. 노인복지관 역시 서울(5개소), 경기(7개소)에 집중됐으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강원, 충북지역에는 선정된 곳이 없었다.

노인양로시설은 33개소 중 통도사 자비원, 제주양로원만이 이름을 올렸으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31개소 가운데 진각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달빛둥지 한 곳만 선정됐다.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11개 시설유형에 대해 3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표된 평가결과는 2009년에 이어 2012년에 실시한 결과다.

4개 유형 시설의 전체 평균점수는 86.9점으로 지난 2009년 평가 결과 대비 다소 상승(1.4점) 했다. 보건복지부는 "2009년에 비해 2012년도 평가기준이 대폭 강화됐고 새로운 평가요소 들이 추가된 점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서비스질의 개선 폭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회복지시설평가는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4개 유형 765개 시설대상 조사

불교는 49개소, 사회복지관 많아

대구·인천·광주 선정기관 '0'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 등 6개 영역에 대해 이루어졌다.

보건복지부는 "그중 '시설 및 환경(95.6점)' '이용자 권리(93.9점)' 영역은 타 영역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임으로써 이용자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이 갖추어야 할 물리적 환경 및 권익보호 조치(이용자의 비밀보장, 서비스 정보제공 및 이용자 자기결정권, 고충처리 등)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반면 '인적자원관리(81.2점)' '지역사회관계(81.4점)' 영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여 앞으로 시설종사자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시설이 지역사회와 더욱 긴밀하게 교류·협력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765개 시설을 등급별로 살펴보면 A등급 437개소(57.1%), B등급 228개소(29.8%)로 전체 시설 중 B등급 이상이 665개소(86.9%)를 차지함으로써 2009년 (B등급이상 78.6)에 비해 우수시설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역 내 대표적인 사회서비스 이용시설인 사회복지관은 A등급 263개소(63.8%), B등급 111개소(26.9%)로 전체의 약 91%에 해당되는 374개소가 우수한 시설인 것으로 평가돼 대다수의 사회복지관이 타 시설유형에 비해 높은 수준에 도달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해당 지자체 및 시설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평가결과 우수시설에 대해 시설평가 동기부여 및 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정부표창 및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2012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A등급 불교계시설명단)

▲사회복지관(27곳): 구로종합사회복지관, 길음종합사회복지관, 능인종합사회복지관, 본동종합사회복지관, 삼전종합사회복지관, 송파종합사회복지관, 옥수종합사회복지관, 월곡종합사회복지관, 개금종합사회복지관,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낙동종합사회복지관, 두송종합사회복지관,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용호종합사회복지관, 법동종합사회복지관, 용문종합사회복지관, 과천종합사회복지관, 매화종합사회복지관, 부곡종합사회복지관, 양평균종합사회복지관, 원종종합사회복지관, 청솔종합사회복지관, 한솔종합사회복지관, 명륜종합사회복지관, 금강종합사회복지관, 금오종합사회복지관, 내서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19곳): 강북노인종합복지관, 광진노인종합복지관, 서울노인복지센터, 성북노인종합복지관, 은평노인종합복지관, 수영구노인복지관, 서구노인종합복지관, 남양주시노인복지회관, 부천시원미노인복지회관, 서호노인복지관, 송산실버문화센터,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용인시노인복지관, 일산노인종합복지관,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서원노인복지관, 여수시노인복지관, 의성군노인복지관, 거창군삶의쉼터노인여성복지관

▲노인양로시설(2곳): 통도사자비원, 제주양로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1곳): 달빛둥지

생명나눔, 삼론종과 홍보제휴

30일 충주에서, 2월 선정환자에 500만원 전달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과 유지찬씨 부인이 전달식을 가졌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와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원장 지민)이 생명나눔운동 홍보 제휴 협약을 체결한다. 오는 3월 30일 충북 충주시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7·8대 총무원장 이·취임식'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협약식에는 일면 스님과 지민 스님이 장기기증 및 조혈모세포기증 희망등록·환자치료비 지원·자살예방 사업 등 생명나눔운동에 대한 정보공유와 협력을 목적으로 홍보 제휴 협약서에 서명하는 절차로 진행한다.

일면 스님은 "총무원장 지민 스님의 취임식에서 한국불교 발전과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앞으로 불교계 장기기증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생명나눔은 3월 14일 2월 선정환자 오대영(21) 씨의 치료비 지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오 씨는 5살에 백혈병을 극복했지만 21살 젊은 나이에 급성림프성백혈병이 재발해 골수이식을 기다리고 있다. 하루하루 애타는 기다림 끝에 일치하는 골수기증자가 나타났지만 이식조정비용 및 수술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가 생명나눔에 사연을 알려 모연된 500만원을 지원받았다. 또 BBS '거룩한 만남' 2월 선정환자인 유지찬(48) 씨의 전달식도 이어졌다. 희귀난치성 질환인 루게릭병으로 투병 중인 사연을 알려 모금한 금액 948만 원을 부인 최선하 씨에게 전달했다. (02)734-8050 이나은 기자

조계종 복지재단, 라오스·몽골 봉사자 모집

3월 20일까지 접수…1년간 활동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은 2013년 한 해 동안 라오스와 몽골에서 활동할 민간단체해외봉사단원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2명으로, 봉사자는 몽골 수도인 울란바타르에 위치한 몽골 드림센터에서 △아동·청소년센터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지역문화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지역 청년조직화 사업 등을 맡게 되며, 라오스 비엔티안에서는 보육시설관리와 국제네트워크 관리, 유치원 행정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참가 희망자는 3월 20일까지 모집지원서를 이메일(woeks48@chol.com)또는 방문접수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재단 홈페이지(www.mahayana.or.kr)를 참고하면 된다.

복지재단은 2005년 스리랑카 피해복구 봉사, 파키스탄 지진 피해자 의료구호활동, 2006년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반툴지역) 지진피해지역에 봉사자 파견을 시작으로, 2007년 몽골 울란바트르에, 2011년 라오스 비엔티엔에 드림센터를 건립하여 교육사업과 지역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재단은 "해외지역개발과 복지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바란다"고 말했다. (02)723-5101 이나은 기자

안양노인복지관, 치매예방사업 실시

29일까지 상담희망자 접수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관장 박양숙)이 2013년 보건복지부 노인복지 민간단체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치매예방쉼터사업을 운영한다.

복지관에 위치한 치매예방쉼터인 '老 in 안심터'는 3~12월까지 운영되며 경증치매가 있거나 치매가 우려되는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전문상담,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원예치료, 자서전쓰기, 집단상담), 특별행사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구성된다.

'노인안심터' 이용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3월 29일까지 복지관으로 신청가능하며 선정은 상담과 간이치매검사 결과를 토대로 진행된다. (031)455-0551 이나은 기자

"언니오빠와 교류하며 성적·자존감 키워요"

중림복지관, 청소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진행

자기주도적인 학습으로 역량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중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용갑)은 3월 9일 복지관내 다목적실에서 청소년 역량강화를 위한 P-A-C-E프로그램 결연식을 진행했다.

P-A-C-E('Plan-Action-Check-Eval') 프로그램은 '학습코칭 멘토 동아리'를 활용한 저소득 청소년 진로중심 역량강화 프로그램이다. 빈곤·위기청소년들의 진로문제와 학습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며 자기주도적인 학습법 향상을 목표로 한다. 또 진로목표를 명확히 설정해 청소년들의 잠재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PACE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멘토대학생 20명과 멘티 청소년 10명이 결연식을 맺고 기념촬영을 했다.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은 "이 프로그램은 2:1멘토링으로서 1명의 멘티에게 2명의 멘토가 함께 수학·영어·학습지도를 돕고 나아가 멘티의 자존감 향상을 위한 정서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결연식에는 30명(멘토 대학생 20명, 멘티 청소년 10명)이 참석했으며 P-A-C-E 프로그램 소개와 멘토·멘티 소개가 이루어졌다. 서로의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한 제기차기, 단체 줄넘기 등의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이어졌다. 또한 1년간 효과적인 멘토링 활동을 위해 서로를 위한 규칙 등을 만드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결연식에 참여한 멘토 이명진(동국대 3학년)씨는 "2:1 멘토링을 통해서 학습지도를 하며 청소년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은 "이번 결연식을 계기로 청소년 멘티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멘토링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02)362-3348 이나은 기자

강북장애인복지관, '마음 담벼락 허물기'

서울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진화은 3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10시 복지관 2층에서 주말 문화예술 프로그램 '마음 담벼락 허물기-내가 꿈구는 우리'를 실시한다.

마음 담벼락 허물기는 연극놀이와 문화예술체험을 통해 오감을 활용한 연극의 여러 요소를 배우며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함께 창작해 공연을 제작한 뒤, 발표하는 프로그램이다.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해 감정표현과 그림자를 통한 표현, 이야기 만들기, 대본 만들기, 공연 연습 등 연극의 기본 요소를 배우게 된다.

교육 기간 동안 국립극장, 예술의전당, 도예체험, 파주 출판단지 탐방도 병행하며, 연말에는 공연 발표회도 가질 예정이다. (02)989-4219 이나은 기자

전국 주지스님께 인사드립니다

금번 제 18대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대통령으로 지지해 주신 불자 및 주지스님께
일일이 찾아뵙지 못하고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 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선거총괄본부 국민행복
불교조직 중앙본부장 회암(정영춘)
대한불교 본조계종 종정 회암 합장
대한불교종단진흥 총연합회 회장 합장

서울시 종로구 통일로 18가길 16-1 전화 : 02)3436-0796~7
인터넷 검색 (대한불교 본조계종)

※ 종단 가입등록 받습니다.

Hwalbup Posture Correct Master
활 법 자 세 교 정 사
인체가 바로서야 건강이 바로 선다.



활법자세교정사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근육과 骨의 균형이 무너져 신체적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과학적, 체계적인 방법으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로서 바른자세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 체형교정 / 골반 / 선추(조정요법) ● 전신조정술 / 두개골 / 후두골 / 골반(조정요법) ● 경락 / 경혈학 / 임독맥소통(청혈요법) ● 자율신경 척추교정운동요법(맞춤운동) ※특강: 기공, 양자파동 분석 보건식품효소 발효액	8주 과정 토요일반

▶ 특별강사 : KBS / MBC출연 / 대한(병)의원 진흥회장. 활법창시자 직강
▶ 대 상 : 종교지도자 / 인체 교정 및 건강분야 관계자
평생건강에 관심과 질환으로 고생하는자
▶ 순환기성 질환 임상 교육시간 : 5~10회 환영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93-5111 / 010-3685-1730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 국 보 건 교 육 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향이 옅고 색이 탁하다고 무가치한 꽃 입니까”



3월 13일 동국대 지성콘서트는 젊은 학생들의 꿈과 이상에 대한 대화 형식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화엄경〉을 통해 자신의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강신주 씨는 … 연세대에 입학한 공학도 였다. 전공을 살려 관련회사에 입사한 후 자신이 꿈꾸던 삶과 현실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철학을 공부하게 된다. 서울대서 철학과 석사 · 연세대서 철학과 박사학위를 받은 후 〈상처받지 않을 권리〉 〈철학이 필요한 시간〉 〈김수영을 위하여〉 등을 집필했고, 신문 기고 활동과 강연으로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

동국대 지성콘서트 - ‘인문학적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 시대의 철학자 강신주 씨

철학자로 인문사회 오피니언으로 활동하는 강신주 씨. 강 씨는 3월 13일 동국대가 개최한 인문교양강좌인 지성콘서트에서 인문학적 삶에 대해 강연했다. 강신주 선생은 이 날 강연에서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출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에 대해 설명했다. 단순한 성공의 삶이 아닌 자기 자신으로 사는 삶을 강조한 그의 강연으로 들어가보자.

정리=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여러분 시(時) 좋아하세요?

오늘 이 강좌는 교양강좌로 듣는 분들이 대부분 1학년생 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시를 좋아하지 않네요. 그것은 아마 시를 산문 읽듯 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고 산문은 논리적인 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를 산문처럼 대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감정을 논리적으로 다루고 있는 건 아닐까요?

감정은 절대적이며 단순하고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합리적인 삶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삶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감정에 맞춰 살며 합리성을 그것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감정은 복잡한 것, 변덕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번뇌로 인한 고민이 감정을 그렇게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상대방이 상처받기 때문에 사람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느낀 그대로 행동했을 때 잃게 되는 것들을. 그리고는 감정을 숨기고 억누르곤 합니다. 이런 과정이 되풀이 되면 습관이 되고 감정은 죽어버립니다.

죽은 감정 살려야 지성 솟아나

감정이 없다는 것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기계와 같습니다. 인간이 기계, 컴퓨터와 다른 점은 우리 인간은 감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감정은 소중한 것입니다.

합리주의를 가장한 냉소주의야 말로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지 알면서 외면하는 것. 그저 그렇게 수긍하며 사는 삶이 죽어있는 삶인 것입니다.

(앞 쪽의 여학생을 지목하며) 학생이 만약 회사에 취직했어요. 연봉은 7000만원 수준이고요. 그런데 상사가 엉덩이를 만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에요?

(여학생이 대답을 못하자) 어떻게 해야 할지 아는데도 손 하나 어찌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가부장적 관습, 자본주의 병폐 등이 무엇인지 알면서 외면하는 것. ‘아, 어떻게 해도 사회는 변하지 않아’ 이러며 순응하고 사는 것이 우리네 모습입니다.

(앞쪽의 다른 학생을 지목하며) 학생은 동국대에 입학해서 많은 교수님들을 만났을텐데 그 분들이 월급쟁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존경할 만한 스승이라고 생각합니까?

(월급쟁이 같다는 답이 나오자) 그럼 왜 학교에 다녀야 합니까?

(모르겠다는 대답이 나오자) 여러분은 이미 사회에 길들여 닳고 닳은 것입니다. ‘학교라는 것이 그렇지, 선생님과 교수님들이 그렇지 뭐’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1학년 대학생이지, 4학년 고등학생이 아닙니다. 스스로 왜 학교에 다녀야 하는지, 존경하지도 않는 이 교수님 밑에서 내가 왜 수업을 들어야 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또 다른 학생에게) 존경하지 않는 선배에게 인사를 해야 하나요 안해야 하나요? 그 선배를 선배라고 불러야 합니까 아닙니까?

(체육교육과 출신인 학생이 선배에게는 무조건 인사를 해야 한다고 하자) 그렇다면 그 선배가 나중에 승부조작을 하자고 하면 해야 합니까. 거부해야 합니까.

(그 학생이 대답하지 못하자) 선배나 스승을 떠나 자신 만의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존경하지 않는 사람에게 아무 생각 없이 배우면 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는데로, 수업방식이 이어지는데로 그대로 지낸다면 무엇이 나올까요.

모든 위대한 사람은 당대에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베토벤은 당시 음악이 사람의 감정을 좌지우지한다고 하여 듣지도 못하게 하는 형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인들은 자기 자신에게 솔직했습니다. 이것이 옳다고 생각되면 거침없이 밀고 나갔습니다.

꿈 위해 자기 목소리 갖자
주인공 될 때 긍정의 눈 열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는 책들은 책과 교재로 나뉩니다. 책은 스스로 읽도록 유도합니다. 교재는 스스로를 멀리하도록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대와 같은 명문대에 진학한 아이들 중에 스스로 생각하고 끌려 책으로서 공부한 이들이 몇이나 될까요. 교재로서 책을 보고 싶지 않았지만 해야 하는 것이기에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을 되돌아 보십시오. 대학에 책을 읽으러 왔는지, 교재를 보러 왔는지를. 여기서 더 나가면 대학생활 이후의 삶은 꿈을 위한 것인지, 돈을 벌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각자가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야

여러분에게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30가지를 리스트로 작성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1년이 지나 연말에 이를 정리하고 매년 쌓아 30년이 지난 뒤 이 리스트를 보면 내가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학위, 학교는 옷에 불과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소설과 음악을 자주 보고 들어야 자신이 성장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계속 억누르다 보면 풍선 터지듯 언젠가 가장 약한 부분이 터지게 됩니다.

죽은 감정을 살리는 것에서 모든 것은 출발합니다. 저는 17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 이면에는 저를 흥분시키는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감정 없이 어떤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이뤄낼 수 있을까요.

시체처럼 살지 않고 살아 숨쉬어야 합니다. 새로운 기회가 왔을때 자신의 신념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프로이트는 ‘우리의 자아는 비겁하다’고 했습니다. 합리성을 빙자한 이성은 감정을 억누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런 이성과 감정에 대해 설합니다.

화엄은 들판에 잡다하게 피어있는 수많은 꽃들의 장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대승불교에서는 모든 존재들이 자기만의 가능성과 삶을 긍정하며 만개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불교에서의 자비 역시 자기의 삶을 긍정하지 못하는 존재에 대한 연민과 다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향이 옅다고 나쁜 꽃이 아니고, 색이 탁하다고 무가치한 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만의 향취와 자태를 지닌 주인공입니다.

지금 여기 모인 여러분 개개인이 주인공인 것입니다.

개나리의 자태와 향취를 지닌 여러분이 장비꽃이 가치가 있다고 하여 꽃잎을 붉게 물들이고 장미처럼 보이려 한다면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입니까.

자신의 잠재성을 부정하고 성장한다는 것. 혹은 자신을 부정하며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애절한 일입니까. 20살 이전까지 우리는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타자가 바라보는 모습이 되기 위해 얼마나 자신을 부정해 왔습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타인과 세상마저도 긍정하는 눈이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임제어록〉에 나오는 귀절을 소개하며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들이 불법에 부합되는 견해를 얻으려 한다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미혹되서는 안된다. 안이건 밖이건 만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바로 죽여 버려라.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나한을 만나면 나한을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고, 친척을 만나면 친척을 죽여라. 그렇게 한다면 비로소 해탈할 수 있을 것이다.

성지관음회에서 직접 스님들께만 알려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신도확보 및 불사에
큰 도움이 될 수있는 새롭고 유익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스님들만 필요하신 방법이며,
스님들만 사찰에서 시행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도들에게 바로 적용하시면 큰 반응을
얻을 수 있으며……
이 시대에 맞는 새롭고 대단히 좋은 방법입니다.

전화 주십시요.
안내책자를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 지 관 음 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명리(사주)학 학인 모집

당 문수불교문화원에서는 2013년 명리학인을 모집합니다.
관심있는 스님 및 재가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반(6개월)
음양론, 오행론, 사주의 구성, 합충법, 원진, 파, 해, 절기론, 대운법, 암장법, 공망, 당사주실무
나. 중급반(6개월)
육친법, 남과여의 육친적용, 포태법, 12신살론, 왕, 상, 휴, 수, 사, 조후론, 흉살, 길신
다. 고급만(실전교육)
격국론, 용신법, 통변법이론과 실무, 풍수지리이론, 작명이론

※ 강의 특징 : 원리위주, 이해위주, 한글위주, 통변위주 ※

2. 개강일시
가. 개 강 일 : 2013년 3월 중
나. 수업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6~8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속에 관계없이 명리학에 관심있는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학기당 30만원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원에서 교부)
6. 강 주 : 현조(문수정사 주지) 구미지역 사회 교육협의회 명리학 강의(7학기 강의) 구미 노인대학 특강, 김천 도서관 특강
7. 접수기간 : 2013년 3월 1일 ~ 13일까지(선착순 20명 이내)
8. 강의장소 및 접수처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923-16번지(지하철 1호선 반월당 2번 출구 앞)
연락처 010-2509-5535

문수정사 문수불교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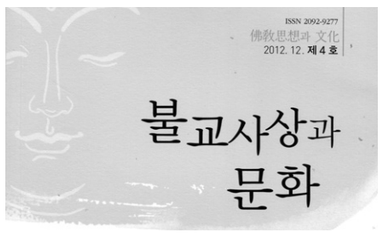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번뇌 대치법

오가는 번뇌 건드리지 말라

불교학연구원 '불교사상과 문화' 번뇌 특집 눈길

불교 번뇌 교설 논문 등 다수 실어
미산 스님, 초기불교 대치법 설명
종석 스님, 대승불교 인식 강조



불교의 번뇌를 고찰한 논문을 모은 책이 눈길을 끈다. 중앙승가대 불교학연구원(원장 종석)이 최근 펴낸 '불교사상과 문화' 제4호는 불교사상 전개 속의 번뇌론의 흐름을 다뤘다.

중앙승가대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미산 스님은 '초기불교의 번뇌론'을 통해 초기불교에서 번뇌 소멸에 대한 수행법을 고찰했다.

미산 스님은 논문에서 부처님이 번뇌 대한 일곱까지 대치법을 설한 〈맛지니까야〉의 '모든번뇌경'으로 초기경전에서 가르친 번뇌 교설과 수행법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살펴봤다.

미산 스님은 "보면, 단속하면, 충족하면, 감내하면, 피하면, 버리면, 수행하면 사라지는 번뇌가 있다고 부처님은 설하신다. 이 중 단속, 충족, 감내, 피함은 계행과, 흘려버림은 삼매행과, 봄은 지혜행과, 수행은 삼매행과 지혜행을 함께 닦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계행과 삼매행을 통해 많은 번뇌들을 대치할 순 있지만 탐·진·치에 뿌리를 둔 심리현상은 지혜 차원에서만 근본적인 치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스님은 "번뇌는 오염성, 폭류성, 집착성 등의 특징이 있어 무턱대고 번뇌를 끊고 없애야 한다고 번뇌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며 "개별 번뇌의 특징을 잘 알아야 수행 시 상황에 따라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또 "탐진치라는 바탕번뇌와 함께 주목해야 할 것이 취착(取着), 즉 집착이라는 심리현상"이라며 "집착이야 말로 갈애보다 더 강화된 상태로 심리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여지를 늘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탐진치라는 심리현상들의 순간적 점령을 막기 위해 지혜로운 주의와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즉각 알아차리고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 초기불교에서 말하는 번뇌를 사라지게 하는 방법"이라며 "번뇌 대치법의 핵심은 오는 번뇌 막지 않고, 가는 번뇌 잡지 않으며, 가만히 있는 번뇌 건드리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불교학연구원장 종석 스님은 "번뇌는 해탈과 성불을 향한 동력요인으로 시대 변천에 따라 주요 수행법이 달라지듯 번뇌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짐을 알 수 있다"며 "번뇌에 대한 시각은 당시 교단사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말했다.

종석 스님은 "초기 및 부파불교는 실천도를 정립하는 과정이었기에 업과 윤회, 해탈 등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모든 번뇌를 철저히 분석했다"며 "이로 인해 번뇌도 10가지로 구분한 후 다시 욕계, 색계, 무색계의 삼계로 구분하여 파헤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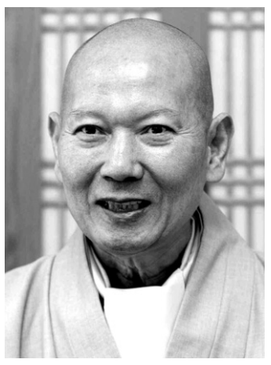
스님은 "이는 대승불교에 들어서 번뇌 자체를 보리 증득의 근원이자 에너지원으로 생각하는 적극적인 사고로 전환된다"며 "중생의 근거로 얽매여 끄달릴지, 성불을 향한 동력으로 승화시킬 지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숙제"라며 번뇌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수행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불교사상과 문화〉 제4호에는 △번뇌론의 실상과 그 전개(종석 스님) △번뇌, 어떻게 사라지는가?-초기불교의 번뇌론(미산 스님) △구사론주 세친의 번뇌론: '구사론' 5장 '수면품' k. 5-1의 경량부 번뇌 종자설을 중심으로(박창환) △화엄불교의 번뇌론(본각 스님) △천태의 번뇌 대치의 특색(이병욱) △용수의 '중송'에서 고통의 발생과 소멸: 월칭과 청목의 주석을 중심으로(남수영) △밀교경전에 나타난 번뇌론(김영덕) △초기대승과 아비달마(요하네스 브롱코스트) △'신아시아불교사' 전15권에 대한 리뷰(김천학) △'동아시아 구법승과 인도의 불교 유적'에 대한 리뷰(정병삼) △두 종교를 동시에 살아가기: '붓다 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었다'에 대한 리뷰(이찬수) 등 글이 실렸다.

노덕현 기자

동국대 불교학술원 신임원장에 현각 스님

3월 15일 동국역경원장 겸임…사업 탄력 기대



동국대 불교학술원 새 원장으로 동국대 명예교수 현각 스님이 임명됐다.

동국대는 3월 14일 불교학술원 원장과 동국역경원 원장에 현각 스님을 임명했다.

불교대학장을 역임한 현각 스님은 현재 불교대학발전위원을 맡아 불교대학 일반대학원 교과과정과 편제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불교학술원은 산하에 불교문화연구원,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사업단, 동국역경원,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인문한국연구사업단(HK), 종학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불교계 최대 학술연구 기관이다.

특히 최근에는 고려대장경연구소와 2026년까지 15년 동안 대장경 아카이브를 진행하고, 대각사상연구원과 용성 총서 전산화 작업을 진행하기로 하는 등 불교계 연구사업의 다각화를 이끌고 있다. 현각 스님의 임명으로 불교학술원이 현재 진행 중인 한국불교융합학과 및 불교한문아카데미 등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혜정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현각 스님은 1972년 석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 수지했다. 현각 스님은 종비생 최초로 동국대 철학박사를 취득했으며 선학과 학과장 불교대학장 정각원장 등을 역임했다. 한국선학회 초대 학회장, 美 하버드대 세계종교연구센터 초청 연구교수 등을 지냈다.

〈선학의 이해〉〈선어록산책〉〈행복에 이르는 뗏목〉〈선학전집〉(全11권) 등을 펴냈다.

노덕현 기자

"핵기술은 달콤한 독, 10년 내 해체기술 각광"

불교생명윤리협 창립 1주년 세미나서 한 목소리

세계원전학회 창립 준비 개최
한·중·일·독일 전문가 논의
정부 차원의 해체기술 투자 요청


3월 12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불교생명윤리협회 창립 1주년 기념세미나

북핵과 원전안전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가운데 종교계가 주도해 핵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탈핵·탈원전 활동을 펼쳐온 불교생명윤리협회(공동대표 법응·박광서)는 원불교천지보은회(회장 이선종)와 함께 3월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원전 안전문제와 해체기술'을 주제로 창립 1주년 기념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원자력 안전과 원전 해체기술을 연구하는 세계원전안전해체학회 창립을 앞두고 열린 준비행사다. 세미나에서는 한·중·일·독일 등 세계 각국의 원자력 전문가들이 모여 원전안전 및 해체기술 발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박광서 불교생명윤리협회 공동대표는 인사말에서 "100년 전 핵발견 이후 인류의 문명이 획기적으로 바뀌었다. 인간의 삶은 더 풍요로워졌지만, 대신 더 위태로워진 것도 사실"이라며 핵기술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했다.

박 대표는 "핵발전의 지혜로운 이용과 관리는 인류의 화두"라며 "안전의식이 결여된 핵정책은 자연으로부터 반드시 반격을 당하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특히 "어두운 것은 달콤하게 다가오는 법으로 스스로를 되돌아보기 위해 멈춰서야 할 때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본다면 원전 안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해체기술 등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1979년 미국 스리마일 섬, 1986년 소련 체르노빌,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를 예로 들며 핵사고가 국가차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원전문제에서는 국가간 공조를 통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선종 원불교천지보존회 대표도 "한국은 원전밀집도가 세계 1위로 원전사고와 방사능피해에서 안전하지 않다"며 "세미나가 '세계원전안전해체학회' 창립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연민 울산대 교수의 '국내 원전 안전현황과 급선무' △미하엘 자일러 독일 생태연구소 대표의 '독일 원전 안전문제와 극한시험' △얀 브레머 독일 칼스루에공대 박사의 '독일 원전 해체기술과 해체사례' △서균렬 서울대 교수의 '세계 원전 안전 해체' △쳉 쉬 중국 샹하이쟈오롱대 교수의 '중국 원전 안전문제 현황과 과제' △오카모토 코지 일본 도쿄대 교수의 '일본 원전 안전문제와 해체기술의 현황과 과제' △김용수 한양대 교수의 '국내 원전 안전점검 과제와 해체기술 조기확보 방안'이 발표됐다.

이날 좌장으로도 나섰던 서균렬 서울대 교수는 "핵 해체 기술 발전의 지속적인 진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과 조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10년 간에는 수십 억 달러 규모의 해체 작업의 확산이 전망되는 만큼 해체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한발 내다본 투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학술 · 문화재소식

조계종 문화부, 수륙재 문화재 지정 환영

조계종이 문화재청의 수륙재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진명 스님은 3월 15일 논평을 통해 문화재청이 삼화사 수륙재와 진관사 수륙재를 중요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한 데 대해 수륙재의 역사성과 독자적 가치를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노덕현 기자

고려대장경硏, 28일 '고려교장' 학술발표회

3월 28일 세종문화회관서, 창립 20주년 기념식도

고려대장경연구소(이사장 종림)는 3월 28일 창립 20주년을 맞아 서울 세종문화회관 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

고려교장을 주제로 열리는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의천, 교장총록의 체계성과 국제성(김성수 청주대 교수) △교장의 동북아 지역의 유통(남권희 경북대 교수) 등 논문이 발표된다.

이와 함께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창립 20주돌 기념식이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개최된다. (02)926-8144

노덕현 기자

'불교평론' 3월 열린논단, 선과 뇌과학 주제로

불교 전문 계간지 〈불교평론〉과 경희대 비폭력연구소는 3월 21일 오후 6시 강남구 신사동 불교평론 세미나실에서 '선과 뇌과학'을 주제로 3월 열린논단을 개최한다. 이날 열린논단에서는 뇌과학자 이성동 박사가 불교의 선체험이 뇌과학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성동 박사는 정신과 전문의로 선수행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선과 뇌의 향연〉이라는 책을 번역하기도 했다. (02)739-5781

노덕현 기자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제 59기 최면 전생요법 · 빙의치유법 강좌



한국최면과학원장 임재형 박사

커버넌트대학교 상담학 박사
미국 스탠톤대학교 최면학 교수(전)
국제 임상최면전문가(ICHT)
공인 심리상담 전문가
한국 최면지도사협회장
미국 국제최면치유학회 이사
일본 최면의학심리학회 회원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출연 화제!

인천교대, 충남대, 청주대 평생교육원에서 최면학 강의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경찰관서, 기업체 등에서 최면 특강

KBS, MBC, SBS 외 각종 케이블방송에 300회 이상 출연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학 총론, 최면요법 등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최면요법!
잠재의식 직접조절 – 강력한 개선효과!

• • •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으며 자신의
문제해결은 물론 타인을 도울 수 있는
최면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전생 요법 : 도데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던걸까?
무의식 속에 숨겨진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통찰력을 높혀 지혜로운 삶을 찾게한다.

빙의 치유 : 몸은 왜 이렇게 이유도 없이 아픈것일까?
빙의령을 직접 불러내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있는지, 원하는건 무었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어 천도한다.

사주 명리 : 전생, 사주팔자, 빙의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 "사주속에 숨겨진 영가보는 법과 심리적인 것 까지 읽을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된다.

1회 무료수강 후 결정!!

▶ 개강 : 3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 ~ 오후 4시까지 (7회 과정)
▶ 참가비 : 200만원 (과정별 교재 및 수련 CD 제공)
▶ 최면지도사협회 가입 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 심리상담사 자격증 취득 가능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시 중구 선화동 364-8 (명상센터 3층)
042) 255-0734~5

섬 포교 희망 심을 불교대학 문 열어

3월 5일 완도 신흥사 완도불교문화대학 개교

3월 5일 신입생 50명 모집 완료
불교실천수행, 템플스테이 실시



완도 불교문화대학 입학식에서 불자들이 활발한 포교활동을 다짐하며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한반도 남쪽 끝 전남 완도에 불교전문교육기관이 들어서 지역불교활성화에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완도 신흥사(주지 법일)는 3월 5일 완도불교문화대학 개교와 함께 신입생 50여 명을 모집해 첫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교한 완도불교문화대학은 완도지역 최초의 재가불자 전문교육기관이다. 도서 지역은 상대적으로 기독교 선교가 활발한 곳. 완도 불교문화대학은 완도뿐만 아니라 서해안 도서포교의 새로운 문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000여 개 섬으로 이뤄진 전남 서해와 남해는 언제부터인가 사찰이 자취를 감추었다. 오래된 사찰이 있어도 정상적인 법회와 포교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은 불과 몇 군데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광주전남지역 불교단체를 중심으로 섬포교 활동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미한 수준이다.

완도불교문화대학에서는 불교예절, 사찰문화, 부처님일생, 기초교리, 불교실천수행 등 불교전반에 걸친 기본내용과 천수경, 반야심경을 비롯해 문화답사, 템플스테이, 사찰체험 등 다양한 교과과정을 1년 과정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했다.

첫 개교식에는 백양사 주지 진우 스님, 미륵사 주지 원일 스님, 완도사암연합회 회장 벽해 스님, 시정암 주지 법장 스님을 비롯해 이진 완도군 부군수 등 100여명의 대중이 참여했다.

법일 스님은 인사말에서 "한국불교는 교리보다 개인 기도에 집중한다. 간절한 기도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다"라며 "불교대학을 통해 많은 분들이 아름다운 삶을 실천하는 곳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우 스님은 축사를 통해 "이제 한국불교는 외형적인 불사를 넘어 교육불사를 통해 완전한 불교를 전하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며, "수레가 양쪽바퀴로 완전한 기능을 하듯이 수행과 교육이 잘 이루어지는 도량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완도불교문화대학은 불교의 체계적 교육을 위해 각 분야의 다양한 강사진을 꾸렸다. 강사진으로는 신흥사 주지 법일 스님을 학장으로 교학처장에 고은 스님, 교수진에 혜진 스님, 광주불교문화대학장 행법 스님, 화순 시적암 주지 법장 스님, 해남 미황사 부도암 만우 스님, 해남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 장성 백양사 율감 덕유 스님, 조선대 환경공학부 이성기 교수, 정광고등학교 교법사 이동배 법사 등이 참여했다.

강의는 매주 수요일 야간과정으로 진행되며 강의와 함께 수련회, 문화답사 등도 진행된다. 졸업 후에는 조계종 포교사 응시자격이 부여돼며 포교현장에 투입된다.

이날 교수진들과 입학을 한 입학생들은 전남 도서지역 불교세가 활성화 될 것이란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백양사 주지 진우 스님은 "완도 지역 불교교육을 담당할 불교문화대학 건립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상대적으로 열세에 처한 교세를 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입학생 이승아(43) 씨는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다. 공부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나가기도 했다"며 "불교대학에서 불교의 다양한 교리와 문화, 신행 등을 배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입학소감을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금타 스님 열반 65주기 다례재


금타 스님 열반 65주기 다례재

근대불교의 큰기둥 벽산당 금타 스님(1898~1948)의 열반 65주기 다례재가 봉행됐다.

곡성 성륜사(주지 무상)는 지난 3월 5일 경내 법성당에서 벽산문도회 부의장인 도일 스님, 무상 스님을 비롯한 문도 스님들과 신도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다례재는 삼귀의례를 시작으로 반야심경, 행장소개, 보리방편문 봉독, 종사영반, 헌다, 헌화, 문도대표 인사 등이 진행됐다.

도일 스님은 문도를 대표해 "큰스님의 수행정진과 깨달음의 내용을 많은 후학들이 배워 정진하자"고 인사말을 했다.

다례재가 끝난 후 정운당에서 열린 벽산문도회 총회에서는 성륜불교문화재단 정관 변경과 청화불교대학, 청화사상연구소 활성화 방안이 결의됐다.

한편, 금타 스님은 1919년 장성 백양사에서 만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후 교학과 참선을 두루 공부했다. 1936년 백양사 운문암 동안거 수행시절 '원각경 삼정관의 이십오 청정법륜으로 용맹정진했다.

부안 내소사 월명암에서 지낸 한차례 안거를 제외하고는 10여 년간 내장사 벽련선원과 백양사 운문선원에서 정진했다. 1948년 세수 51세, 법납 30세로 입적했으며 제자로는 법련(法蓮), 법능(法能), 청화(淸華) 스님 등이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서원노인복지관 '찾아가는 복지' 눈길


완산골문화원에서 마을 주민들이 요가 강좌를 듣고 있다.

금산사 복지원(이사장 원행)이 위탁운영하는 전주 서원노인복지관이 어르신 밀착형 복지를 실시해 눈길을 끈다. 서원노인복지관(관장 보연)은 3월부터 전주 동완산동 완산골문화관에 교육강사를 파견해 요가와 민요 수업을 진행했다. 이번 복지관의 교육강사 파견은 지역주민과의 소통의 일환으로 지역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하고, 복지관들이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서원노인복지관장 보연 스님은 "복지관을 이용하고 싶어도 거리가 멀거나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프로그램을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실시하게 됐다"며 "그동안 복지혜택을 받지 못한 어르신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일주일에 2번 요가수업을 듣고 있는 김시순 씨(66세, 동완산동)는 "통증으로 허리를 펴지 못하고 걸음이 힘들어 복지관에 나가지 못했는데 복지관 강사님이 인근 기관에 와 요가를 가르쳐줘 이제 걸음걸이가 좋아졌다"며 감사를 표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박한영 스님 기념관 선운사에 건립돼야"

전북역사문화학회, '석전 기념관 건립 타당성 연구'에서 주장

한국 근현대불교계의 선지식인 석전 박한영(1870~1948)스님의 기념관이 고창 선운사에 건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고창군과 전북역사문화학회(회장 나종우)는 석전 박한영스님의 삶과 사상, 그가 남긴 문화에 끼친 업적등을 재조명하기 위한 '석전 기념관 건립 타당성 연구'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석전 스님은 일제 시대와 해방 직후 두 차례에 걸쳐 조선불교교정(현 종정) 역임한 당대 최고의 불교계 지도자이다. 동국대 전신인 불교고등강숙 숙사, 중앙학림 및 중앙불교전문학교 교장 등을 역임하며 수많은 후학을 길러냈다.

석전 스님의 제자로는 통합종단 제2대 종정인 청담 스님과 운허 · 운기 · 운성 · 청우 · 남곡 · 서경보 스님을 비롯해 문인으로 신석정 · 서정주 · 조지훈, 위당 정인보, 육당 최남선, 춘원 이광수, 벽초 홍명희 등이 스님의 가르침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종우 전북역사문화학회 회장은 "그동안 선운사를 중심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다례제와 추모제, 특별기획전 등이 열렸지만 기념관이 건립돼 정신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역사문화학회 측은 현재 선운사 인근에 미당문학관, 고창 무초미술관, 판소리박물관, 고인돌박물관 등이 있어 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효과가 배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이미 선운사에는 위창 오세창이 제액한 석전 영정을 비롯해 석전 스님의 저술과 자료, 병풍, 대련, 간찰 등 스님의 유묵과 교류했던 많은 문사들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어 기념관 건립을 위한 자료 마련에도 수월한 상황이다.

나종우 회장은 "석전 스님은 삼천리 제4권 제3호에 '차대(次代)의 지도자 총관(總觀)' 기사에서 석전 스님을 불교계 지도자로 명기하는 등 당대에 인품과 덕이 널리 알려진 분"이라며 "우리나라 근대교육의 선구자이며, 불교개혁과 항일독립운동으로 한 획을 그었던 스님의 생애를 조명하기 위한 건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자들이 주도해 평화운동 나서자

천안 보명사 대광 스님, 한국 영세중립국화 호소

천안 보명사 주지 대광 스님은 "한반도 평화위협이 최고조에 달한 지금 한국 불자들의 원력을 모아 영세중립국화에 나서야 한다"며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광 스님은 "불교는 훈고학적 수준을 벗어나 응용불교, 실천불교의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며 "한국불교가 외세의 위협을 잠재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세중립국화 발원은 3월 3일 전국민 서명운동본부가 발족한 상태다. (02)2198-5022

노덕현 기자

광주전남불교환경연, 자비 쌀 전달

광주전남지역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위한 불교계의 나눔 잔치가 열렸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는 3월 13일 '제6회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활동가 자비의 쌀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흥사, 금선사, 연화사, 관음사 등 14개 광주전남지역 사찰에서 후원받은 쌀 1,640kg이 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41명에게 40kg씩 전달됐다.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쌀 나누기로 인해 자비의쌀을 전달받은 활동가들은 200여 명에 달한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는 북한 식량난 당시 쌀을 모아 전달을 했으며,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반대 대책위에도 쌀을 전달한 바 있다.

법일 스님은 "지역사회의 발전은 시민활동가들의 힘에 필수적이다"며 "불교계의 작은 정성이 어렵게 활동하고 있는 실무진들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전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자비의 쌀을 지원받은 단체는 광주전남6 · 15공동위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진보연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등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4대종교 재활용장터, 무각사서 개최


보물섬 장터의 인산인해 장면

불교 · 천주교 · 기독교 · 원불교 등 4대 종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광주지역 재활용장터 '보물섬'의 2013년 첫 장터가 3월 9일 무각사에서 개최됐다.

지난 2009년 3월 첫 장터를 연 보물섬은 누구나 자신만의 중고물품이나 개인 물품을 들고 나와 판매가 가능한 나눔장터로 판매의 일적 수익금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용된다.

이날 개장식에는 무각사 주지 청학 스님을 비롯해 천주교 광주대교구 김희중 대주교, 개신교 정관채 목사, 김종식 광주서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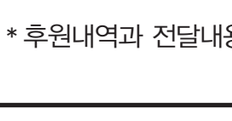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얀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얀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얀마연방정부 추대 미얀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뿌 출가의식 지원
신뿌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뿌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 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격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

부산연등축제, 통큰 변신 기대

부산불교연합회 2013년 봉축 마스터 플랜 제시



부산연등축제기획위원회는 3월11일 부산 미타선원에서 기획단 회의를 열었다. 기획위원회는 '세상에 희망을, 마음에 행복을' 봉축표어로 정하고 부산연등축제 공식 일정을 발표했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수불스님)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2013부산연등축제'의 봉축표어와 마스터플랜을 제시했다.

부산연등축제기획위원회(위원장 심산스님)는 3월11일 부산 미타선원에서 개최된 기획단 회의에서 '세상에 희망을, 마음에 행복을'이라는 봉축표어를 선정하고, 부산연등축제 공식 일정을 발표했다.

공식일정은 △3월 26일 조직위원회 결성법회 △4월27일 봉축점등식 △5월7일~12일 부산연등문화제 △5월 11일 봉축연합대법회 △5월11일 구덕종합운동장- 국제시장-대청로 구간 제등행진 △5월11일 대청로 대동회향한마당을 펼친다. 또한 전통 등 문화의 보급과 시민참여 활성화를

대동회향마당 재정비 등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로 거듭나

위한 '전통등경연대회'가 올해 처음 개최되며 '아마추어 사진공모전'도 진행된다.

올해 부산연등축제에서 눈여겨 봐야 할 대목으로 제등행진과 행사의 피날레를 장식할 대청로 대동회향한마당 행사에 큰 변화가 주목된다. 부산연등축제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제등행진은 사찰별, 단체별로 장엄등과 행렬등이 한데 섞여 이동해서 오는 무질서함과 지루함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지는 행렬의 길이와 먼저 도착한 선두그룹의 철수와 이탈로 행사의 피날레가 되어야 할 대동회향한마당은 후발대의 원성과 한숨만 가득한 '피로회향한마당'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올해 부산연등축제의 주안점은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크게 개선해 '모두가 함께 관람하는 축제,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로 큰 변화를 시도한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부산연등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끌어올리기 위해 브라질 샴바축제 퍼레이드처럼 대형장엄등과 화려한 복식을 입은 행렬등 무리를 한 데 묶어 선두군으로 한다. 또한 자유 복장의 시민과 행렬등 무리는 사찰·단체 구분없이 자유행진군으로 후발대로 묶어 동선을 압축하고, 거리응원단을 조직하여 흥을 더할 예정이다. 축제의 화려한 볼거리와 함께 제등행진의 의미도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변화를 꾀한 것이다.

또한, 대동회향한마당은 먼저 도착한 선두그룹이 대청로 600m구간을 화려하게 장엄하고, 특별히 설치된 무대와 무인비행선을 이용한 꽃비 등의 특수효과 등으로 축제의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내 행사의 피날레를 장식할 것이다.

한편, 용두산공원에서 진행되는 연등문화제는 행사기간동안 대형전통등, 장엄등, 창작등을 관람할 수 있으며, 전통문화체험, B-Boy댄스경연대회, 국악한마당, 비빔밥무차만발공양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부산연등축제의 자세한 일정은 공식홈페이지 www.bba48.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부산불교승가연합회 사무실 열어

온천동 소재… 3월 18일 개소식



부산불교승가연합회가 사무실 개소식 장면

지난해 12월 창립한 부산불교승가연합회가 부산 온천동에 사무실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전법활동을 시작했다. 부산지역 군소종단 연합체인 부산불교승가연합회(회장 법민스님)는 3월 8일 부산 온천동에서 회장 법민 스님(수덕사 주지), 이사장 조연 스님(법연원 주지), 사무총장 자인스님(길상사 주지), 통합선교종 종정 정각스님(미룡사 회주), 해인종 종정 혜지 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무실개소식을 개최했다.

부산 온천동 베스트그린빌딩 4층에 위치한 사무실은 330m2 규모로 사무공간과 교육장, 상담실과 휴게실을 갖추고 있다. 이 공간은 연수교육 및 법률, 행정 지원 업무와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을 꾸려나갈 것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부산불교승가연합회 회장 법민 스님은 "권위적인 회장이 아니라, 항상 하심하고 경청하는 회장이 되겠다"며 "다양한 종단이 모인 단체지만 모두 부처님의 일불제자이고 부산 불교의 핵심에 있는 분들이 모인만큼 종단 간 화합과 부산 불교의 발전을 위해 정진해 나가자"고 인사했다.

사무총장 자인 스님은 "교육장을 활용한 다양한 연수교육을 통해 부산시민과 불자들에 귀감이 되는 승가의 모습을 확립하고 승가공동체로 함께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보광원 조실 화산 스님 영결식 엄수



화산 스님 영결식 장면

지난 3월 6일 입적한 대구 보광원 조실 화산당 학명 대종사의 영결식이 3월 10일 오전 보광원에서 봉행됐다. 영결식은 은해사 조실 혜인스님과 통도사 주지 원산스님, 주호영 국회의원 등 각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장소개와 생전 육성법문, 영결사, 법어, 추도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산불피해 성금 전달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원산스님)가 울산지역 대규모 산불피해성금을 울주군에 전달했다.

통도사 스님들이 3월 14일 울주군청을 방문해 지난 9일 발생한 울산지역 산불화재로 고통받는 피해주민들을 돕기 위한 산불피해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성금전달을 위해 총무국장 현덕스님, 사회국장 도안스님, 호법국장 진웅스님은 울주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신장열 울주군수에게 직접 전달하고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통도사 총무국장 현덕스님은 "차후에도 쌀과 물품, 인력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이제열 법사 〈금강경〉 강의

법림 대구법회(회장 박동훈)는 3월 5일 금강경 대강좌 개강법회를 열었다. 법림 대구법회는 이제열 법사를 초청 대구불교회관 6층 만불보전 법당에서 매주 법회를 연다.

첫 법회에는 사부대중 50여명이 동참했다. 법림 대구법회 박동훈 회장은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누구나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행복의 길을 제시했다"며 "이제열 법사는 수십년간 법문을 펼쳐온 경험과 수행으로 부처님이 전하는 금강경의 법을 명확하게 짚어 내어, 공관수행으로 재가불자들을 해탈의 길로 안내할 행복한 만남이 되었다"고 전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나무 한 그루도 종교적 상징

유난히 춥고 길었던 겨울이 봄기운을 견디지 못하고 슬그머니 도망간 자리에 다시 봄이 찾아왔다. 남녘에서는 동백이며, 매화며, 산수유, 목련 같은 꽃들이 꽃망울을 열었고 조금 더 지나면 진달래, 철쭉, 개나리, 복숭아나무, 살구나무, 벚나무도 꽃을 피워 온 세상이 꽃 잔치로 떠들썩할 것이다.

예로부터 사찰에서는 꽃 공양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서 사찰주변은 물론이거니와 사찰경내에도 꽃이 피는 나무와 초화류들을 많이 심었다. 철따라 피는 꽃을 부처님에게 공양함은 물론 스님들도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자연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였다.

지금까지 전해지는 몇몇 서적을 보면 지난날 사찰에 심었던 나무나 꽃들에 대한 기록이 있어서 흥미롭다. 〈동국여지승람〉을 보면 "화암사(花巖寺) 못가에 창포가 우거져 있고, 섬돌 앞에는 노랑목단이 피어있으며, 작약도 붉게 피어있다" 라는 기록이 있다. 이러한 기록들을 보면 오래 전부터 사찰에서 좋은 나무와 초화류를 심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사찰에 여러 가지 종류의 나무나 초화류를 심어서 필요한 꽃과 열매를 얻었으나 그것들이 심어지는 장소는 제한적이었다. 특히 키 큰 나무를 마당 한가운데 심는 것은 피했는데, 그것은 담장(口) 안에 나무(木)를 심으면 괴로울 곤(困)자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좁은 마당에 나무를 심으면 바람이 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햇빛이 들지 않아서 습해지고 결과적으로는 건강에 좋지 않은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었다.

사찰의 경우에는 이러한 환경적 이유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사찰의 중심공간은 탑이 서는 자리이고 여러 가지 의식이 치러지는 공간이어서 상징성과 더불어 불자들이 편하게 신앙활동을 할 수 있는 기능성을 가져야 하는데, 키 큰 나무가 있으면 앞이 가려질 뿐만 아니라 탑에 대한 상징성이 약화될 것을 걱정했기 때문이었다.

최근에는 사찰의 공간이 대형화되면서 마당의 일부를 식재공간으로 처리하는 경우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키 큰 나무를 심는 것만큼은 매우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살필 수 있다. 향후에도 사찰의 조경은 작은 것이라도 전문적 관점에서 다루어져야지 스님들의 취향이나 신도들의 무분별한 요구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사찰은 일반적인 공간이 아니라 종교적 공간이기 때문이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사찰의 마당에 키 큰 나무를 심는 것은 종교적 상징성과 신앙적 기능성에 맞지않는다. 경상북도 ㅅ사찰



세속의 티끌 툭툭…내면의 '수마노'를 찾는다

적멸보궁 2- 정선 정암사

정암사, 세속과 끊고 청정 수행하란 뜻
정선군, 수마노탑 국보승격 추진
효봉, 지월 스님 등 현대 선지식 수행


5대 적멸보궁 중 하나인 정선 정암사는 전국 각지에서 기도하러 온 순례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이다.


보물 제410호인 수마노탑. 현재 국보승격을 추진중이다.

정암사는 자장율사가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곳이자, 일생을 마친 유서깊은 곳이다.

율사와 대국통으로 권력 핵심에 있던 자장이, 이 산골 오지까지 온 이유는 무엇일까.

선덕여왕 당시 당나라를 다녀온 자장은 핵심 인물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선덕여왕은 강력한 정치세력으로 등장한 김춘추와 김유신의 견제를 받았다. 이 신진세력은 당 태종을 모델로 하는 유교치국책을 지향했고, 진덕여왕을 거쳐 김춘추가 왕위에 오르면서 자장은 정치적으로 불안해질 수밖에 없었다. 구역불교의 마지막 세대였던 자장의 활동에 제동이 걸린 반면, 신역불교를 받아들인 원효와 의상은 왕성한 활동을 벌였다. 불교계에도 세대교체가 일어난 셈이다.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입지가 좁아진 자장율사. 하루아침에 권력과 명예를 잃은 그는 '초심'을 택했다. 젊은 시절 명예도 마다하고 깨달음을 얻고자 수행정진 했던 그때처럼. 그래서 찾은 곳이 지금의 태백산 정선 정암사다.

자장율사의 입적 후 정암사는 역사에서 1천년 동안 드러나지 않는다. 정암사가 일반에 알려진 건, 1948년 함백광업소가 문 열면서부터다. 교통이 발달한 지금은 도로변에 위치해, 마음만 먹으면 전국 어디서든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사찰이 됐다.

정암사에는 대웅전이 없고 적멸궁만 있다. 적멸궁은 '부처님이 열반에 들어 항상 머물러 계시는 궁궐'이라는 의미로, 수미단에는 불상이 없고 방석만 있다.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셨기 때문인데, 부처의 진짜 몸이 있으니 따로 상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 하지만 부처님의 진신사리는 이곳이 아닌 적멸궁 뒤편 수마노탑에 봉안돼 있다.

게다가 수마노탑서 보는 풍광은 가히 장관이다. 100m 남짓, 7~8분을 올라왔을 뿐이지만 워낙 고지대라 태백산맥의 산줄기가 한 눈에 보인다. 자장율사가 수마노탑을 만들면서 금탑과 은탑도 세웠다고 하는데 지금은 찾을 수 없다.

특히 수마노탑은 국보지정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문화재청 및 문화재위원회는 3월 5일 정선군 고한읍 정암사 일원에서 국보지정 신청을 한 보물 제410호 정암사 수마노탑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문화재위원회 등은 3월말이나 4월 중 심사위원회를 열어 국보지정 신청에 대한 평가를 하는 만큼 수마노탑의 국보 지정 여부는 늦어도 4월 말께는 판가름 날 전망이다.

수마노탑은 돌을 벽돌처럼 잘라서 쌓은 7층 석탑(模塼石塔)으로, 기단부는 평면이 점점 좁아지게 화강암 6단으로 쌓았고, 그 위에 회록색을 띠는 석회암 벽돌을 2단으로 쌓아 탑 몸체부를 받치고 있어, 마노석 하고는 상관없는 석회암 탑이다. 그런데도 왜 수마노탑으로 불리게 되었을까?

"자장이 정암사를 짓고 7년 후에 수마노탑을 세웠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지금의 수마노탑은 고려시대에 세웠을 것이라고 짐작한다"는 문화해설사의 이야기를 듣고 이 탑에 혹시 마노석이 섞여 있나 유심히 살펴보았지만, 마노석은 보이지 않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로부터 마노를 칠보(七寶) 가운데 하나로 여겨 소중히 여기는데 일종의 신비스런 탑으로 여기게 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지 않을까 상상해 본다.

정암사라는 이름은 세속과 인연을 끊고 정결하게 이곳에 수행하라는 뜻으로 지었다고 한다.

정암사의 정(淨)자는 맑고 깨끗하며 사념이 없다는 의미다.

이 절은 일반 신도들뿐만 아니라, 출가 수행자들 사이에는 각별한 의미를 갖는 성소(聖 所)로도 인식되고 있다. 아마도 수행자들이 한번 들어오면 세속의 연을 끊고 수행에 전념하기 위한 필요조건이 잘 갖춰진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현대에 들어와서도 일제시대 현직판사를 그만두고 총독부의 집요한 주시를 피해 이곳에 3년 동안 머물며 수행 정진한 효봉(曉峰)스님과 해방 후 지월(指月), 서옹(西翁)스님이 이곳을 거쳐 가는 등 출가자들의 수행처로 각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석탄산업 중심지로 정선이 부각되면서 알려졌지만 수행자들 사이에서 정암사는 재앙을 막아주는 기도처요, 성지로서 인식돼 왔다. 그래서인지 정암사에 오니 다른 사찰서 느끼지 못한 이 절만의 신산한 기운이 느껴진다. 순례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것 같다.

정선 정암사=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주변 관광지


〈염기적인 그녀〉 촬영지였던 소나무가 있는 '타임캡슐 공원'

아리랑의 흔적이 담긴 **아우라지**가 주변에 있다. 여량면에 위치한 아우라지는 정선아리랑의 배경이 된 곳이다.

아우라지는 남한강 천 리 물길을 따라 처음 뗏목이 출발하던 곳으로, 임과 이별하는 것을 슬퍼하는 여인의 구구절절한 사연이 전해 내려온다. 아우라지 처녀동상 사랑과 그리움의 대상인 아우라지는 그 모습이 많이 변했다. 하천을 잇는 돌다리와 함께 대형 조형물이 세워진 다리도 들어섰다, 아우라지역에는 열차 카페가 문을 열고, 구절리까지 **레일바이크**가 오가면서 한적함을 벗어내고 이방인의 발길 또한 잦아졌다.

정선읍 애산리의 **아라리촌**은 정선의 옛 주거 문화를 재현한 곳으로 굴피집, 너와집, 귀틀집이 조성되었는데 이곳에서 하룻밤 묵는 체험도 가능하다. 정선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장터다. 곤드레나물밥, 콧등치기국수 등 정선의 별미를 파는 먹자골목이 들어서 있으며, 각종 산나물과 옥수수, 수리취떡 등을 현장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5일장인 **정선장터**는 2012년 '한국 관광의 별'에도 선정된 명소다.

영화 〈엽기적인 그녀〉 촬영지를 활용하여 신동읍 조동리 새비재에 조성한 **타임캡슐공원** 가운데서 있는 소나무가 멋진 풍모를 자랑하고 있다. 2011년 6월 해발 850m인 신동읍 조동리 일원 4만2807㎡ 부지엔 이색적인 '타임캡슐 공원'이 개장했다. 이 공원은 지난 2001년 450만 관람객을 동원했던 코믹멜로 영화 〈엽기적인 그녀〉의 촬영지인 조동리 새비재에 자리잡고 있다. 영화 속 주인공인 견우(차태현)와 엽기적인 그녀(전지현)가 새비재 소나무 아래 묻어둔 타임캡슐을 개봉하는 스토리를 토대로 관광자원화한 것이다. 소나무를 중심으로 12개의 달을 형상화한 자리에 5868개의 타임캡슐이 묻혀 있다. 타임캡슐은 100일과 1년, 2년, 3년 등 기간별로 임대된다. 대여료는 1만~4만원선이다.

▲여행 정보
- 정선군청 문화관광포털 www.ariaritour.com
- 정선레일바이크 www.railbike.co.kr
- 정선군시설관리공단(아라리촌, 화암동굴) www.jsimc.or.kr

▲문의 전화
- 정선군청 관광문화과 (033)560-2363
- 정선군종합관광안내소 1544-9053

가는길&묵을곳&먹을곳

■서울서 정선까지 승용차로는 3시간30분 정도 걸린다. 영동고속도로 새말IC에서 42번 국도를 타면 정선읍내에 진입할 수 있다. 네비게이션에 '정암사'를 치면 주소가 나온다.

■정선읍내는 숙소 사정이 좋지 않다. 사북 일대서 숙소를 찾는 게 좋다. '하이원리조트'(1588-7789) 등 리조트·호텔·모텔·펜션들이 즐비해 쉽게 숙소를 잡을 수 있다. 전통가옥의 정취를 느끼고 싶다면 '아라리촌'(033-560-2059) 체험 숙박을 해볼만하다. 귀틀집, 너와집 등에서 1박이 가능하다. 크기는 13평(4명 수용)부터 47평(10명 수용)까지 다양하다. 가격 10만~30만원대.

■정선의 대표적인 음식은 단연 곤드레밥이다. 곤드레나물과 들기름을 넣어 지은 밥에 고추장과 자박장을 비벼먹는 맛이 일품이다. 정선읍내 싸리골식당(033-562-4554) 등이 이름난 곳이다. 〈나의 문화유산답사기2〉에 나온 아리랑민요를 구성지게 부르는 전옥매 할머니의 '옥산장(033-562-0739)'도 곤드레나물밥이 일품이다.


정선 옥산장의 일품 메뉴인 '곤드레나물밥'



생태사회와 불교

거버넌스 (協治), 더 나은 녹색정치

이해 당사자 참여가 민주주의 대안





1992년 리우 지구정상회의가 열린지 20년 만인 지난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사진 왼쪽〉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사진 오른쪽〉. 리우의 〈의제 21〉은 생태 정치의 한 모델이지만 한국 정부의 정책은 여전히 미비하다.

속도의 정치, 소통의 생태정치로

요즘 한국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키워드는 '소통'이라고 할 수 있다. 소통은 아래로부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이를 토대로 정책결정을 하는 것이다. 소통은 "상부에서 명령하면 하부에서 복종한다 (上命下服)"는 방식과는 반대의 개념이다. 소통의 정치는 과정의 정치이다. 빨리 결론 맺고 정책결정을 하려한다면 소통은 필요하지 않다. 민주화를 희생시키면서 근대화와 압축적 경제성장을 해온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과정으로서의 정치보다는 강력한 정부의 빠른 결정과 일사분란한 집행에 익숙해져서, 충분한 시간을 들여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것을 불필요한 답답한 과정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보이지 않게 구축되어왔다. 여기에 '빨리빨리'라는 한국의 특유의 문화가 결합되면, 과정의 정치는 국민이나 정치인 모두에게 비효율적인 것으로 비춰진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결정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는 이미 판단이 끝났다. 4대강개발의 사례를 보라. "내가 다 해봤는데"의 정치, "처음에는 반대해도, 해놓고 나면 다들 좋아한다"는 이명박정부의 토목공사식 밀어붙이기는, 단기적으로 효율적일지는 몰라도 결국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며, 잘못된 결정으로 예산낭비와 행정력의 손실, 국론분열의 낭비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졸속 결정으로 인해 엄청나게 훼손된 자연환경의 피해를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가하는 점이다. 그래서 천천히 차분하게 과정과 절차를 소중하게 여기는 정치가 느리지만 오히려 더 빠른 것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민-관의 협력적 거버넌스로 변화돼야

태안앞바다에서 벌어진 기름유출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100만명의 자발적 자원봉사자들이 기름을 제거하는 작업에 참여를 했다. 일본의 고베지진과 3.11 대지진 당시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인 구호활동은 세계를 놀라게 했으며, 2005년 미국남부의 허리케인인 카트리나로 인한 피해에 군대가 출동하기 전까지 민간인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한 복구과정과 그들의 희생적 노력을 보면서 이제 국민들이 그저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발전과 변화의 진정한 주체가 되도록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다시금 깨닫기 시작했다.

이명박정권 초기, 저탄소녹색성장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산업,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겠다고 선언했고, 녹색생활실천을 통한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말 그렇게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질적으로 실행 하려면 광범위한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것은 '안되면 되게하는' 밀어붙이식 토건문화에서는 경험해본 적이 없는 문화였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지를 계획하고 조직화하지 않으면 이제 그 어떠한 사회적 변화도 이끌어 낼수 없다. 이제 정치는 시민들의 다양성을 구현하고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운영원리가 되고 있다.

더많은 참여를 위한 생태적 민주주의

최근에 정치에서 유행어라고 한다면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용어이다. 영어로는 직역하면 '통치'라는 말인데, 새로운 의미에서 '뉴 거버넌스',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를 그냥 통칭 '거버넌스'라고 칭한다. 그러한 의미의 거버넌스를 협력적 정치라는 의미로 '협치(協治)'라고 번역한다. '거버넌스'는 새로운 정치의 참여방식이자, 공적업무의 수행방식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거버넌스(협치)는 과거의 '통치'와 어떻게 다를까?

과거 통치는 오직 중앙정부와 소수의 결정권자만이 정책결정을 할 뿐이고, 국민들은 그저 4~5년에 한번있는 선거 때를 제외하고는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길은 아주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사회가 복잡해지고 이해관계자가 많아져 과거처럼 중앙정부가 복잡다단한 일들을 일일이 계획하고 조정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더욱이 밀어붙이기 통치로는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거버넌스의 중요한 특징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정치 및 사회적 단체, NGO, 민간 조직 등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네트워크를 강조한다. 여기서 정부는 전통적인 정부처럼 우월한 입장에서 있기 보다는 이해당자사들의 입장을 잘 조정하여 결정하게 하는 촉진자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정책결정 과정에서 의제를 제시하고 이것을 실행하는 과정에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놓고 토론하고 논쟁하며 합의하는 과정 그 자체를 중요하게 본다.

이렇게 합의되고 결정되면 전통적 정부는 자기들이 홀로 집행의 책임을 지지만, 거버넌스 방식에서는 그 집행의 책임도 최대한 골고루 나누어 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합의가 된 다음이 중요하다. 과정에 참여하면 결국 집행에도 책임감을 느낄 수 밖에 없고, 집행결정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제를 자신이 해결해야할 과제로 느끼는 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크 구조의 영향으로 정부와 사회의 역할분담이 달라진다. 하향적이고 집권과 통제의 전통적 방식에서, 사회의 자기 조절능력, 서로 공동규제의 능력, 공동조정, 공동지도가 강조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민-관 거버넌스' 要
거버넌스는 새 정치 참여 및 공무 방식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네트워크 중시
〈의제 21〉은 거버넌스 대표적 정책 사례

이 거버넌스는 복잡한 사회속에 수많은 이해당사자들 결정과정에 참여하고, 합의내용의 실행도 분담하면서 훨씬 더 많은 민주주의와 참여를 만들어내며, 더 많은 자발성을 끌어내는 '유연한 정부, 탈규제적 정부, 시장정부, 참여적정부, 최소국가'로서 전환을 지향한다.

거버넌스의 대표적 사례, Agenda 21

92년 브라질 리우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UNCED)' 일명 지구정상회담(Earth Summit)이 개최되었다. 여기서 노르웨이의 여성총리 브룬트란트가 중심이 되어 10년간 토론으로 작성된 보고서 '우리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가 제기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ESSD)"를 토대로 리우선언을 했고, 이를 실행하는 의제 21(Agenda 21)이 발표되었다.

의제21은 세계, 국가,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각각 발표하도록 권장했다. 그런데 채택해 발표하는 과정서 반드시 9개의 주요그룹 즉, 정부, 여성, 청소년, 원주민, 노동, 농민, 시민사회단체, 기업이 대등한 파트너쉽 (Partnership)을 갖고 참여하게 됐다. 그래서 이들이 스스로 토론을 통해 목표를 정하고 실행기간을 정해 정부, 시민단체, 기업 등 각각의 행위자들이 정해진 목표를 위해 실행 책임을 공동으로 지으면서 행동하기로 한 약속문서이기도 하다.

이 의제 21은 '리우선언'이라는 국제적 원칙이 정해지고, 국가와 지방정부, 또 기초단체수준까지 내려가 그곳의 이해당사자 모두를 불러내 참여하게 만든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거대한 세계변혁 프로젝트로 주목 받았다. 더 나아가 이 새로운 변혁 방식은 정부나 자치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단체나 기구, 조직들이 다양한 참여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공동행동을 약속하고 실행하는 방식으로 많이 활용됐고, 2006년 조계종도 〈불교의제21〉을 만들어 배포했다. 서울에서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중심으로 1998년 〈서울의제21〉이 만들어진 이후 전국 대부분의 광역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 〈지방의제21〉이 완성돼 실행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그래서 이들 지자체들이 모여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를 만들었고, 김대중대통령 재임시, 국가행정 각부처의 정책을 '지속가능성'의 관점서 조정하는 자문기관으로서 '대통령직속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처럼 '의제 21'은 거버넌스의 대표적인 정책사례로 이후 정책변화의 한 전범이 되었고, 생태정치의 한 모델이 되었다.

녹색사회적 운영, 생태적 운영원

환경위기를 앞두고 이제 한 국가에 갇힌 사고에서 전지구적 차원으로 안목과 시야를 확대하도록 요구받기 시작했다. 결국 모든 것이 연결되고 연관된 세계문제와 환경문제위기를 앞두고 한 국가만의 고립된 문제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지구차원에서 생각하고 지방차원에서 행동하라 (Think Globally, Act Locally)'는 것이 중요한 정책 모토가 되었다.

한편으로 세계적 관점에서 지역의 문제를 바라보는 '세방화 (Glocalization)'가 강조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의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지세화 (Lobalization)'의 시각도 강조된다. 이런 정치원리는 국제적 책임감과 그 시각을 확대하되 지역단위의 실천이 강조되면서 그 사이 국가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결국 지역단위의 자립적, 공동체적 완결성을 갖는 사회로의 변화를 지향한다.

또 녹색운영원리는 '참여와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의미한다. 이전의 정치원리는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정글 법칙이었다면, 그런 원리는 녹색사회를 이루는데 적절하지 않다. 상호보완, 협력과 공생 및 상생을 가치로 하는 녹색정치는 정당정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녹색정치는 지역단위서 자치와 공동체를 이루어 자립적 역량, 민주주의의 역량을 키우는 모든 행위이며 곧 생활정치를 의미한다.

유정길 (에코붓다 前 공동대표 생태사회 연구소 연구원)

(주)에스굿
마하연투어 성지순례

황금의 땅! 불탑의 나라! 미얀마
미얀마 성지순례 더 가깝게 만나보세요

- 양곤 | 바고 | 시리암 5일 899,000 ~ 부터
- 양곤 | 바간 | 헤호 5일 1,399,000 ~ 부터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1,549,000 ~ 부터
- 양곤 | 바간 | 헤호 | 짜익티오 6일 요금문의

※ 짜익티오 파고다 정상 짜익토호텔 숙박 – 파고다 철야기도 등 가능

차별화된 가격! 품질! 불교행사를 경험 해 보십시오. "미얀마 현지 여행사 운영업체"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 129만원 (추가경비 일체 없습니다)
▣ 인도 완벽성지순례 (8대성지) 11일 요금문의
▣ 인도 완벽성지순례 (8대성지) 14일 요금문의
▣ 스리랑카 성지순례 7일 요금문의
▣ 라오스 직항 5일 135만원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02)365-7747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281-1

전선 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용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공단연등(고리용)
노랑 진분홍 백색 연분홍
▶연등규격 : 4″, 6″, 7″, 8″, 10.5″, 13″, 20″, 30″

건전지 초(행사용) 탑돌이 방생
노랑 진분홍 백색 연분홍
아주 밝은 건전지 초 (LED용)
LED전구, DC 9V 백색 · 노랑 · 빨강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불교와 미학

수월관음과 선재동자

관음보살의 자비 온 우주에 가득하네

"나에게 있는 관세음보살은 밤낮 의연(依然)하신 관세음보살입니다. 잘난 이에게는 어떨는지, 아는 것 많은 이에게는 어떨는지, 나에게는 관세음보살님이 편안하고 좋은 구제(救濟)의 님이심을 믿습니다. 경론(經論)에서 선록(禪錄)에서 사부(四部)에서 백가(百家)에서 보고 듣고 헤매는 것을 관세음께 다 맡겼습니다. 아니 어느 틈에 맡아 가셨습니다. 불평과 희망과 삼독과 팔난이 남보다 치성하다고 하겠지마는 모든 풍파를 관세음의 회향 중에서 겪으매 불안 그대로가 평안(平安)입니다."

-최남선 〈묘음관세음〉 중에서

앞선 연재에서 우리는 사천왕이 어떻게 불법을 보호하고 세상을 구원하는지 보았다. 사천왕은 그 외에도 사람들이 죽음에 임했을 때 그들이 생전에 지은 업을 낱낱이 조사하여 제석천왕에게 보고하는 일도 한다.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중생의 업을 기록하여 선업을 지은 자는 좋은 과보를, 악업을 지은 자는 나쁜 과보를 받게 한다. 그래서 사천왕은 잠시도 쉴 틈이 없다. 이렇듯 사천왕은 악을 징벌하는 심판자로서 세상을 구원한다.

그러나 불이문을 지나서 부처님의 세계에 들어가면, 우리는 모든 시비와 호오, 선악이 사라진 적정의 세계를 만나게 된다. 이 세계에 머무는 존재들 또한 대자비의 마음으로 중생을 보살피고 있다. 그들은 언제 어디서나 그들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달려갈 것이며,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들을 위해 연화대를 마련하여 마중하려 갈 것이다. 그들의 자비는 한이 없어서 천하의 악당도, 불법을 모르는 일천제도 구원해주신다. 아무리 험난한 삶의 행로라도 그들에게 의지한다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관음 화현의 한 모습, 수월관음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까? 〈법화경〉 보문품에 따르면, 자비의 화신인 관세음보살은 뱃사공의 모습, 여인의 모습, 어린아이의 모습 등 서른세 가지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 어느 곳에든 나타나서 사람들을 구제한다. 그러나 실제로 관세음보살은 앉은 자리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은 채 세상을 구원하고 있다.

고려불화에서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게 그 모습을 선보이는 수월관음이 바로 적정처 한 가운데에서 온 세상을 구제하는 존재이다. 이 수월관음은 〈법화경〉 보문품에 나오는 응신이 아니라 〈화엄경〉 입법계품에서 선재동자가 만난 선지식 중 한 분이다.

수월관음이 계신 곳은 남인도 해안가 험준한 바위산 보타락가산, 스승을 찾아 남으로 구도의 길을 떠난 선재는 관세음보살을 뵙고 가르침을 구하기 위해 그곳을 향한다. 거친 바다를 건너고 험준한 암벽을 올라 골짜기 깊은 곳에 도착했을 때, 그는 세상에서 가장 미묘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본다.

거기 시냇물 굽이쳐 흐르고 나무가 울창한 곳, 아미타불을 모신 보관을 높이 쓰고 향기로운 풀 위에 반가부좌를 하고 선정에 든 수월보살이 있다. 암굴 속의 관음은 어깨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리는 화려하고 섬세한 옷과 온갖 보석으로 장식하고 온 몸은 빛으로 감싸여 있다. 두 그루 푸른 대나무 사이로 맑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온다. 그는 꿈에서 깨어난 듯 선재를 응시한다. 관음의 시선이 향하는 맞은 편 물가에 선재동자는 발을 종긋 세우고 합창하며 수월관음을 우러러보고 있다.

이 그림은 보살과 존재 자체의 만남이라는 가장 인간적이고 내면적인 순간을 형상화하고 있다. 대각선 구도 속에서 화면을 가득 채운 압도적인 보살에 비하여 선재동자는 왜소하기 이를 데 없다. 하지만 관음의 거대함은 서양미학에서 '숭고'라고 부르는, 사람을 압도하는 느낌을 가져다주기보다, 부드럽고 온화함에서 흘러나오는 위엄을 느끼게 한다. 동시에 선재의 눈으로 관음을 바라보게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거대한 관음 앞에서 선재처럼 모두 어린아이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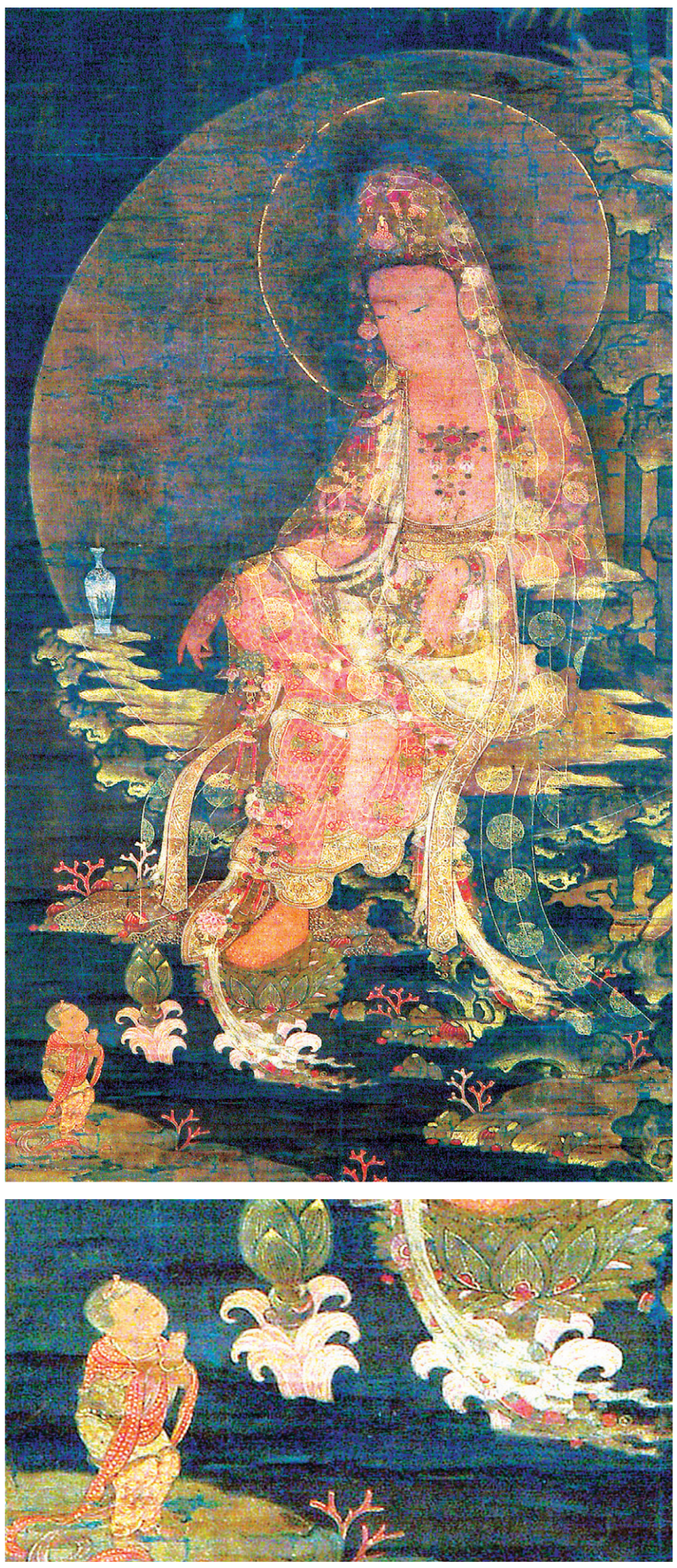
관음의 응신 중 하나 수월관음
온화함의 위엄으로 중생제도
그 앞에서 우린 선재가 된다

관음은 어떻게 우리를 제도하는가?

격랑이 부는 바다는 우리를 의지할 바 없는 어린아이로 만든다. 삶의 고통은 우리가 어떤 지위에 있든, 무엇을 소유하고 있든 관계하지 않고 존재 그 자체를 직면하게 만든다. 고통 앞에서 우리는 삶의 진실을 만나게 되며, 그래서 어린아이가 된다.

그런데 고통 외에 우리를 순수한 존재 그 자체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또 없을까? 우리를 순수한 어린아이로 돌아가게 하는 것 말이다. 모든 인간은 어머니 앞에서 어린아이가 된다. 어머니의 사랑 앞에는 그 어떤 외양이나 속임수도 필요치 않다. 어머니의 사랑에 의해 우리 모두 어린아이가 되듯이 수월관음의 자비 앞에서 우리는 모두 선재동자가 된다. 관음의 자비가 우리를 어린아이로 만든다.

그러므로 선재동자는 존재 자체의 순수성으로 돌아간 우리들 자신의 모습이다. 우리를 선재동자로 만드는 힘은 위압적이고 초월적인 힘이 아니라 어머니처럼, 공기처럼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자비의 힘이다. 그 자비는 약하고 미미한 존재의 것이 아니라 모든 능력을 갖춘 가장 강한 자의 자비이기에, 그것은 우리를 어리광만 피우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가장 순수하고 가장 깊은 내면에서 본 어린아이로 돌아가게 한다.



고려불화 수월관음도〈사진 위〉에는 수월관음 이외에도 이를 예경하고 있는 선재동자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사진 아래〉 어머니처럼, 공기처럼 우리 곁에있는 보살의 자비는 사바세계의 중생들을 선재동자로 만든다.

수월관음은 그렇게 선재동자를 내려다본다. 그는 마치 공기처럼 부드럽고 가볍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선정에 잠기어 모든 현실적인 것들을 벗어나 꿈꾸는 듯 선재동자를 내려다본다. 선재동자를 향하여 몸을 구부리고 있으나 그의 눈동자는 선재동자를 주시하지 않는다. 그저 내면을 바라보면서 선재동자를 향하고 있을 뿐이다.

고려인에게 자비는 공기처럼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 항상 거기 있는 그 무엇이 아니었을까? 관음의 화려한 보관과 섬세한 옷매무새, 포동포동한 손과 발, 부드러운 자태, 편안하고 한가롭게 앉아있는 자세, 모든 것이 자비를 형상화하고 있다. 화려한 보배로 장식한 그것조차 겉치장의 화려함이 아니라 오로지 순수한 아름다움으로서 형상화되어 있다. 보배구슬을 한 관음은 그 아름답고 장엄한 모습으로 선재동자의 가슴을 설레게 하였을 것이다. 관음은 그저 고요히 앉아 있지만, 선재동자는 관음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차 종긋이 발꿈치를 들고 보살을 향해 두 손 모으고 있다.

화엄경 표현한 불화 수월관음도
고려인은 온 우주가 자비라 생각
나를 관음의 자비로 채워내야

하늘과 바다, 바위를 배경으로 한 관음은 화려한 궁전과 나무, 수많은 보살과 부처들로 장엄한 극락세계의 아미타여래보다 더 인간적이고 친밀하며 내면적인 순간을 반영한다. 그것은 어떤 인위적인 대상도 없이 자연 속에서 그저 존재 자체와의 만남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정병과 용, 또는 보주 등 몇 개의 상징물이 있기는 하지만, 관음이 머물고 있는 자연은 어떤 인문적 세계도 벗어난 존재 그 자체의 순수한 현현을 보여준다.

관음보살은 어디에나 있다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나 지장보살과 시왕의 지옥에는 인간적인 의미가 깃들어 있다. 좋음과 싫음, 죄와 벌, 기쁨과 고통 등등. 그래서 그것은 극락이건 지옥이건 세계 내 존재들의 삶과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관음이 자리 잡은 바다로 둘러싸인 보타락가산, 구름과 암벽 사이에 앉아 있는 관음은 그런 인간적인 의미의 세계를 완전히 벗어나 있다. 그는 존재 자체의 본래적인 모습으로서만 존재한다.

그래서 지옥조차도 이곳에서는 한낱 미미한 세계에 지나지 않는다. 지옥세계가 묘사되어 있지만 그 세계는 인간을 위압하거나 고통스럽게 하지 못하고 오직 관음의 자비에 비하여 그것이 얼마나 미미한지 보여줄 뿐이다. 지옥조차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하지 못한다. 관음의 자비가 지옥조차 두렵지 않게 느낄 정도로, 관음은 공기처럼 세계를 감싸고 있다. 사천왕이 두려움을 불러일으켜 악한 자를 물리쳤다면, 수월관음은 두려움 없는 어린아이로 되돌아가게 하는 한없는 자비로 세상을 구원한다.

자비로 감싸진 세계, 고려인들은 이렇게 온 우주가 자비로 가득 차 있다고 믿었던 것일까? 어쩌면 그럴지도 모른다. 몽고의 침입을 부처님의 자비로 해결하겠다고 전란의 와중에 팔만장경을 판각하였던 그들은 어떻게 보면 어리석기 이를 데 없다. 하지만 그들은 정말 행복하지 않았을까? 그 고통과 앞날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 속에서도 오로지 부처님을 믿을 수 있었기에.

과연 나는 얼마만큼 어린아이로 살고 있는가? 관음의 자비가 온 우주에 가득 찼다고 믿고 있는가? 나는 자비를 얼마나 채우고 있는가? 선재동자의 눈에 비친 관세음보살은 산보다 크고 거대하지만, 그는 조용히 우리를 내려다 볼 뿐이다. 우리는 거룩한 그의 자비 속에서 그저 어린아이가 될 뿐이다. 그 순수한 내맡김 속에서 선재동자와 수월관음이 하나가 되고 자력과 타력이 하나가 된다. 이렇게 우리는 보살도의 실천자가 된다.

나를 관음으로 채울 수 있다면, 그대에게 곧 법문이 있을지니 묻지 않아도 물은 것이고 대답하지 않아도 대답을 얻은 셈이다.

보살은 파도 소리와 같이 깊고 미묘한 음성으로 선재동자에게 말한다.

"선남자여, 나는 보살의 자비 해탈문을 성취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이 보살의 자비행문으로 모든 중생들을 평등하게 교화하는 일을 끊임없이 할 것이다. 선남자여, 나는 이 자비행문에 머물며 모든 여래가 계시는 곳에 항상 있으면서 일체 중생들의 앞에 모습을 나타내어 때로 보시로 중생들을 거두기도 하고…. 선남자여, 나는 이 방편으로 모든 중생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였으며 또한 아뇩다라삼먁삼보리의 마음을 내어 영원히 물러나지 않게 하노라."

보타락가산에 계신 관자재보살로부터 선재동자는 넓고도 큰 세계의 모든 중생 앞에 몸을 나타낼 수 있는 대자비법문광명의 행을 배우고, 모든 중생에게 회향하여 일체지에 머무르며,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따르는 회향을 배우게 된다.



명법 스님 (조계종 교수아사리)

佛祖傳法 第75代 道庵堂 聆義 大禪師 門徒會
문도회장 효원능인스님의
대륜불교조계종 제2대 총무원장 취임을 봉축드립니다

道庵禪師의 禪旨

慈 悲
자비로움은 미움과 원망이 존재하지 않음이니 삼독이 멸하고,
삼업이 청정하여 지계(持戒)를 이룸이로다.

離 相
모든 상으로부터 벗어남은 만법의 견해가 고요하게 되었음이니
선정(禪定)을 이룸이로다.

念 足
지금 이 순간 지족함은 더 이상 분별망상이 일어나지 않음이니
지혜(智慧)를 이룸이로다.

오늘날 법에 눈 뜬 장님 많은 것은, 단견에 빠져 중도를 잃음이요.
법 아닌 법으로 귀의처를 삼기 때문이니라.

대중은 들으라
한 숨 잘 마시는 것이 진여요. 한 숨 잘 내놓는 것이 불성이니라.

대륜불교조계종 도암문도회 문도일동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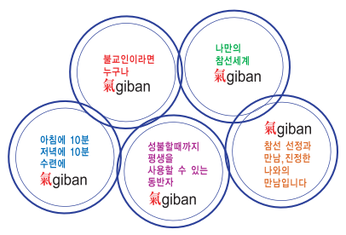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몸과 마음에는 주재하는 ‘나’ 없다”

主宰

수불 스님의
전심법요 선해 ⟨11⟩



범어사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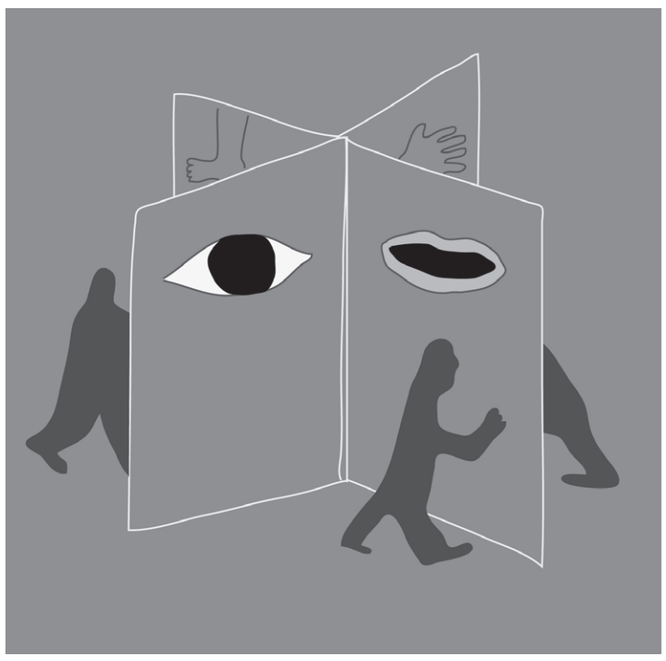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일체를 여읠 줄 아는 사람이 곧 부처

여읠 것도, 취할 것도 없는 것이 마음자리다. 그런데 거기에 업식이 붙어서, 때가 묻었다고 하는 것이다. 때가 묻었다는 것도 착각이다. 본래 때 묻은 적이 없는데, 그림자가 자기도 모르는 순간 만들어지면서 그 속에서 버무려지는 것을 반복하는 윤회의 삶을 짓고 살아온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 번도 윤회를 한 적이 없다. 윤회하는 모습에 속으면 어리석은 중생이 되는 것이고, 본래 열반의 참다운 실상을 바로 눈떠서 윤회한 적이 없음을 알면 아무리 어지러운 속에서도 의연할 수 있는 자세를 구축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도를 배우는 사람은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4대(四大)로 몸을 삼으나, 4대에는 ‘나(我)’가 없고, 그 ‘나’에도 또한 주재(主宰)가 없다.

물질을 구성하는 지수화풍(地水火風)의 사대원소가 임시로 화합한 것을 몸으로 삼으나, 그 안에는 주재하는 ‘나’라고 할 근거가 없다. 하지만 ‘주인공’을 찾으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라도 표현하지 않으면 근본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을 그대로 믿으라고 한다고 해서, 안목을 바꾸지 않고 말만 배워서는 곤란하다. 근원을 꿰뚫고 있는 눈높이를 갖추고 있는 분의 점검을 받지 않은 채, 말만 배워서 쓴다고 한들 소용이 없다. 일체 변화하는 삶 속에서 변하지 않는 근본 실상을 다시는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눈떠야, 나도 속지 않고 남도 속이지 않는 인연을 열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몸에는 ‘나’도 없고, ‘주재’도 없음을 알아야 한다. 또한 5음(五陰)으로 마음을 삼지만, 이 5음 역시 ‘나’도 ‘주재’도 없다.

이 몸뚱이가 내 것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 것이 아니요,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 흔히 ‘오온(五蘊)’이라고도 하는 ‘색수상행식(色受想行識)’의 오음을 마음으로 삼지만, 그것에도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 그렇다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움직이게 하는 실체, 그 근본 모습을 깨닫게 하기 위한 문제를 제기하여 “송장 끌고 다니는 놈이 뭐꼬?(拖死屍句)” 하고 물은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치에만 매달려 쪼개고 들어가면 영원히 쪼개질 뿐이어서, 찾는 데만 세월 다 보내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더 이상 이치에만 매달리지 말고 실제로 눈뜨게 해줄 수 있는 선지식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해설하는 것이 모두 임제스님이 말씀하신 삼구법문(三句法門)이다. 삼구에서 깨치면 스스로도 제도 못한다고 했다. 이치만 가르치고 이치만 배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활구(活句)로 전환해서 “송장 끌고 다니는 놈이 뭐꼬?” 같은 이구(二句)에서 깨달으면, 인천(人天)의 스승은 될 만하다고 했다. 그렇지만 뼈저린 의심 끝에 선지식의 방과 할에 힘입어 온몸으로 계합할 때는, 일구(一句) 도리에서 안목이 열렸다고 할 수 있다. 이것조차도 자취를 끊는 말후구(末後句)까지 이야기했다. “시작도 끝도 없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근본 실상 자리를 입 놀리지 말고 이야기해봐라!”는 물음에 당했을 때, 입을 써도 쓴 바가 없다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할 수 있어야 그 까닭을 소화하고 남한테 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우왕좌왕하다가 뭐가 뭔지도 모르고 헤매는 사이에 끝이 나고 말 것이다.

**몸은 ‘지수화풍’ 임시로 화합
그안에 ‘나’라는 근거 없는데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하나**

**시작도 끝도없는 근본자리
입놀리지 말고 얘기해봐라
입을써도 쓴바 없음을 알면
남한테 그 소식 전할 수 있다**

**‘성문·연각’ 깨달음 혼자즐겨
남을 제도하는데 한계있어
불보살 가까이해 지혜 얻길**

그러므로 마음 또한 ‘나’도 ‘주재’도 없음을 알아야 한다.

여기서의 ‘없다’는 우리가 평소에 인식하는 개념과는 다른 차원의 ‘없다’이다. 같은 청정(淸淨)이라도 일반론적 청정과 종교론적 청정이 다르듯이, ‘없다’하는 말도 표현만 같이 할 뿐이지 그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 사람이라면 ‘조주의 무(無)자’도 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육근·육진·육식이 화합하고 생멸하는 것도 또한 이와 같다. 18계가 이미 공(空)하여 일체가 모두 공하다. 오직 본래의 마음이 있을 뿐이어서 호호탕탕 청정하다.

한 생각 돌이켜보니까, 눈 귀 코 혀 몸 생각의 6근과 색 성 향 미 촉 법의 6진과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의 6식이라는 18가지 인식론적 구성요소가 모두 그림자로 본래 공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분별의 양식(識食)’과 ‘지혜의 양식(智食)’이 있다. 즉 4대로 된 몸은 주림과 질병이 근심거리인데, 알맞게 영양을 공급하여 탐착을 내지 않게 하는 것이 ‘지혜의 양식’이다. 반면에 제멋대로 허망한 분별심을 내어, 입에 맞는 것만 구하면서 싫어하여 버릴 줄을 모르는 것을 ‘분별의 양식’이라 한다. 성문(聲聞)이란 소리를 듣고 깨닫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성문·연각·벽지불은 소승 계열의 수행자로 혼자 수행해서 깨달은 이들이다. 본인 혼자만 깨달음을 즐기는 소승의 입장을 넘어서, 다른 사람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불보살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불보살은 남을 제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만, 성문·연각은 자기 공부는 해도 남을 제도하기는 실로 한계가 있다. 어쩌다 한, 둘을 깨닫게 해줄 수 있을지언정,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내려갈 수 있는 인연은 아니다. 그러나 불보살은 원력을 바탕으로 한 방편이 출중해서, 성문·연각이 베푸는 것과는 천양지차다. 그러므로 스스로 눈뜬 바가 있더라도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근거를 지닐 때까지, 불보살의 법력을 가까이 하면서 지혜로움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을 보낸다면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진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나누려고 하지 않아도 나눌 수 있는 힘이 생기지만, 생각을 불러일으켜 다른 사람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다 업에 불과하다. 이 정도 수준의 나눔은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다. 재산을 보시하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결코 자기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종교에서 말하는 나눔은 이러한 나눔을 초월한 나눔이다. 종교적인 관점에서 남과 이익을 나누려면, 먼저 안목을 바꿔야 한다.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⑥①



꿈같은 생각을 멀리 떠나보내시니 곧바로 열반에 이르셨네

⟨반야심경⟩

언어라는 이름의 병

인간은 하나의 병(病)이다. 인간에게 병이 없다면, 결코 진리니 종교니 도(道)니 하는 말도 없을 것이다. 옛스님들께서 말씀하신 “바람이 없는데 파도가 인다”는 말 역시 그런 뜻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도대체 인간은 무슨 병을 앓고 있는 것일까? 그 병명은? “말을 하는 병”이다. 언어가 없다면, 인간이 말을 하지 않는 존재라고 한다면 번뇌는 그렇게 치열하지 않을 것이다. 번뇌는 말길(語路)을 타고서 달려간다. 흩어져 간다. 날아간다.

여기서 ‘말’은 물론 음성언어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소리를 내지 않더라도, 말할 수 있다. 그것이 생각이다. 생각을 의업(意業)이라 하는데, 그렇게 본다면 의업 역시 사실은 구업(口業)에 지나지 않는다.

하루 24시간 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을까? 뇌에다가 어떤 장치를 해서, 우리가 순간순간 하고 있는 생각들을 다 언어로 기록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때는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갈래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혹은 순간순간 하고 있는 생각들을 실시간으로 하나도 놓치지 않고서, 사진으로 찍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하루의 생각을 찍은 사진들을 쭉 훑어보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 것인가?

아르헨티나의 작가 보르헤스(H.L. Borges)는 그의 소설 ⟨기억의 천재, 푸네스⟩에서 그런 주인공을 형상화했다. 주인공 푸네스는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지, 어제 있었던 일을 다 기억해 내는 데 꼬박 24시간이 걸렸다 한다. 어제를 복원하는데 24시간이 다 소요된다는 것은, 어제 했던 행위만이 아니라 생각까지를 다 복원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물론 하루 종일 좋은 생각만 한다면 더 없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다. 그렇지 못한 것이 중생이다. 왜냐하면 옛날에 하던 생각의 틀이 있고, 늘 지나다니던 생각의 길이 있기 때문이다. 영화 ‘달마야 놀자’에는, 처음에 절로 숨어든 조직폭력배들이 절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몸살을 앓는 장면이 나온다. 왜 그랬을까? 그들의 생각이 늘 다니던 길, 늘 익혀왔던 장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악인은 악한 일을 늘 생각하기 마련이고, 선인은 선한 일을 늘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업(業)이 중요하고 무서운 것이다. 몽상, 꿈같은 생각은 문학예술에서는 상상력의 원천으로 칭찬받는다. 그러나 실제로 한 생각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그래서 생각이 무서운 것이다. 그 생각에 지배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그 생각을 지배할 것인가? 부처와 중생의 갈림길이다.

한 생각 일어나기 전

모든 것은 생각의 아들이다. 한 생각은 모든 것의 어머니다. 그러므로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 즉 그 어머니가 우리를 낳기 전이야말로 참된 평화가 있는 유토피아다. 진정한 행복의 낙원이다. 선(禪)에서 하는 말로, “부모가 나를 낳기 전의 소식”이라 하는 것도 그런 이야기일 터이다.

부모가 나를 낳기 전의 소식, 바로 그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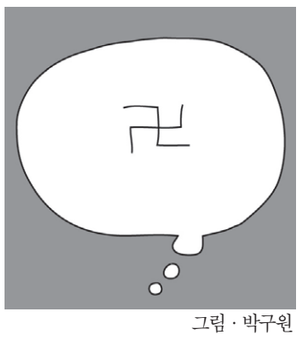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머리멀리 보내야 한다. 이를 ⟨반야심경⟩에서는 “보살은 꿈같은 생각을 멀리 떠나보내시니 곧바로 열반에 이르셨네.”라고 말씀하셨다. 한역으로 ‘구경열반(究竟涅槃)’이다. 구경은 궁극적인 경지, 완전한 경지를 뜻한다. 범어로는 nistha-nirvāna인데, 소유복합어이다. 즉 궁극적인 경지를 내포하고 있는 열반이라는 말이다.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리전도몽상’과 ‘구경열반’이 같은 말이라는 점이다. 꿈같은 생각을 멀리 떠나보내고 난 뒤에 궁극적인 열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꿈같은 생각을 멀리 떠나보내는 것 자체가 곧 궁극적인 열반이다. 이 사이에는 시간적인 점차(漸次)가 없다. 곧 동시적이다. 선에서 말하는 돈오(頓悟)를 여기서 볼 수 있다.

결국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해졌다. 우리의 평화로운 삶을 염원하는 사람이라면, 이 생각관리가 필요하다. 그 꿈같은 생각들과 ‘굿바이’해야 한다. “안녕, 나의 생각이여, 나의 번뇌여!”, 이렇게 말하자. 이것이 불교다.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용문선원(龍門禪院) 기공수련 안내

本 院은 中國 道家 全眞道 용문파 韓國本院입니다.
본 원은 정통 기공 수련을 통하여 신체와 정신계발을 함께 도모하는 수련을 하는 도량입니다.
수련의 기초과정은 신체의 수련과정으로서, 우리 신체의 가장 중요한 임맥과 독맥을 타통시키는 小周天 수련입니다. 이와 같은 기초 수련을 통하여 임, 독 二脈을 타통시킨 후 좌선을 한다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즉, 호흡과 氣를 장악함으로써 좌선시 흔히 발생하기 쉬운 상기병을 예방할 수 있음은 물론 수련을 통하여 얻어지는 내면의 고요함 속에서 한층 더 심도있는 참선수행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본원은 오랜 기간의 수련과 준비과정을 거친 후, 이제부터는 외부로 문호를 개방하여 본 수련에 관심있는 분들과 참선수행 과정에서 상기병 등 각종 장애를 겪고 계신 인연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연있는 분들께서는 본 수련을 통하여 많은 것을 얻으시길 기도하며,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사전에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 화 : 010-3328-3974(유재용)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1355-3 용문선원

용문선원장 유재용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30,800원

·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시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추사의 중국 외연 대둔사에 영향



〈주상운타첩〉 추사친필본

추사, 초의에게 중국 주향 등 보내
격의 없었던 두 사람의 통유

중국 인사들과 교류하는 데 있어 대둔사는 추사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였다.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중 상당수가 중국 인사들과 교류하는 데 있어 대둔사의 역할을 언급하고 있다.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중 중국 인사들과 교류하는 데 있어 대둔사의 역할을 언급하고 있다.

중국 인사들과 교류하는 데 있어 대둔사의 역할을 언급하고 있다.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중 중국 인사들과 교류하는 데 있어 대둔사의 역할을 언급하고 있다.

추사가 연경에서 옹방강을 만나 학연을 맺은 후, 그의 학문적 개안은 일취월장되었고, 완원이나 조강, 주학년, 이정원, 옹방강의 아들 옹수곤 등으로 교유가 확대된다.

이러한 추사의 외연의 확대는 그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초의와 대둔사 승려들까지 영향을 미쳤는데, 주학년이나 옹수곤 등 청대의 학자들이 초의와 대둔사 승려들과의 교유를 맺게 된 계기는 추사를 통해서이다.

특히 고증학에 밝았던 옹수곤은 대둔사의 역사적 사료, 즉 비문과 서적 등에 관심을 보여, 이러한 사료를 아양의 문도인 수룡과 기어를 통해 얻은 후, 감사하는 글을 보내기도 하였는데, 이는 대둔사 승려들의 청대 문인들과의 교유 사례를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대략 1834년이나 1838년경에 쓴 것으로 짐작되는 추사의 편지는 청대 문인들의 문적이 그를 통해 초의에게 전해진 사례를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 내용은 이렇다.

〈여초의〉 12신과 〈주상운타첩〉에도 수록된 이 편지는 초의가 학림암에 있을 때 쓴 것이라 여겨진다. "백파노스님이 아직 학림암에 계신가?"라고 한 추사의 연구는 이 편지가 (완당전집) 〈여초의〉 11신과 비슷한 시기에 보낸 것임을 나타낸다.

추사가 거듭하여 백파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한 점이 눈에 띄는데, 이는 당시 초의가 학림암에서 백파에게 선리의 입각처를 훈습 받고 있었음을 드러낸 셈. 이러한 정황을 달가워하지 않았던 추사는 거듭하여 초의에게 행장을 꾸려 귀사(歸寺)할 것을 재촉한다. 추사의 주장은 초의의 선이 부처님에게서 연원된 것이고, 대둔사에서 근원된 것이 아니냐는 것. 그가 학림암에 있던 초의를 만나지 못한 정황은 자세하지 않았다.

다만 병중에 매달려 있는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라는 내용으로 보아 그가 병중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중국인에게 얻은 예서 한 폭과 향을 예폼으로 초의에게 보낸다. 이는 청대 문인의 진적이 추사를 통해 초의에게 전해진 정황을 드러낸 셈이다.

초의의 소장 유물 중에 옹방강이 사경한 〈원각경〉이 유전된 것도 추사를 통해 그에게 전해진 것은 아닐까. 아울러 주향(注香) 한 봉을 정중한 예물로 보낸다는 것이 눈에 띈다. 주향은 태우는 향. 청에 유행되었던 전단향을 구해 초의에게 보낸 것인지, 아니면 귀한 침향을 정공으로 보낸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평소 그가 염주를 몸에 지니고 다녔으며, 친불교 유학자로, 불교 이론에 밝았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향을 피워 주변을 정화하고, 차를 통해 몸과 마음을 순화했던 삶의 궤적은 흔한 일이다. 특히 추사는 유마거사를 좋아했으며, 무변(無邊)의 통제한 삶을 살았던 소동파를 흠모했다는 점에서 그의 성향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추사가 초의에게 주향을 정공으로 받친 것은 자연스러운 일로, 이들의 통유(通遊)는 격의가 없었다.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삼환양초는 향료를 사용하지 않고
100%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고객만족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新개념 크리스탈 받침 P.C컵 밀납초
一人一燭 연꽃밀납양초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 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 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삼환하계 생산물 화재 배상 책임보험 1억원 가입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 밀납양초 교체형



아광 호원이 양초 연꽃 원기둥 7.0ℓ × 34cm / 아광 용 양초 연꽃 원기둥 7.0ℓ × 34cm / 육각초 7.0ℓ × 34



밀납연화 소 7ℓ × 6.5cm



와라바 / 후라지아 / 영원향 장단(소바라) / 향수원



연화 大 9.5ℓ × 11cm, 연화 中 9ℓ × 10cm, 연화 小 7ℓ × 6.5cm



백목향,목향 / 우리향,백단향,설중매,인삼향,대발향,쑥향



• 도자기 인등 • 인등용 파라핀 오일 : 국내산 원액 / 제조 - 삼환양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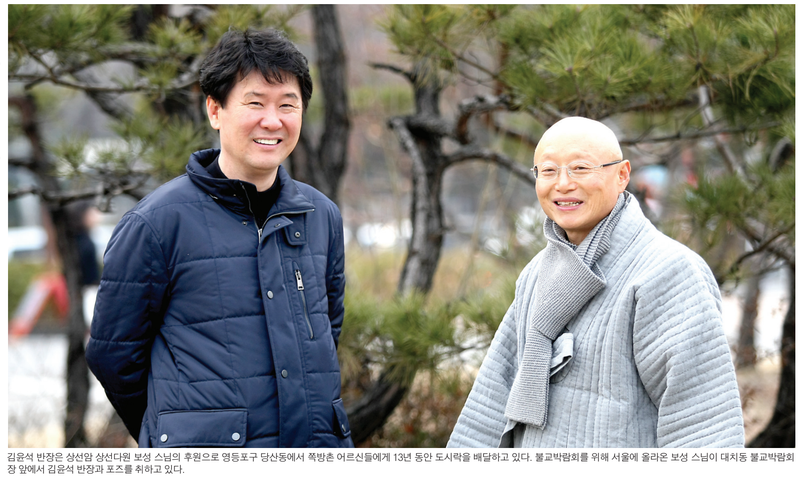
New 꽃과 나비 원키홍나비



3×6연꽃나비A / 3×6연꽃나비B / 노랑 연두 백색 핑크 환타 주황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전화 031)766-0242~3
팩스 031)766-0233
소비자무료전화 080-0766-8888

스님과 형사 쪽방촌 봉사 파트너 13년



김윤석 반장은 상선암 상선다원 보성 스님의 후원으로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쪽방촌 어르신들에게 13년 동안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다. 불교박람회를 위해 서울에 올라온 보성 스님이 대치동 불교박람회장 앞에서 김윤석 반장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보성 스님(하동 상선암 주지)
김윤석 반장(강서경찰서 강력팀장)

얼마전 지상파 텔레비전 한 다큐 프로그램에서는 쪽방촌 사람들을 돕는 형사 이야기가 눈길을 끌었다. 봉사단을 꾸려 13년 동안 영등포구 당산동 쪽방촌을 지키며 그들과 함께 하는 형사 반장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경남 하동에서 수제차를 만들어 후원해주는 한 스님이 있었다. 형사와 스님이 만나 20년 넘게 함께 보시행을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다.

불교박람회가 시작되기 하루전인 지난 3월 6일 강남구 대치동에서 서울강서경찰서 형사과 팀장 김윤석 반장(50)과 경남 하동 상선암 상선다원 주지 보성 스님이 만났다. 스님이 상선다원에서 직접 제다한 지리산 수제차를 선보이기 위해 불교박람회를 찾았고 이런 스님을 만나기 위해 김 반장이 스님을 뵈러 온 것이다.

둘의 첫만남은 신도와 스님의 관계가 아닌 봉사자와 후원자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김 반장은 당시를 이렇게 얘기한다. "2004년 전 소년원 쪽 업무를 담당할 때 상동 소년촌에 아이들을 만나러 다닌 적이 있어요. 당시는 봉사라기보다는 먹을 거 사가지고 가서 아이들과 놀아주는 정도였죠. 이게 신문에 나간 적이 있는데 스님께서 이 기사를 보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거예요"

이후 스님은 쪽방촌 어르신들 환경이 열악하니 도와주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했다. 김 반장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물론 보성 스님이라는 든든한 후원자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김 반장은 그때부터 영등포구 당산동 옛 파출소 건물 옥상을 임대해 천막치고 인근 쪽방촌 노인들에게 매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도시락 배달 봉사를 해오고 있다.

그리고 스님은 지리산에서 직접 차농사를 지어 김치 쌀 동지 팥죽 떡국떡 부식 등을 꾸준히 후원해 주었다. 특히 녹찻가루 매실액 등 최상의 재료로 만드는 스님의 김치맛은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최고의 김치라고 한다. 보성 스님이 한 해 보내주는 김장은 4톤. 이는 4-5천 포기에 해당하는 양이라고 한다. 이렇게 많은 양의 김장을 하기 위해서 스님은 8월부터 준비를 한다.

일단 해남 배추와, 영월의 신도에게 무농약 고추를 미리 주문해 놓고 마늘, 생강, 고춧가루, 젓갈, 매실원액, 녹찻가루도 준비한다. 이렇게 한겨울이 오기전 상선암에서는 1000여명의 신도들이 3~4일에 걸쳐 김장을 해 쪽방촌 사람들에게 김치를 보낸다.

이는 스님이 1년 내내 차를 따서 덖어 만든 수제차를 만들어 판 수익금으로 이루어지는 보시다. 천가지 생각보다 한가지 행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스님은 너무 고되게 노동하다보니 일년에 하나씩 손톱이 빠져 손가락에 반창고를 부치고 다닌다고 한다. "연비를 하는 스님도 있으니 그 정도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손톱은 또 자라거든요. 내가 바뀌면 신도들이 바뀌고 신도들이 바뀌면 그 주변 사람들이 바뀌고 그러면 나라가 바뀐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만드는 일이 나에게는 더없이 행복한 일입니다"고 스님은 환한 미소를 짓는다.

김 반장 역시 이렇게 든든한 후원자가 있어서 15년 쪽방촌 봉사가 가능했다고 말한다. "스님의 적극적 후원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스님께서 최고의 재료로 늘 맛있는 음식을 후원해주시니 어르신들도 행복해하세요"

쪽방촌 봉사단 멤버 중에는 한 때 범인으로 만났던 관계의 봉사자들도 있다. 출소후 김 반장의 도움을 얻어 새로운 삶을 살며 도우미로 활동하는 것이다. 김 반장은 한때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그 누구보다 따뜻하고 정 많은 사람이 바로 그들이라고 말한다.

"모일간지에서는 도둑과 형사라는 제목으로 저희 쪽방촌 기사가 나가 정말 그 친구한테 미안한 일도 있었어요. 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밑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것이 저의 임입니다. 열마전에는 큰 오해를 산 경우도 있죠. 최근에 쪽방촌 봉사자 사기사건 때문에 세상이 떠들썩했던 적이 있었는데 저희와는 무관한 일인데 저희쪽 사람이 아니냐는 오해였죠. 그럴 때는 속상하기도 하지만 이

김반장 쪽방촌 어르신 도시락 봉사
보성 스님 차농사 지어 후원금 지원

김 반장 "스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스님 "꾸준히 봉사하는 사람 드물죠"
전국적으로 쪽방촌 공동체 조직이 목표

제는 세상의 말에 일희일비 하지 않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스님은 김반장의 이런 뚬보가 방생과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세상은 한번 실수했다고 해서 영원히 그 사람이 실수의 전부인 것처럼 치부해버리잖아요. 하지만 그들에게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김 반장이 하는 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고기만 방생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누군가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을 밝은 길로 인도하는 것도 인간 방생이죠"

스님은 이 도우미들을 상선암으로 내려오게 해 함께 운력을 시키기도 한다. 스님은 이런 일들이 어떤 법문보다 효과가 있다고 전한다. "백 마디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귀로 듣는 것보다는 이렇게 봉사하면서 그들도 누군가를 도우며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느끼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결국 세상에 주인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봉사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스스로 밝아지고 그러다보면 세상도 조금씩 나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간 쪽방촌 도우미를 하며 어려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처음 도시락을 받는 노인들은 14명이었지만 소문이 나면서 70명에 이르게 되었는데 보성 스님을 비롯한 삼동 소년촌에서부터 도와주던 몇몇 후원자가 전부였기에 식재료를 감당할 수 없었다. 고민 끝에 인근 문래동 시장에 시래기를 주워와 국을 끓여 나눠주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이런 경제난보다 더 그들을 힘들게 한 것은 이웃들의 시선이었다고 김반장은 말한다.

"예전 파출소로 쓰던 건물 옥상을 빌려 주방겸 사무실로 쓰다보니 인근 주민들이 아파트값 떨어진다고 민원을 제기했어요. 결국은 돈을 모아 가건물을 세워서 지금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죠. 이런 고비를 넘기고 나니 지금은 어떤 일이 닥쳐도 끄덕없을 만큼 단단해졌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이겨내고 나니 세상이 봉사단을 알아봐주기 시작했다. 때거리가 없어 어떡하나고 걱정하며 내일은 밥을 못 드릴 거 같다고 자포자기했는데 배식 당일날인 목요일이 되면 누군가가 부식을 두고 가고 쌀을 두고 가고 또 라면을 두고 갔다. "특별히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보다는 어르신들께 밥 한 끼 따뜻하게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내니 저절로 모든 상황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오늘도 스님에게 매실을 보내달라고 보채는(?) 김 반장에게 "이 사람은 나만 보면 뭐를 자꾸 달라고 해" 하면서 보성 스님은 특유의 맑은 미소를 짓는다. 스님은 김 반장이 "보석 같이 예쁘고 또한 같이 친근하다"고 말한다. 이렇게 스님과 김 반장은 20년 인연을 이어오면서 보시행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스님은 꾸준히 봉사하는 김반장이 착하고 고마운 사람이라고 칭찬한다.

"다들 자기 일 바빠서 어려운 이웃 돌보는 일을 외면하잖아요. 그런데 김 반장은 일반 사람보다 훨씬 더 바쁘죠. 범인 잡는 일 하는 게 어디 쉽나요? 항상 비상대기 상태에 있는 사람인데 봉사를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물론 어쩌다가 한 두번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꾸준히 오랫동안 봉사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성격 털털하고 착한 사람이죠. 20년 가까이 봉사하고 있는 김 반장을 보면서 고마움을 느껴요. "

김 반장은 스님이 없었다면 쪽방촌 봉사는 엄두도 못냈다고 손사래를 친다. "스님께서는 공양주도 없이 혼자 사시면서 차농사 지어 인간불사 하시는 겁니다. 다른 절처럼 기도비로 절을 운영하지 않고 스님 스스로 노동해서 절을 운영하는 자급자족을 원칙으로 수행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차농사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후원금으로 지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쪽방촌 봉사도 처음부터 스님 믿고 시작한 것이니 스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스님께서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니 지금까지 쪽방촌 봉사단을 꾸려올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담처럼 이렇게 말한다. 로또에 당첨되면 또 혹은 재벌만큼만 돈을 벌면 이웃을 돕겠다고. 하지만 보성 스님은 지금 여기서 남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으라고 말한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육심자루가 있습니다. 이 자루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죠. 이 육심이 열마나 허많한지를 알고 육심자루를 잘만 관리 하면 누구나 보시와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이웃을 위해 보시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수행자의 자세라고 강조한다. "99개를 가지고 있어도 100개를 채우기 위해 하나를 가지고 아웅다웅하는 게 인간 아닙니까? 하지만 내가 한 개를 가지고 있으면 3분의 1을 떼어 줄 수 있는 게 진짜 보시에요. 몇 개가 생긴 다음에 하나 주겠다고 하면 이미 늦어요. 수행자는 하루 한 끼 공양할 거리만 있어도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마음을 내면 동시에 여유가 생깁니다"

오랜 시간 두 사람과 얘기하며 내린 결론은 스님과 김 반장 두 사람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그다지 특별하다고 생각지 않는 것이었다. 그들에게 봉사는 당연한 일이었다. (금강경)에서 말하는 '무주상보시'를 바로 일상에서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서울은 물론 부산 대전 대구 등에서 전국적으로 쪽방촌 어르신들을 위한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는 김윤석 반장. 그 뒤에는 늘 지리산에서 차를 덖으며 그를 든든히 후원하는 상선암 상선다원 보성 스님이 있었다.

"스님 차가 잘 팔려야 우리 쪽방촌도 잘 되는데. 스님 차는 맛과 향이 정말 최고거든요. 감기 몸살에도 좋고"라며 농담처럼 말을 던지는 김 반장의 말에 스님은 "이 사람은 나만 보면 뭘 자꾸 달라고 그래"라고 하며 또다시 환한 미소를 짓는다.

글=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보성 스님은 … 일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30여년 동안 차 제다와 수행을 병행해 왔다. 현재 경남 하동 상선암 상선다원에서 차를 재배하고 작설 수제 녹차를 제다하고 있다. 스님은 특별한 제다 비법으로 냉하지 않고 감기에 좋은 차를 보급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김윤석 반장은 … 1963년 경주 출생으로 90년 마포경찰서에서 경찰 생활을 시작했다. 99년 강절도 검거 전국 1위로 경사 특진, 2005년 문화재 절도단 검거로 서울지방경찰청 경사 경위 특진을 했다. 특히 문화재전담반을 구성해 문화재 수사에 매진했던 김 반장은 2006년 창녕 관룡사 영산회상도, 해남 대흥사 서천왕상과 신중도, 예천 한천사 지장시왕도, 나주 불회사 범종 등 성보 7점과 500여점의 문화재를 압수 공개한 공로를 인정받아 조계종에서 표창장을 받은 바 있다. 2000년부터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쪽방촌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김윤석 반장(사진 오른쪽서 세번째)이 당산동에 위치한 급식소에서 어르신들에게 대접할 음식을 만들고 있다.



지리산 상선다원에서 차를 재배하고 있는 보성 스님은 차 수익금으로 김윤석 반장의 쪽방촌 봉사단을 후원하고 있다. 사진은 상선다원 차밭에서 운력 후 새참을 먹고 있는 보성 스님(왼쪽)과 김윤석 반장

전법일기

어머니의 기도

어느 날의 일기 ①

호스피스.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목숨을 연장하기 위해 행하는 의료행위 대신 평안한 임종을 맞도록 위안과 안락을 최대한 베푸는 봉사활동'이라고 정의한다.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행하는 갖가지 봉사활동을 말하는데 나는 약 6개월 정도 대구 영남대병원에서 활동하다가 성대결절이 생기면서 그걸 치료하는 동안 당분간 쉬게 되었다. 그동안의 일을 일기로 썼다. 그 중 일부를 싣는다.



그림 · 박주원

8월 7일

863호실. 58세인 백영자 불자님은 내가 다가가자 나를 바라보며 합장했다. 위암, 폐이 많이 수혜한 상태인데 수시로 토하고 있었다. 갈색 물질을 한동안 토해내고 나면 생수로 입을 행구기를 반복했다. 말기 힘든 냄새가 진동했다. 토하기가 끝나자 내가 말했다.

"보살님, 점에 자주 다니셨어요?"

"자주는 못가고 형편 따라 갔어요."

"무슨 기도를 하셨어요?"

"관세음보살 했습니다."

"저랑 관세음보살 기도할까요?"

"기도해 주시면 저야 고맙지마는 스님이 안 귀찮습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불현듯 우리 엄마가 생각났다. 마흔 여덟, 한창 나이에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신 분. 우리 엄마도 말기에 이랬었지. 음식을 드시면 다 토해 버리시니 결국 꼬챙이처럼 말라서 떠나셨다.

백영자 보살님 모습에서 엄마의 마지막 모습을 보니 눈물이 스멀스멀 배여 나왔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님, 이 분을 얼른 데려가소서. 고통없이 편히 데려가소서. 발을 주무르며 관세음보살님을 불렀다.

"이제 됐습니다. 스님 팔 아프지 않습니까."

백영자 보살님은 왼쪽 발 땃사지가 끝나자 그만하라고 했다.

"팔 안 아픕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왼쪽 발만 하고 말면 오른쪽 발이 서운해 하지 않습니까."

오른쪽 발을 주무르면서 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관세음보살께 빌었다.

8월 11일

863호실. 백영자 불자 옆에 젊은 처녀가 짐을 싸고 있었다. 백영자 보살님은 나를 보더니 그 처녀에게 말했다.

"스님한테 인사해라."

팔이 머리를 숙이는 사이 보살님이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얘가 우리 막내입니다. 서울에서 직장생활 하는데 일부러 왔네요. 바쁜데 오지 말라 해도 왔습니다."

팔이 짐을 들고 일어나면서 말했다.

"엄마, 내가 며칠 있다가 올게."

팔이 엄마 손을 잡고 말했다.

"오지 않아도 된다. 나는 괜찮아. 얼른 가거라."

엄마는 얼른 가라고 하면서도 딸 얼굴을 바라보며 손을 놓지 않고 한동안 잡고 있었다. 마지막 모습을 뼈에 깊이 새기기라도 하는 듯이. 엄마가 잡고 있던 손을 놓자 팔이 병실 입구로 가더니 엄마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엄마도 힘없이 손을 흔들었다. 순간 엄마 눈에 물기가 맺혔다. 딸은 병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멈칫거리더니 침대로 도로 달려와 엄마를 와락 끌어안으며 기어이 통곡했다. 엄마 눈에서도 유리구슬 같은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다.

"엄마, 엄마!"

엄마와 딸은 부둥켜안고 울었다. 한바탕 울음바다를 만들더니 엄마가 갑싼 팔을 풀며 말했다.

"가거라. 괜찮다. 나는 괜찮다."

굵은 눈물을 줄줄 흘리며 딸은 엄마를 바라보고 있더니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팔이 떠난 후 나가 관음경을 읽고 관음정근을 하는 동안 엄마는 내내 눈을 감은 채 손바닥을 싹싹 비비며 빌고 있었다. 부디 그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한북 스님((재)선학원 대구 보성선원 주지)

찬덕불교 아름다운 등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오색꽁단등 / 팔각용전등 / 추 름 등 / 원통고리전등
칼라보카시연등 / 영 가 등
공 단 등 / 극락왕생등 / 극락왕생등

※ 사찰명 인쇄시 제작기간이 소요되오니 예약 주문 바랍니다 ※

전선(케이블) 연동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홍은사



윤장대 인등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용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신상품 찬덕 LED 전구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종류	일반전구	찬덕 LED 전구
소비전력	10W	2W
효율	10 lm/w	50 lm/w
연간전기료	2146원	429원
수명보장		30,000 시간



(대) (소) (인등용 LED전구)

1년 365일 ,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찬덕불교 www.chanduk.com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 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031)794-6288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美·英 명소, 명상센터·사찰로 거듭나

미국과 영국에서 지역 불교계의 노력으로 해당 지역의 명소가 불교의 거점으로 변모하고 있어 주목된다.

'DNAinfo.com Chicago'와 'RUNCORN&WINES Weekly News'에 따르면 시카고에서는 2011년 6월 막을 내린 오프라 윈프리 쇼(Oprah Winfrey Show)와 함께 대중에게 주목을 받았던 '오프라 스토어(Oprah Store)'가 올 여름 명상센터로 거듭나고, 체셔(Cheshire)주 런콘(Runcorn)시에서는 BBC 인기 시트콤 무대로 널리 알려진 '런콘 펍(Pub)'이 오는 4월 태국불교계 사원으로 변모한다.

미국의 디앤에이인포 시카고(DNAinfo.com Chicago)는 14일 "샴발라(Shambhala) 명상센터가 미국 대중문화의 아이콘 오프라 윈프리(Oprah Winfrey)의 직영이던 오프라 스토어를 인수, 오는 여름까지 명상센터를 개원한다"고 전했다.

샴발라 명상센터를 이끌고 있는 지나 카로소(Gina Caruso · 센터장)는 "오프라 스토어 매장 전면에 50~60명이 함께 명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샴발라 명상센터는 이곳에서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지역사회 서비스를 펼치면서 요가에서부터 꽃꽂이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샴발라 명상센터는 1995년 시카고 북쪽에 위치한 로저스 파크(Rogers Park) 지역에서 설립된 불교공동체 Buddhist-inspired organization의 부설 기관으로, 지금까지 명상 수업과 지역사회 오픈 강좌를 열어왔다.


벽안의 미국인들이 샴발라(Shambhala) 명상센터에서 명상 교육을 받고 있다.

美 시카고 '오프라 스토어', 샴발라 명상센터로 英 '런콘 펍', 프라 싱 사원으로

"이런 공간을 찾은 게 행운"이라는 토마스 골츠(Thomas Golz · 샴발라 명상센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는 "빠른 시일 내에 이곳에 입주해 지역 주민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 그 모든 것을 보여주고 공유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센터 방문자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하포 스튜디오 측과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오프라 스토어는 2008년 1월 시카고 도심에 '윈프리가 좋아하는 모든 것'이란 콘셉트로, 오프라 윈프리 쇼(The Oprah Winfrey Show) 녹화 장소였던 하포 스튜디오(Harpo Studios) 건너편에 문을 연 브랜드숍이다.

윈프리의 팬들은 이곳에서 윈프리가 방송 중 입었던 옷이나 추천 도서와 음반, 그리고 '오프라' 라벨이 붙은 다양한 기념품을 구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1년 6월 오프라 윈프리 쇼가 막을 내린 후 오프라 스토어도 문을 닫았다. 현재 이곳은 비어 있는 상태다.

한편 영국의 런콘 윈즈 위클리 뉴스(RUNCORN & WINES Weekly News)는 14일 "BBC 방영 인기 시트콤의 배경이었던 런콘 펍(Runcorn Pub)이 오는 4월 태국 신년축제인 쏭크란(Songkran)을 맞아 프라 싱 사원(Wat Phra Singh UK)으로 개원된다"고 밝혔다.

또한 프라 싱 사원(Wat Phra Singh UK) 개원 준비위원회 대변인 토니 콜라코트(Tony Collacott)의 말을 인용, "현재 런콘 펍은 사원으로 개축된 상태"라며 "지난달 말 영국 국경청의 비자 승인을 받은 5명의 태국 스님들이 2년간 프랑 싱 사원에 주석하며 지역 불교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프라 싱 사원 개원 준비위원회는 지역 불자 16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개원 기념 자선 바지회를 개최하고, 지역 불교계의 숙원 사업인 사원 개원을 축하했다.

런콘 펍은 BBC 최장 방영 시트콤인 'Two Pints Of Lager And A Packet Of Crisps'의 주요 무대로 대중의 시선을 잡아왔다. 2001년 2월 26일부터 2011년 5월 24일까지 방영된 이 시트콤은 영국의 대표 드라마 작가인 수잔 닉슨(Susan Nickson) 작품이다. **오종욱 편집위원**

日에 '승려 바' 생겨…여성들에 인기

꽃미남스님 망라한 〈미스님도감〉 1만부 팔려





칵테일을 만들고 있는 스님(좌)과 〈미스님도감〉표지(우).

일본 도쿄의 한 카페에 주인과 종업원 모두가 스님인 곳이 있어 눈길을 끈다. 바로 '승려 바(bar)'다.

도쿄 신주쿠에 위치한 이 승려 바는 5명의 종업원이 모두 스님으로 구성됐다. 실내에는 불단을 설치해 매일 예불을 올리면서 입소문이 났다. 특히 퇴근하는 여직원들이 주요고객이다.

스님들은 음식을 직접 조리하고 칵테일도 만든다. 또한 카페 안에서 불경도 읽고 손님들을 상담해주기도 한다.

계를 지켜야 하는 스님이 술을 판다는 것이 와 닿지 않지만, 이런 카페가 뜨고 있는 데는 속내를 잘 털어놓지 않는 일본인들의 특성도 한몫 한다.

후지오카 스님은 "일본인은 술을 마셔야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이야기 한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일본의 독특한 포교 방식은 책과 잡지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2012년 2월에 발간된 〈미스님도감(美坊主圖鑑)〉이다. '일본의 아름다운 스님 애호회'라는 단체에서 펴낸 이 책은 일본 전국 사찰의 20~40대 승려 40명의 프로필을 화보와 함께 소개하고 있다. 스님들은 빼어난 외모의 꽃미남계 외에도, 따뜻한 인상의 훈남 스님, 부드러운 이미지의 크리미계 스님 등 특징별로 분류돼 있다. 이 책은 출간 즉시 초판 1만부가 팔려 나갈 정도로 인기다.

책은 정토진종과 진언종, 일련종 등 일본 불교 각 종파의 스님들을 망라했다. 연극배우, 항공자위대, 복서 출신 등 스님들의 전직도 다양하다. 책에 등장하는 고야산 진언종의 한 스님(29세)은 취미가 헤비메틸을 듣는 것이며 승려가 되기 전에는 핑크색 장발머리를 하고 있었다고 고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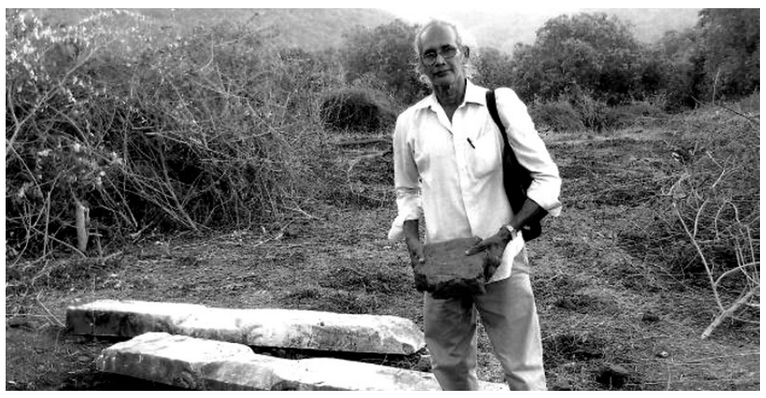
이처럼 불교가 일본의 젊은 여성들에게 주목 받는 것은 자연재해와 경기 침체 등 여성 특유의 시대 불안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불교와 승려 전체가 관심의 대상이기보다는 젊고 잘생긴 청년 승려에 한해서다.

일본의 승려들은 대부분 결혼이 가능하고 경제적 안정이 보장된다는 이유로 여성들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다. 일부 사찰에서는 미혼 스님들이 참가하는 '좌선미팅'을 열 정도다.

이밖에 잡지 중 상당수는 불교 특집을 연재하고 있으며 격월간 '프리스타일 승려들'이란 잡지까지 나왔다. 전국의 청춘 승려를 소개하며 자유로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일본 불교교단도 이 같은 상황을 반긴다고 전해진다. 중생들에게 안심 · 위로 · 희망을 주는 것이 종교 본래의 기능이면서 불교도 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주간동양경제'는 "잘생기고 친절한 승려들이 일과 연애, 인생에서 고민하며 헤매는 여성들을 치유하고 응원해 준다"고 분석한다. **이나은 기자**


크리슈나(Krishna) 지구의 고대 불교유적을 처음 발견한 카디야라 벤카데스와라 라오(Kadiyala Venkateswara Rao)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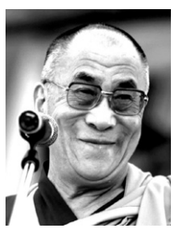
印, 샤타바하나 왕조 불교유적 발견

인도 크리슈나(Krishna) 지구에서 대규모 고대 불교유적이 발견됐다.

인도의 더 힌두(THE HINDU)는 14일 고고학자 카디야라 벤카데스와라 라오 박사의 말을 인용, "크리슈나 인근 폰두굴라(Pondugula) 마을에서 샤타바하나(Satavahana) 왕조와 그 뒤를 이은 이크슈바쿠(Ikshvaku) 왕조에 속하는 고대 불교유적이 발견된다"고 보도했다.

속속 발굴되고 있는 대리석 조각의 규모를 볼 때, 이 곳에 거대한 탑과 승원이 세워졌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제한 라오 박사는 "물(水) 저장고로 보이는 유적의 발굴이 본격화되면 승원의 규모와 당시 대중의 수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달라이라마, 프란치스코 교황에 축하


달라이 라마


프란치스코 교황

티베트의 정신적인 지도자 달라이 라마(77)는 3월 14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호르헤 마리오 베르고글리오 추기경이 새로 교황으로 선출된데 축하를 보내고 프란치스코 성인의 이름을 즉위명으로 선택한 것을 칭송했다.

달라이 라마는 성명을 통해 프란치스코 교황에 "성하의 즉위에 축하 인사와 환희를 보낸다"며 "성하가 성 프란치스코를 즉위명으로 택했다는 사실을 알고 감동했다"며 프란치스코 교황의 전임자인 부에노스아이레스 대주교들과 과거 만났던 추억을 떠올리기도 했다. **이나은 기자**

티베트 봉기 54주년 맞아 세계 곳곳서 시위

3월 10일 '티베트 봉기' 54주년을 맞아 아시아 곳곳에서 중국 강압 통치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미국의 소리(VOA)는 "네팔 카트만두에서 반중국 시위를 벌이려던 티베트인 18명이 경찰에 억류됐다"며 "중국 쓰촨성 티베트 자치주에서도 시위가 벌어져 5명 티베트인이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이밖에 인도 뉴델리와 대만 타이베이에서도 티베트인 시위대가 거리를 행진하면서 완전한 자치와 달라이 라마의 티베트 귀국 허용 등을 요구했다.

티베트 망명 정부는 베이징 당국에 강압 통치를 종식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중국이 티베트 지도부와 대화에 나서도록 압력을 행사해 달라고 국제 사회에 호소했다.

한편 중국 공안 당국은 3월 10일 '티베트 봉기 기념일'을 앞두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티베트 자치구 수도 라싸와 시내 중심지 경비를 강화하고 검문소를 설치했다. **이나은 기자**

호주 유명진주회사 불교 컬렉션 출시

호주 유명 진주주얼리 브랜드인 파스팔리 펄(paspaley pearl)이 불교를 컨셉으로 컬렉션〈사진〉을 출시해 눈길을 끈다.

'파스팔리로 깨달은(Enlightened by Paspaley)'이라는 주제로 출시된 제품은 호주 남해 진주위에 부처가 앉은 형상을 악세사리 세트를 출시한 것. 파스팔리는 특허를 딴 커팅기술로 제작된 불상모양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귀고리를 세트로 제작했다.



파스팔리는 1930년대 탄생한 기업으로 호주의 가장 큰 남양백진주 회사로 유명하다. **이나은 기자**

"구국(救國)의 일념(一念)에서"
전국승려(全國僧侶)와 불교신도(佛敎信徒)에게 호소합니다!

이제 우리 팔천만 동포가 한사람도 죽여서도 죽어도 안된다.

불교는 불살상 이타행(不殺傷 利他行) 평화세상인 이상향(理想鄕)을 지향(指向)하는 유일(唯一)한 종교입니다.
≪고성염불십종공덕(高聲念佛十種功德)≫에서 願共法界 諸衆生 同入彌陀 大願海 盡未來際度衆生 自他一時成佛道 원하옵니다. 같은 땅위에 살고있는 모든 중생들이 우주에서 가장 높은 부처님의 바다와 같은 이상향에 같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제도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나와 남이 일시에 성불도 하기를 소리 높여 염불로 기도 합니다.염불 많이 하시고 많이듣던 염불이지요. 불교는 깨달음 정각(正覺)의 종교라 합니다. 이제 부지불각(不知不覺) 알지못하고 깨닫지 못한데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염불한 대한민국에서부터 그 아름다운 서원(誓願)을 들어주셔서 자타일시성불도(自他一時成佛道)하여 세계화(世界化)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대업(大業)을 완성(完成)하려면 부처님께서 대업을 완성할 수 있는 신통도력(神通道力)을 증거(證據)해야 하고 그 방편(方便)은 위성통신망(衛星通信網)을 이용(利用)하여 세계(世界)에 알려야 하고 지구촌 세계가족(地球村世界家族)이 동참(同參)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순간까지 전 불교인들의 신행(信行)은 있는 그대로 존치(存置)하고 새출발 해야 할 때입니다.세계평화와 불국토(佛國土)를 성취(成就)하려면 언론매체(言論媒體)에 종사(從事)하는 IT세대가 편집 보도권을 독립하여 기성불자들 에게는 정확히 이해를 시켜서 초고속으로 몸과 마음에 건강을 찾게하고 공영방송인 KBS는 물론이고 세계각국에 전법(傳法)의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알아야 합니다.

승려(僧侶)들이 모르는 불법(佛法)을 기자(記者)들이 어떻게 아느냐, 부처님께서 이시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기쉽고 증거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금강경(金剛經)에 대승정종분(大乘正宗分)이 있습니다. 세계 가족이 한배를 타고 항해(航海) 하듯이 한가족이 되는 것이 바른 신앙이다.

법화경약찬게(法華經略纂偈)에 "일승묘법연화경(一乘妙法蓮華經)이 첫구절입니다. 대승(大乘)과 일승(一乘)은 동의어(同義語)인데 세계가족(世界家族)이 70억명이 넘으니 대승(大乘)이라 했고 지구촌(地球村)이 한동네 이기에 일승(一乘)이라 했습니다".또 이 게송에 "석제환인월천자(釋帝桓因月天子) 단군신화에 천신(天神)인 환인이 민족종교와 하나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서품(序品)에 환인(桓因)이 나옵니다. 또 원효성사가 저술한 미륵경 마하가섭(元曉 述彌勒經 摩訶迦葉) 편에 석제환인(釋帝桓因)이 나옵니다.
금년 계사년(癸巳年) 불기(佛紀)2557, 서기(西紀)2013, 단기(檀紀)4346년 유구한 역사를 가진 단군조선 후예 동포(檀君朝鮮 後裔 同胞) 여러분! 이제 싸우지 말고 몸과 마음이 아프지 말고 예(禮)를 지키고 정(情)을 나누면서 사람답게 살아야 우리민족 역사상 처음있는 배부르게 먹고 따뜻하게 입고 따뜻하고 시원하게 잠잘 수 있는 현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민족은 언제부터인가 집안싸움으로 고통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겪으면서 힘없고 가난한 이들은 고통속에 살아왔습니다. 강한자가 약한자를 제재(制裁)하면 반항(反抗)이 따릅니다. 경우(境遇)에 맞지않는 제재는 억압이 되지요. 탄압도 되고요 호족들이 부하를 탄압하다가 적국과 싸우면 적군편이 되지요 신라로 들어온 불교 통일고려에서 팔만대장경을 집대성 했고 조선개국 이성계 책사(策士)가 무학대사 였는데 배불정책(輩佛政策)을 썼고 임진왜란 때에는 서산대사(西山大師)와 송운대사 사명당(松雲大師 四溟堂)이 호국불교를 입증(立證)했었지요, 이것도 잠시였고 배불정책(輩佛政策)은 계속되었고 일본에게 망(亡)했습니다.

광복 후(光復 後) 개신교 정권이 수립되면서 어이없게도 대처승(帶妻僧)들이 강제 이혼을 하고 비구, 비구니, 종단 조계종(比丘,比丘尼, 宗團 曹溪宗)이 신라 국찰(國刹)과 점찰법회(占察法會)로 진표율사(眞表律師)가 창건한 금산사와 법주사 까지 관리(管理)하는 관제불교를 만들어 억불정책이 계속되어왔다 불가항력 이랄까 일본 식민통치 36년간 돈있는 사람들만 일본교육을 받았고 승가(僧家)에는 극소수(極少數)만 한문공부(漢文工夫)를 했던터라 한문자 대장경 공부(漢文字 大藏經 工夫)를 못한것이 오늘날 신서불서 도서사전(神書 佛書 道書 辭典)인 팔만대장경(八萬大藏經)을 무신론(無神論)자들 만이 해야할 기록문화유산(記錄文化遺産)이라는 회괴한 이름을 붙여서 사장(死藏)을 하고저 하는가?

노자(老子)가 창시한 도교(道敎) 선도(仙道)는 양주동(梁柱東)이 사장(死葬)을 시켰다. 한글사전에 도교는 노자가 주장한 허무주의 종교다 했고 도(道)는 지역 경계 사람이 다니는 길이라 했다.
도덕경(道德經) 25장(章)에서 노자가 오부지기명자지왈도(吾不知其名字之曰道)라 했는데 (나는 그 이름을 몰라서 도(道)라는 글자를 썼다) 부처님께서는 묘법연화경 약초유품에서 금세후세여실지지(今世後世如實知之) 아시일체지자일체견자(我是一切知者一切見者) 지도자개도자설도자(知道者開道者說道者)다.
금세후세를 똑같이 다 안다 후세인 2500년뒤 현세에 와서 얼마나 알고계시는가? 는 팔만대장경의 후속편인 격암유록 신천(新天)운에서 제왕절개 수술 출산과 인공임신까지 예언을 하셨다. 내가 일체를 알고 일체를 보는 자다 노자가 쓴 도(道)를 알고 도를 열고 도를 말했다.

이 부처님께서 노자의 도와 팔만대장경의 연결고리를 써 놓으셨고 이시대 양주동이 한글사전에서 말살시킨 것을 예언 하셨고 다시 살려서 일기대도(一氣大道)를 만들어야 사람사는 사회 지상선경(地上仙境)이 된다고 하셨다. 현재까지의 신앙은 부처님과 하나님께서 성인(聖人)이라고 부르는 부처님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노자, 공자, 석가모니, 예수를 부처님과 하나님의 대행자(代行者) (불경에는 여래(如來)라 표기(表記)를 믿는 성인종교(聖人宗敎)와 성인신앙(聖人信仰)을 해왔다. 현재의 분열(分裂)된 지엽(枝葉) 종교를 인간을 창조하신 조물신과 태초조상(太初祖上)을 지구촌 세계가족이 한 부처님 한 하나님을 다 함께 모시고 일심으로 기도하여 상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초능력(超能力)을 전수(傳受) 받아서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신앙혁명 정신혁명을 구세주(救世主)께서 명(命)하신다.

이제 불교인(佛敎人)들은 해탈불교(解脫佛敎)로 한 단계 다같이 올라가야 한다. 현재의 참선(參禪)에서 합장염송기도(合掌念誦祈禱)하여 부처님 가피력(加被力)을 직접 받는것이 대승불교(大乘佛敎)다. 특히 조계종은 종헌종법에서 보우국사의 계율부터 조사은사(祖師恩師)의 학맥(學脈) 때문에 대승(大乘)으로 갈수가 없다. 학승(學僧)들의 종단(宗團)이기 때문이다. 도승,선승(道僧,禪僧)이 나올 수가 없는 종맥을 깨달아야 한다. 금강경(金剛經)에 천안불안법안(天眼佛眼法眼)의 실제(實際)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도승, 선승(道僧,禪僧)이 입을 열면 이단(異端) 취급을 받기 때문이다.

세상사는 가르쳐서 않되고 마음데로 않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작년 2012년 사설사암단체총연합회에서 대한민국 국회 대회의장에서 건국이래 처음으로 불교행사를 두 번 했었다. 생각없이 지나쳐 버린 불교인들의 실상을 보면 한심하다. 내종단이 아니니까 광복후 이승만 정권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후 불교는 항상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다. 신도수가 가장 많으니까 표를 의식해서 절앞에서 얼씬거렸다. 금년 정초 울진에 있는 불영사에서 김치 담그는 영상이 방영되었다.인터넷 홈페이지 팝업에 해당되는 KBS TV 6시뉴스광장 시작전 경주에 있는 첨성대와 황룡사 빈터가 방영되고 있다. 황룡사를 불태웠던 몽골 징기스칸이 호령하던 시대를 지나 용왕께서 몽고에 비를 주지않아 현재의 몽골이 되었다. 팔만대장경 목각판이 강화도에서 해인사로 옮겨오게한 원인제공도 몽골이였다.

원광법사(성씨가 박씨다)는 현재 국가최고지도자 몸에 와 있다. 김유신은 김일성으로 환생했다가 신의세계로 돌아갔다. 문무대왕은 용왕님의 전권특사로 세계기상의 조화를 부린다. 미국이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불안을 줄 때마다 허리케인 토네이도 폭우 폭설로 깨달음을 주고자 했지만 바보라서 모른다.

요즘 젊은이들 전쟁영화 드라마를 많이 시청을 해서 남북관계의 긴박한 현실을 드라마 보듯 한다. 6.25에 참전했던 예비역들 그때 전쟁으로 생각해서 현대무기의 위력을 모른다 전쟁 뒤에는 폐허와 비참뿐이다. 이시간 유엔에서 대북제재 결의가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남북간 군사 담당자 들은 전쟁직전 상황으로 TV를 통해 협박으로 주고 받는다. 팔천만 민족이 불안에 떨고 있다는 현실은 자기들과는 상관없다. 3.11남북휴전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선전포고를 해놓은 상태다.

UN이 러시와와 중국을 설득해서 대북제재를 하고 퇴로가 없는 절벽에서 6.25와 같은 전쟁이 발발하면 삼팔선과 가까운 서울과 수도권에 살고있는 백성들이 어떤 참혹한 현상이 나타날 것인지 생각해 보았는가? 시뮬레이션인가 뭔가로 가상전쟁을 해보면 알수 있을까 답답한건 우리민족 뿐이다.

절박한 이때 전 불교인들은 힘을 모아 조용하게 평화운동에 동참하여 불교의 진가를 세계에 알리면 안될까? 이것이 우리민족의 화두(話頭)다.

2013년 3월 16일

21세기 디지털사찰 대광사 大 光 寺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교천2길 51-37(교천리 55-1) 홈페이지 : www.daegwangsa.com TEL : 041)552-9966, H.P : 019-654-9004

大韓民國(대한민국) 永世中立國化(영세중립국화)를 위한 서명운동

任辰年(임진년) 2013. 三一節(삼일절)에 이 나라 이 民族(민족)의 眞獨立(참독립)을 이룩하기 위하여 署名運動(서명운동)에 불꽃을 당긴다.

94년 전 기미년 삼일절에 삼십삼인이 독립운동을 시작한 것은 작은 국토가 남북으로 분열된 참담한 독립이 아니었으나 天地運氣(천지운기)로 러시아와 미국의 다툼의 "상처의 흔적"이 以南以北(이남이북)으로 準獨立(준독립)이 된 것이다.

하나님의 비밀문서 上帝豫言書(상제예언서)에 李氏朝鮮(이씨조선) 明宗(명종)때 南師古(남사고)가 써 놓은 秘訣格菴遺錄(비결격암유록)에서 예언으로 밝혀 놓았다.

이제 우리 모두는 바보에서 벗어나 精神革命(정신혁명)을 해야 할 때다.

타계하신 김수환 추기경의 바보론 노무현 대통령의 바보론 SBS에서 방영했던 대풍수에서 나라의 정치사를 바꾸는 과정에 중추적 역할을 했던 鄭道傳(정도전)이 이성계와 주변 인물들에게 바보소리를 많이 했다.

이 時代(시대)에 세계지도자 모두가 바보가 된 현실의 예언이 돈 때문에, 자본제일주의 때문이라 하셨다 昏衢長夜眼赤貨(혼구장야안적화) 人皆不思眞不眞(인개불사진부진) 날이 저물고 긴긴밤 날이 새도록 불야성을 이루는 술장사와 공장의 야근 인간모두가 참인지 참이 아닌지 생각을 못하니 바보 맞지 孫文(손문)의 三民主義(삼민주의) 링컨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 民本(민본), 民主的(민주적)인 自由政治(자유정치)와 資本主義(자본주의)와 唯物論(유물론)을 分別(분별)없이 混同(혼동)하고 있는 현실이 바보인 것이다.

간디의 비폭력 정의론 元曉大師(원효대사)의 華諍論(화쟁론)이 시대의 시급한 과제다.

정신을 차리고 우리나라와 민족이 당면한 현실을 정확히 살펴보면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하다.

自滅(자멸)과 共鳴(공명)을 할수 있는 말들을 셋치 혓바닥을 입을 통해 쏟아내고 있다.

解決策(해결책)을 찾아야 共存共榮(공존공영)하는 배달민족(倍達民族)이 된다.

南(남)과 北(북)이 合議(합의)한 永世中立國(영세중립국)이다. 唯一(유일)한 方法(방법)이다.

金大中(김대중)과 金正日(김정일) 盧武鉉(노무현)과 金正日(김정일) 各各(각각) UN회원국인 兩國頂上間(양국정상간)의 協約(협약) TV를 통해 세계에 공개되고 KBS가 담당했던 歌手(가수)들의 平壤公演(평양공연)을 종합해 보면 전쟁위협은 찾아볼수가 없었다 南北分裂(남북분열)로 離散家族(이산가족)이 된 望鄕(망향)의 同胞(동포)들 만남을 막는 행위는 天命拒逆(천명거역)이다 家族(가족)은 天倫(천륜)이다.

六 · 二五 戰犯(6 · 25 전범)인 金日成 主席(김일성 주석)이 조선인민은 쇠고기국에 니밥을 먹으면 행복이다 라고하는 영상을 KBS TV에서 보았다.

戰犯(전범)이라 표기한 것은 上帝(상제)예언서에 共産發動(공산발동)은 하나님전 大罪(대죄)를 引用(인용)한 것이다.

햇볕정책으로 남북정상이 만날무렵 김정일은 인민들이 강냉이밥을 먹는 것을 보니 마음아프다. 이 영상 역시 KBS TV에서 방영되었다.

세계에 공개된 이 영상은 白旗(백기)를 높이들고 和平(화평)을 請(청)한 것인데 이뜻을 모르는 政治人(정치인)들 진정으로 모르는지 알고도 모르는체 하는지 이제는 答(답)을 해야할 때다 大統領專用飛行機(대통령 전용비행기)를 타고 休戰 中(휴전 중)인 敵國首都 平壤(적국수도 평양)을 환영속에 訪問(방문)했던 金大中 大統領(김대중 대통령) 기억하는가?

자유당 때부터 상대탄압과 부정선거 야합정치를 마감하고 무지랭이 순수한 백성들이 뽑은 民主(민주)선거 · 초대 대통령이 된 盧武鉉 탄핵이란 도깨비 장난으로 그물을 씌워 1년을 허송하고 고래힘줄같은 기득권 인맥 속에 간신히 정부를 구성하여 앞에서 다빨아먹고 爲人設官 公企業(위인설관 공기업들) 설것이 살림살이를 맡아 해놓은 일이라고는 南北和平 與件造成(남북화평 여건조성)의 完成(완성)뿐이다.

흔해빠진 비행기 안타고 걸어서 임진강 다리를 건너서 평양에서 남북정상간에 맺었던 협약들 TV에 방영된 것만 보아도 사실상 통합이 되었었다.

金大中 政權(김대중 정권)에서 始作(시작)한 南北頂上(남북정상)의 만남으로 부터 盧武鉉 政權(노무현 정권)에 協約(협약)된 南北大統合(남북대통합)의 役事(역사)는 天神(천신)의 謀事(모사)로 人間 金大中(인간 김대중) 金正日(김정일) 盧武鉉(노무현)이 成事(성사)시켰다는 事實(사실)을 地球上(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간 모두가 똑똑히 알아야 한다.

上帝(상제)예언서 末運論(말운론) 末世제(말세제)에 명기되어 있다.

이 예언에서 이씨 조선이 二十八(이십팔)대 왕이 망하고 이승만 정권이 수립될때 '李花更發' (이화갱발) 米合衆國(미합중국) 黃鼠之攝政(황서지섭정)이 섭정을 하고 末初歌(말초가)에서 十二(십이)년 만에 이씨 조선 막을 내린다고 명기되어 있다.

이제 우리는 섭정에서 벗어나 우리 민족이 참독립국이 되어서 世界平和(세계평화)를 主導(주도)해야 민족이 살고 세계가족이 살아 남는다.

미국과 소련이 2차 대전 이전에 핵실험을 광범위하게 했는데 반도 북쪽 좁은 땅 산악지하에서 소꼽장난 하듯 하는 핵실험이 왜 그렇게 무서운가 러시아 중국의 武力(무력)은 체져두고 북조선이 최후 발악을 하는 것은 사담 후세인이나 카다피 같은 꼴은 당하지 않겠다는 전술로 보면 답이 나온다.

퇴임한 이명박 대통령 선거구호에 잃어버린 10년 5년 임기가 끝난 지금 전쟁위협에 불안 이 보다 더한 불행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세상 밑바닥을 살고 있는 가난하고 병든이들은 전통사회의 붕괴로 흙파먹고 사는 자유도 없이 방귀끼고 숨쉬는 자유밖에 없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기나 하는가?

結者解之(결자해지)라 했다.

우리 민족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다.

미국과 러시아가 풀어야 한다.

세계 제2차 대전을 終息(종식)시켜야 한다.

일본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한 功德(공덕), 恩惠(은혜)를 永遠(영원)히 評價(평가)받을려면 스위스와 같은 永世中立國(영세중립국)을 만들어 世界平和(세계평화)의 軸(축)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남북이 다같이 UN회원국이면서 外交(외교) 관례상 반듯이 있어야 할 大使館(대사관)이 없다. 우리 민족이 뼈를 깎는 自省할 민족간 분쟁이 있었다.

그러나 國權(국권)을 빼앗긴 無主國(무주국)으로 日本殖民統治(일본식민통치)를 받을때는 大韓帝國(대한제국)한나라였다 八 · 一五 光復(팔일오 광복)과 거의 동시에 대한제국을 복원하느라고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 國號(국호)를 사용하면서 김일성은 나라가 망했던 대한이라는 국호를 쓰지않고 이성계가 개국한 조선을 이씨조선을 김씨조선으로 국호를 쓴 것이다 지금 참독립국, 영세중립국, 평화의 나라, 禮(예)의 나라를 만들고저 촛불을 당긴 꺼벙이 늙은이와 같이 독립된 하나를 만들고저 남북을 넘나들며 노심초사했던 愛國志士(애국지사)들이 天運(천운)을 몰라서 곧은 주장을 하다가 이 좋은 세상 살아보지 못하고 한맺힌 적국이 아닌 동족에게 희생된 것을 기억하는가

죽을 쑤어 개 좋은일 하고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뙤놈이 먹는다는 속담 말로 떡을 빚으면 조선이 먹고 남는다는 속담 기억하는가

불에 탔던 서울 南大門(남대문) 崇禮門(숭례문)이 復元(복원)된 모양이다.

建築物(건축물)을 國寶 一號(국보 일호)라 하는데 禮義(예의)를 崇尙(숭상)하는 國家(국가)를 상징한다는 뜻으로 세웠다는 참뜻이 더 소중하다

東大門(동대문) 興仁門(흥인문)도 똑같다 어진 정치를 하여 나라와 백성이 부흥해야 한다는 뜻이다.

十八代 大統領(십팔대 대통령)이 되신 朴槿惠 님 民族史(민족사)를 단절시키지 않으면 初代女性(초대여성) 대통령이 아니고 四代 (사대)대통령이다.

新羅(신라) 二十七代(27대) 善德女王(선덕여왕) 二十八代(28대) 眞德女王(진덕여왕) 五十一代(51대) 眞聖女王(진성여왕)이 있었다.

한 나라당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하나님께서 10년 功(공) 드려 만들어 놓은 조선과 한국간 맺은 협약들을 거의 白紙化(백지화) 시켰다.

上帝(상제) 예언서에서 하나님 말씀을 天語(천어)라 하셨고 협약, 약속을 지키지 않는 행위를 背約(배약)이라 하셨다. 우리들이 통용하고 있는 南北分斷을 分裂(분열)이라 하셨고 南北統一(남북통일)을 統合(통합)으로 표기하셨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다 지은 밥에 콧물을 빠트려 전쟁공포 속에서 5년이 지난 지금 조선에서는 동족간 대결을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과는 대화하지 않겠다 무력으로 자기들을 건드리면 한국을 파멸시키겠다는 판에 미국과 국제사회가 핵기술을 인정하는 보도가 속속 나오는데도 한미공조로 절대로 북핵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장담을 하시는데 영세 중립국으로 悠久(유구)한 역사를 가진 한나라 한민족이 되어 핵기술을 우리것으로 만들면 어떨런지 話頭(화두)를 드립니다.

지금은 地球村 世界家族(지구촌 세계가족)이 同時(동시)에 平和(평화)를 만들어야 할때입니다

六者(육자) 회담 좋은데 역사를 되돌아보면 露日戰爭 淸日戰爭(노일전쟁 청일전쟁)으로 러시아와 일본 중국과 일본 진정한 우방이 어렵지요.

우리는 말할것도 없는데 일본의 평화를 사랑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임진왜난 7년사와 한일합방 이후 36년간 잔악한 무관들이 저지른 발자취를 삼중스님이 주관했던 귀 무덤 코 무덤의 원혼들, 정확하게 알려서 풍신수길의 악령발동 스스로 막게 해야 그들의 업장이 소멸되고 진정 아세아의 우방이 될 것입니다. 美國(미국)과 日本(일본) 똑같습니다.

일본이 우리민족 魂(혼)의 脈(맥)을 잘라 버리려고 명당에 쇠말뚝을 박고 백성들이 편안하게 잘 살기를 빌던 전국 곳곳을 찾아다니며 巫俗(무속)까지 조사를 했었고 創氏改名(창씨개명)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우리 스스로 민족정통성을 소멸시키고 국가기관주민센터 농업기술센터 공기업 방송, 신문까지 영문과 훈민정음으로 영어표기와 말로 일반화된 현실들 세계를 들석이고 있는 운동선수들 예술인들 우리민족의 미풍양속으로 끝맺음을 하여 국위를 선양하고 文人(문인) 체육 예술인들이 평화운동으로 승화시키면 세계평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민족이 영원한 분열과 대립을 원하지 않고 평화를 사랑하고 민족화합을 원한다면 영세 중립국화 운동에 서명하리라 믿는다.

퍼주기 걱정 통일비용 걱정 안해도 된다. 고향을 이북에 두고 온 부자들 애향심으로 고향에 공장 몇게 지어주고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고 다리뻣고 편하게 잠자게 해주면 된다

불교 신앙인들 불교는 不殺生(불살생)종교다 말로만 하지 말고 불교인들이 힘을 모아 법을 만들게 하면된다.

참독립국을 만들려면 제헌국회부터 현직 국회의원까지 모두 모여서 역사정리를 하고 사람이 사는 나라 새법을 만들어서 후세들을 위하여 나라돈 받아먹은 값을 해야한다

시급한 당면 민족적 과제는 기존통일기구는 폐지하고 고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 최종 협약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현재의 통일부와 공동으로 대북대화창구를 복원하여 남북간 무력긴장을 즉시 중지시켜야 한다.

국민행복 말로만 되지 않는다 武器(무기)는 평화를 주지 못한다 한미동맹 미국은 고성능 무기만 팔면되지만 우리는 팔천만 민족의 생명이 담보되어 있다.

우리민족은 自救策(자구책)을 세워야 할때다. 南北(남북)이 合(합)한 武力 强大國(무력 강대국)들에 比(비)하면 도토리 키재기다.

永世中立國化(영세중립국화) 發願(발원)은 2012년 辛卯 三月 三日날 시작하여 1년이 되었다.

2013년 壬辰 3月 3日부터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대한민국 영세중립국화 전국민 서명운동본부

발원 **대광사** / 발기 **(사)전국사설사암단체총연합회**

본부장 **대명 대사**

본부 : 21세기디지털 사찰 대광사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교천리 55-1)
홈페이지 : www.daegwangsa.com ☎ 041)552-9966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58 (두산위브파빌리온) 412호
☎ 02)2198-5022~4, FAX 02)2198-5025, H.P 010-4167-3666

* 대한민국 영세중립국화에 동참하시는 개인 및 단체는 전사련(서울사무소)이나 대광사(본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선혜 스님 다예도구 141점 기증

보성차박물관 중국관에 전시 예정

선혜 스님(서울 법륜왕사 주지)이 전남 보성군이 운영하고 있는 한국차박물관에 141점의 다예 도구를 기증했다. 이는 스님이 지난 3년 동안 중국을 여러 차례 방문하며 의뢰하여 제작된 것으로 대만 우롱차, 말리화차, 용정차, 광동 우롱차, 홍차, 보이차 다예도구와 물항아리 등 총 7건 141점에 이른다.

선혜 스님은 "이번 기증 다예도구 중 경적진 자기는 공장에 가서 직접 주문을 해 들여온 것들"이라며 "작년에 개관한 보성차박물관의 중국관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이렇게 기증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한국차박물관은 이번 기증으로 세계차 전시관에 중국 6대 다예 도구를 관람객에게 볼거리로 제공하게 됐다. 스님은 그동안 보성에서 차 농사를 지어왔으며, 1979년부터 지역에서 차를 만들며 주변 농가에 차 만드는 법을 전수하는데도 힘써왔다. 성신여대에 예절다도학과를 개설 교수로 재직하기도 했다.

선혜 스님은 1972년 합천 해인사에서 일타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75년 해



다예도구 141점을 기증한 선혜 스님

인승가대학을 졸업하고 10여년간 전국 선방에서 참선수행을 하면서 정진했다. 행자시절부터 차(茶)와 시(詩)에 남다른 관심과 실력으로 인정받았던 스님은 효당 최범술스님 문하에서 본격적인 차공부를 했고, 1980년 강남 봉은사 앞에 '차회(茶會)' 석정원을 만들어 차문화를 보급했다. 그동안 1000여편에 달하는 왕성한 시작(詩作)활동을 펴온 스님은 지난 7월 첫 다시집 〈차인의 향기〉를 출간했다.

정혜숙 기자

겔상추키 2집 '화개시절' 발매

티베트의 국민 여가수 겔상추키의 2집 앨범 '화개시절'이 한국에서 발매 됐다. 화개시절에는 감로와 다와돌마 등이 한국인에게 가장 사랑받는 노래가 담겨 있다. 티베트 전통민요와 찬불가뿐만 아니라 티베트 애국가와 창작곡들까지 총 12곡이 담겨 있다. 티베트 전통악기와 추키의 목소리가 피아노, 첼로, 기타 등 현대악기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다.

그는 앨범 제작과 자신의 음악적인 영역을 더욱 넓히고 발전시키기 위해 1년 동안이나 인도와 티베트의 국경 인근지역에 머물면서 옛 문헌들을 공부하고 수많



겔상추키 2집 '화개시절' 표지

은 라마 고승들, 전문가들과 학자들로부터 티베트의 전통노래들을 배웠다고 한다. (011)415-1798

정혜숙 기자

춘천박물관 '봄을 찾아온 동자' 展

국립춘천박물관(관장 최선주)은 4월 14일까지 '명품순례, 봄을 찾아온 동자' 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단원 김홍도(1745~1806) 이후의 도석인물화(道釋人物畵)에 등장하는 선동(仙童)을 비롯해 동자들을 그린 조선 후기 회화 11점을 선보인다.

김홍도는 풍속화가로 알려졌지만 다양한 분야의 그림을 그려왔다. 특히 신선 그림은 생생하고 개성 넘치는 인물표현, 번짐 효과를 잘 살린 작품이 많다. 이번 전시 작품들은 은은하고 신비로운 느낌을



김홍도 作 '구름위의 신선들'

주는 채색, 거침없이 활달한 붓놀림 등, 김홍도의 작품 세계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033) 260-1521

정혜숙 기자

불교로 문학지평 넓힌 한국 문단의 거장

김동리 탄생 100주년… 불교와 삶 그리고 문학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나는 미묘한 충격에 사로잡히게 되었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 미묘한 충격을 나는 어떠한 말로써도 설명할 길이 없다. 〈중략〉 많은 부처님 가운데서 그렇게 인간의 고뇌와 슬픔을 아로새긴 부처님(등신불)이 한 분쯤 있는 것도 무방한 일일듯했다"

스스로 소신공양을 해 부처가 된 등신불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김동리의 소설 〈등신불〉 중 일부다. 올해는 소설가 김동리 작가(1993~1995)의 탄생 백주년이 되는 해다. 〈등신불〉 〈무녀도〉 〈역마〉 〈황토기〉 등 불교와 토속신앙 등 전통을 아우르는 그의 작품세계는 한국 근현대 문학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이에 본지는 탄생 100주년을 맞는 김동리 작가의 불교적 세계관을 조명해 보고 김동리기념사업회가 진행하는 기념사업 등을 정리했다.

경북 경주에서 태어난 김동리는 불교신자였다가 개신교로 개종한 어머니의 권유로 어린시절 교회에 나갔고 미션스쿨에 다니기도 했다. 하지만 개신교는 생활의 방편일뿐 자신의 종교라 여기지 않았던 그는 17세에 학교를 중퇴한 이후 줄곧 불교적 분위기 속에서 문학적 소양을 키워왔다. 특히, 일제 강점기 항일운동가였던 한용운 스님과 최범술 스님이 기거했던 경남 사천의 다솔사는 김동리 문학의 산실이었다.

김동리기념사업회 김지연 회장은 "김동리 선생의 문학과 삶에 불교는 큰 영향을 끼쳤다. 선생님의 대표작인 〈등신불〉은 불교사상을 기반으로 한 작품이다. 이는 다솔사 해인사 등을 근거지로 집필 활동을 펼쳤던 선생님의 삶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김동리는 하루종일 다솔사 산사 주위의 경관을 맴돌며 한 겨울을 보내고 해인사로 가 참선을 배우기도 했다고 한다. 일제 강점기의 서러움과 답답함을 참선을 통해 극복해보고자 했던 것이다. 특히, 김동리는 다솔사가 운영하는 야학 광명학원의 교사로 활동하기도 했는데 이는 1941년 일제에 의해 강제 폐쇄된다. 여기에 조선어말살정책이 시행되자 1935년 데뷔 이래 21편의 단편소설을 발표했던 작가는 절필을 선언한다.

김동리는 일제강점기와 근대문물이 유입되는 혼란기에 전통 지향적 보수주의를 지향해 나간다. 그는 불교 샤머니즘 기독교 토테미즘 등 복합 종교 체험을 작품에 녹여내면서 작품세계를 형성해 나간다. 고려대민족문화연구원 김종균 연구원은 "김동리의 전통 지향적 정신세계는 궁극적으로 불교와 샤머니즘 및 동양정신의 원형인 도교였다. 김동리는 일제말기의 생존 상황과 근대주의 즉 모더니티의 도전에 그 자신의 종교적 세계인식으로 맞섰던 것이다.

다솔사 해인사 등에 머물며 집필 활동
한국불교아동문학회 초대회장 역임
대표작 〈등신불〉 불교정서 녹여내

그의 종교적 대응 방법은 민족 구원의 한 방편이었다. 이때만큼 김동리의 종교적 대응과 구원 정신이 빛날 때가 없었다. 그만큼 김동리는 일제말기 치열한 삶을 살았다"고 말한다.

김동리는 1982년 설립된 한국불교아동문학회 초대 회장으로 추대되기도 했다. 한국불교아동문학회는 불교설화 계승과 비유설화 등 아동문학자료로 어린이 정서 순화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금까지 한국불교아동문학회는 불교어린이글짓기대회 등을 개최하며 불교아동문학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①올해로 탄생 100주년을 맞는 김동리 작가의 생전 모습.
②KBS TV문학관에서 드라마로 방영됐던 '등신불'의 한장면
③초대 한국불교아동문학회 회장을 지냈던 김동리 작가가 불교글짓기 대회에서 시상식을 진행하고 있다.



김동리 탄생 100주년을 맞아 김동리기념사업회는 다양한 행사를 연다. △추모음악제(11월 19~20일, 충무아트홀) △김동리 손소희 서예 및 도자기전 △김동리문학 학술심포지엄 및 추모의 밤(12월 24일, 충무아트홀) △김동리문학 학생작품 공모 시상식(12월 24일) 및 책 발간 배포 △동상 건립 △전집 발간 및 헌정식(11월 24일) 등을 펼친다.

한편, 소설가 김동리는 경북 경주에서 1913년 11월 24일 태어났다. 1934년 시 〈백로〉가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돼 등단했다.

1947년 조선청년문학가협회장, 1951년 동 협회부회장, 1954년 예술원 회원, 1955년 서라벌예술대학 교수, 1969년 한국문인협회이사장, 1972년 중앙대학 예술대학장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소설집으로 〈무녀도〉(1947) 〈역마〉(1948) 〈황토기〉(1949) 〈귀환장정〉(1951) 〈실존무〉(1955) 〈사반의 십자가〉(1958) 〈등신불〉(1963), 평론집으로 〈문학과 인간〉(1948), 시집으로 〈바위〉(1936), 수필집으로 〈자연과 인생〉 등이 있다. 예술원상 및 3·1문화상 등을 받았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108일간 펼치는 전통춤의 정수 '승무'

무용가 이철진 씨 성균소극장서 9월 8일까지

화요승무이야기로 승무 상설공연을 펼쳐왔던 무용가 이철진 씨(한국춤예술센터 이사장)가 108일간의 승무 이야기로 대중들을 찾는다. 이씨는 9월 8일까지 7개월간 대학로 성균소극장(매주 목요일~일요일 공연) 무대에 오르며 전통춤 완결편 '108승무'로 40분간 솔로 무대를 펼친다.

불교에서 파생된 '승무'는 불가의 의식무에서 시작 되었다. 승무의 의상이 되는 장삼과 고깔 그리고 붉은 가사뿐 아니라 승무 공연의 북놀음은 불교 예술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철진의 승무는 한성준-한영숙-이애주-이철진으로 이어지는 전승계보를 잇고 있다. 무엇보다 그는 평생 승무를 학습하며 일구어낸 독특한 해석을 지니고 있다.

이 씨는 "승무는 한국 전통춤의 기본이면서 정점이라 할 수 있다. 이번 공연을 통해 승무를 통해 한국 전통춤의 정점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춤은 곧 고행이자 구도자의 과정이라고 말하는 이철진 씨. 그는 고행과 수행의 과정 나아가 깨달음을 이룬 구도의 과정을 이번 승무 공연 속에 그대로 담아낼 것이다.

이 씨는 "단 한명의 관객을 위해서라도 공연은 계속 될 것이다. 공연을 보는 모든 이는 구도자의 고행과 수행을 고스란히 체험하며 스스로 또 다른 수행자가 될 것"이라고 전한다. (02)747-5035

정혜숙 기자



이철진 씨는 108일 동안 승무 공연을 펼친다.



중국불교의 거사들



거사, 중국불교를 일으키다

거사들의 생애와 활동, 사상을 통해 중국불교를 읽는다!
중국에 불교가 뿌리내리고 역사 속에서 화려하게 꽃피울 수 있었던
배경에는 재가 거사들의 뛰어난 활약이 있었다.
이 책은 중국불교의 대표적인 거사들이 당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불교를
위해 헌신하였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개괄하였다.

김진무 지음/신국판/370쪽/값 1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 전화 (02) 926-8361 ● 주문 (02) 3672-7181 ● 인터넷서점: 붓다북 www.buddhabook.co.kr

티벳불교의
보리도차제법,
대원만 예비수행의
지침서!

大圓滿前行引導文

-꾼상라매샐릉

대원만 수행 요결

A Guide to the Preliminaties of the Great Perfection





밀교와 현교를 관통하여 성불의 길로 이끌어주는 수승한 정법!

어떻게 번민을 잠재우고 평안을 얻을 것인가?
번뇌의 불을 끄고 진정한 행복과 자재함을 가져다줄 최고의 가르침!
다양한 경전과 논서를 넘나들며, 알기 쉬운 해설로 진실한 발심과
성불의 길로 이끌어주는 안내자!

직메 최기왕뽀 저 · 수다지 캔뽀 한역 · 지엄 역/신국판양장/574쪽/값 28,000원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전화 (02) 926-8361 ●주문 (02) 3672-7181

새봄을 여는 음악의 향연

인천 석화사 '가족과 함께하는 산사음악회' 개최

3월 24일 석화사 야외공연장서



인천 석화사 주지 자명 스님〈사진〉이 2013년 새 앨범을 내고 인천 시민과 함께 하는 산사음악회 '새봄, 그리고 환희'를 연다. 3월 24일 오후 2시 석화사 야외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산사음악회에서는 대중 가수 들의 무대는 물론 영산재 특별 공연이 펼쳐진다.

주지 자명 스님 찬불가 공연
대중가요 · 영산재 공연 한마당

주지 자명 스님은 지난해 10월 석화사 주지로 부임한 이후 꾸준히 포교활동을 펼치는 가운데 이번 음악회를 열게 되었다. 자명 스님은 찬불 음반을 2집까지 발매한 찬불가수로 지난해 1집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처럼'에 이어 올해 2월에는 2집 '저자로 내려온 산사'를 내 놓았다.

스님은 "2집 앨범은 불자들이 친근하고 익숙하게 접하는 우리말 독경에 명상 음악 기법을 가미하여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한 것이 이번 새 앨범의 특징"이라고 설명한다. 스님은 이번 공연에서도 대중들을 위해 '성불하십시오' '찔레꽃' 등으로 음성 공연을 펼친다.

산사음악회는 사시불공 및 경내 미륵전 육법공양을 시작으로 오후 2시 산사음악회로 이어진다.

공연은 아남카라 혼성 중창단(단장 박봉숙)이 '사박걸음으로 가오리다' '아름다운강산' '향수' 등의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남궁옥분 장미화 씨 등이 출연해 흥겨운 한마당을 펼친다. 영산재 공연에서는 유네스코 등재 무형문화재 제 50호 전수자인 심진 스님, 호산 스님, 청산 스님, 현광 스님 등이 무대에 오른다.

자명 스님은 "이번 공연에서 가족 단위의 대중들이 찾아와 즐거운 시간을 갖길 바란다"며 "앞으로 석화사는 가족단위의 신행활동을 펼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대중과 함께하는 사찰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전했다.

이어 스님은 "앞으로 쉽게 풀어주는 금강경 강좌 개설, 무료급식센터 보현의 집 개설로 대중과 쉽게 친해질 수 있는 사찰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혜숙 기자



석화사는 3월 24일 산사음악회를 연다.

박대성 화백 한국화 강의 나서

12월 28일까지 경주박물관서

박대성 화백이 대중들에게 한국화 그림 강의를 진행한다. 박 화백은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이영훈)에서 '우리 그림 교실'의 강사로 나선다.

12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국립경주박물관 세미나실에서 진행되는 강좌에서 박 화백은 선긋기를 시작으로 글씨 쓰기, 자연물 그리기, 자화상 그리기 등으로 이어지는 실기 위주의 수업을 진행한다.

우리 문화와 그림에 관심 있는 일반인은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박대성 화백은 수묵화로 한국화의 큰 맥을 이어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화단의 중진(重鎭)으로,


박대성 화백이 경부박물관서 그림 강의를 진행한다.

평소 필선을 중시하여 먹 위주의 작품작품으로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054)740-7536

정혜숙 기자

한국미술의 틀린 용어 바로잡기 사엽화문(四葉花文) → 사면보주(四面寶珠)

우주 생명력 극대화 시킨 조형언어

미술사학자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四面寶珠'를 보고 널리 '四葉花文'이라 부르는 것을 보고 놀랐다. 모두가 보주라는 것을 모르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위에서 본 네 개의 보주를 합쳐 놓은 모양을, 꽃잎이 네 개를 합쳐 놓은 무늬인 사엽화문이라고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며, 모두가 그러하니 아무도 바로잡아 주지 못한다. '사엽화문'은 '사면보주'이다. 나는 이미 40년 전에 '寶珠의 思想'이라는 논문을 써서 사면보주에 대하여 언급한 적이 있으나 그 때만 해도 부족한 점이 많아서 충분히 해석하지는 못했다.

우선 사람들은 보주가 무엇인지 모른다. 무엇인지 알려고 하는 호기심마저 없다. 그 까닭을 거슬러 올라가 찾아보니 바로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의 '귀면(鬼面)'에서 비롯하였음을 알았다. 귀면의 입에서 항상 식물 덩굴모양 영기문이 나오고 보주가 나온다. 그런데 귀신의 얼굴에서 나오고 있으니 무엇인지 알 수 없을뿐더러 영기문이나 보주가 보일 리가 없었다. 미술사학의 가장 중요한 조형이나 현상을 100년 동안 지나친 것이니 불교에서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영기문이나 보주의 본질을 추구할 기회도 없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었다. 귀신의 얼굴 정면 표현한 귀면을, 용을 정면에서 본 얼굴인 용면(龍面)으로 새로이 인식하여 바꾼 것은 미술사학 연구에 큰 획을 긋는 것이다. 2000년에 내가 처음으로 주장한 이래 12년 만에 비로소 국립박물관에서 귀면이란 용어가 사라지고 작품 설명 카드에 용면와(龍面瓦)로 고쳐지게 되었다.

용의 입에서 나오는 보주 '무량'

용의 입에서 보주가 한 개 나오는 도상이 있고, 두 개 나오는 모습도 있고, 세 개 나오는, 네 개 나오는 도상이 있는데, 그 때 각각 1면 보주, 2면 보주, 3면 보주, 4면 보주라 부른다. 면(面)이란 개수를 말한다. 이런 용어는 동양미술사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이다. 그러면 우리 학계나 종교계에서는 왜 가장 중요한 용어를 올바로 쓰지 못하는 것일까. 종교계에서는 대부분 학계의 오류를 그대로 따르기 때문이다. 보주를 이해하려면 용을 공부해야 한다. 그런데 용의 정면 얼굴을 표현해야만 입에서 보주가 나오고 영기문이 나오는 것을 조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용을 옆으로 길게 나타내면 모두가 용인 줄 알지만, 용의 정면 얼굴을 보면 누구나 귀신의 얼굴이라 부른다. 그런데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용의 옆모습에서는 보주나 영기문이 나오는 것을 표현하기 어려워서 그런 표현이 그다지 많지 않다. 그러니 용의 입에서 영기문이 나오고 보주가 나온다는, 미술사 연구에서 가장 중대한 조형을 알 수 없었다. 그러면 용의 입에서 보주가 몇 개 나오는 것일까? 용의 입에서는 하나나 둘 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무량한 보주가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 어느 날 일본의 노학자에서 물었다. "용의 입에서 보주가 몇 개 나옵니까?" 답하기를, "하나"라고 단호히 말한다. 설명하기를 "아닙니다. 하나가 아니고 무량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보주를 입에 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발산하는 것입니다." 그는 말문이 막혀서 아무 대응도 하지 못했다.

연꽃의 경우는 씨방의 씨앗들이 무량한 보주가 된다는 것을, 씨방을 사면보주 모양으로 표현하였는데, 사람들은 씨앗이 보주가 된다는 차원 높은 형이상학적 진실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흥미롭지 않은가! 함께 물을 상징하는 용과 연꽃에서 사면보주가 나온다는 것이.

그런데 이상한 일이다. 아무 의미 없고 틀린 용어가 금방 널리 퍼지며 상식이 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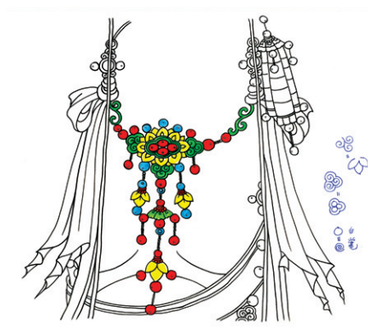
용과 연꽃서 사면보주 나와
무량보주 의미하며
무한한 생명력 발산 상징

어버리며, 그 오류를 증명하여 고쳐서 설명하면 알아듣지 못하여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 까닭은 틀린 용어를 쓰는 사람은 틀린 삶을 살기 때문이며, 따라서 올바른 용어와 설명을 들려주면 차원이 높은 내용이여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므로 학문하는 사람은 교양 있고 차원 높은 삶을 항상 추구해야 한다.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써야 아무 것도 모르는 대중이 이해하기 쉽다는 현실'에 크게 실망한 적이 있다. 중요한 내용을 아무리 정성껏 증명하여 써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한다. 단지 평생 단순한 사실만을 지식으로 축적하여 왔기 때문이다. 사고력의 상실이고 영성(靈性)의 상실이다. 본질과는 관계없는 에피소드만을 써 달라고 원고 청탁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사회가 천박해 지고 있는데, 예술작품은 어떤 의미에서 문자언어로 전해지는 종교사상보다 정신적 차원이 더 높고, 함유하고 있는 상징이 더 심원하므로 일상생활은 점점 진실과 멀어져 간다.


그림① 신경유씨 복식 세부, 씨방을 사면보주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림② 용면와, 입에 사면보주가 있다.


그림③ 월성출토 타원형 와당, 씨방 부분에 사면보주가 있다.


그림④ 고려수월관음 가슴걸이. 장식이 아니다. 중심의 사면보주에서 사방으로 무량하게 보주가 생겨난다.

그 점을 자각하여 오류를 지적하며 틀린 점을 증명하고 있는데도 무관심하니 어찌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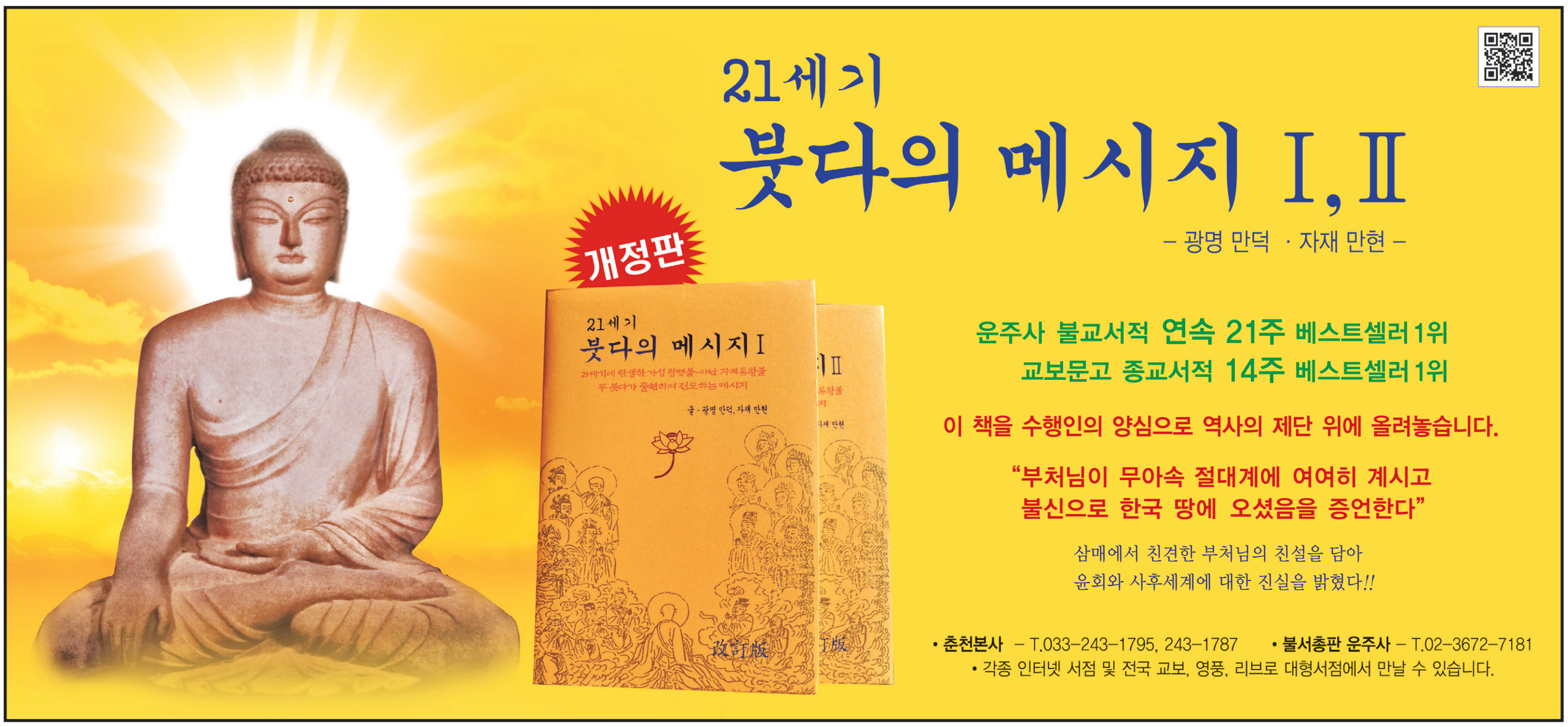
향로 복식 기와에도 수없이 등장

네 개의 꽃잎 무늬란 아무 의미가 없다. 한국미술은 불교미술이다. 한국미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조형인 사면보주를 사엽화문이라 부르는 것은 한국미술을 모독하는 것이다. 가장 고귀한 사상을 담고 있는 것이 사면보주이다. 사면보주란 네 개의 보주를 합하여 보주가 품고 있는 생명력을 극대화한 것이다. 보주를 다섯 개 합친 오면보주의 조형은 없다. 그러므로 사면보주가 일면보주나 삼면주보다 한층 위력이 있고 조형적으로도 아름답다. 즉 사면보주란 무량보주를 의미한다. 씨방 안의 만물생명의 근원인 씨앗이 무량한 보주가 되어 우주에 충만하다는 매우 고차원의 상징을 띠고 있다. 그리하여 사면보주의 조형이 향로나 복식(사진 1)이나 와당(사진 2, 사진 3)이나 불화(사진 4)에 수 없이 표현되고 있으나 아직도 그 조형을 올바로 인식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면 보주란 무엇인가?

보주는 딱딱한 광물 보석이 아니다. 보주 안은 텅 비어 있고 그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기(생명력)가 충만하여 있거나, 무량한 보주들이 나오거나 한다. 그래서 보주에는 항상 구멍이 있다. 여래조차 보주에서 탄생하니, 보주는 만물의 근원이다. 그러므로 보주를 네 개로 합친 것은 보주의 생명력을 극대화한 것이며 무량보주를 상징한다. 보주 하나에서도 무한한 생명력을 발산하는데 사면보주에서는 더욱 강력한 생명력이 발산하여야 마땅하다. 그 가장 강력한 네 개의 보주는 경배의 대상이기도 한데 아무 의미 없는 '네 꽃잎'이라 부르니 이 무슨 허망한 짓인가.



강우방 (일향 한국미술사 연구원장)



한국불교의 미래를 진심으로 생각하다

진광불휘–참된 빛은 번쩍이지 않는다

유철주 지음 | 담앤북스 펴냄 | 1만7천원



"지금 한국불교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국불교 차세대 리더 열아홉 분의 스님〈사진〉들에게 '한국불교의 미래'를 물었다. 저자가 2년 전 출간했던 〈산승불회〉와 맥을 같이한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미래'란 곧 과거로 남을 '역사'의 다른 이름일 것이다.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한다는 것은 남겨질 역사를 이미 쓰기 시작한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책 〈진광불휘〉는 미리 쓰는 역사의 일부다.



차세대 리더 열아홉 분 스님과의
한국불교 점검 위한 구체적 문답

한국불교의 역사는 찬란했던 때도 있었고, 억압받고 암담했던 때도 있었다. 짧지 않은 역사 속에서 희비를 거듭해온 한국불교는 찬란했던 때는 찬란했던 이유로, 암담했던 때는 암담했던 이유로 우리의 가슴 속에 기억되었고, 우리 삶의 등불이 되었던 것이 분명하다. 시대가 어려울 땐 어려움 속에 뛰어들었고, 한 시대를 마감할 때마다 새로운 문 앞엔 늘 선지식들이 있었다. 우리의 정서와 생활 전반을 알게 모르게 이끌어 왔다. 때문에 종교라는 이름 말고도 우리가 한국불교에 붙일 수 있고 붙여줘야 하는 다른 이름은 많을 것이다. 우리 역사의 축이고 문화의 축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불교의 현재와 미래는 늘 검토되어야 하는 것일 것이다.

하루하루가 '시대'인 지금 또 한 번 한국불교는 중요한 점검의 시기를 맞은 듯하다. 저자는 서문에서 최근의 한국불교가 국민들에게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행복을 주기보다는 근심과 걱정을 선물(?)했다면서 출간의 취지를 드러냈다. '술'이니 '도박'이니 하는 불교와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 '불교'의 괄호 속을 채우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웠던 것이다. 저자는 최근에 불교계에서 일어난 많은 사건사고를 보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롭게 되새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끝에 부처님과 선지식들의 말씀을 출간하여 전하기로했다.

"한국불교를 비관적으로 보기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불철주야 정진하고 있는 수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前 현대불교신문 기자이며 현 불교포커스 객원기자인 저자는 각 분야에서 정진하고 있는 열아홉 분의 스님들에게 한국불교의 미래를 물었다.

"한국불교가 위기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한국불교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을까요?" 등 원론적인 물음에서부터 "도심에 사는 불자들이 보다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승가교육은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요?", "불교계에 노후복지가 왜 필요한가요?", "교구본사는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요?", "돈오돈수가 맞나요? 돈오점수가 맞나요?" 등 종단 운영에서부터 포교, 수행, 승가교육 등 불교 전반에 걸친 구체적인 질문을 이어간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극단적으로 말해서 불교가 천천히 망하느냐, 빨리 망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대중과 호흡하지 못하고 사회 흐름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과 각종 비리와 추문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을 빨리 끊고 정말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고창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은 올바른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면 상황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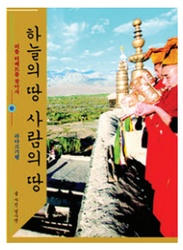
책은 크게 '미래의 길', '지혜의 길', '전법의 길' 세 분야로 구성했다. 한국불교의 미래를 걱정하며 주고받은 치열한 문답이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극단의 환경을 경이의 풍경으로 … '붓다의 땅'

하늘의 땅, 사람의 땅–라다크 기행

남수연 글 · 사진 | 종이거울 펴냄 | 1만7천원



'오래된 미래'라 불리는 땅이 있다. 히말라야의 고갯길에 펼쳐져 있는 인도 최북단 라다크. 춥고 건조한 고산 계곡의 환경은 누구의 접근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듯 혹독하고 극단적이다. 그러나 그 척박한 땅은 티베트고원으로부터 전해진 티베트불교의 원형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 '작은 티베트'로 불리는 붓다의 땅이다. 그 땅에 뿌리 내리고 사는 사람들, 라다키들의 신심과 환한 미소는 그토록 척박한 '극단의 자연환경'을 '경이로운 풍경'으로 받아들였다. 저자인 법보신문 취재부 남수연 차장이 한 발 한 발 걸으며 모은 그 곳의 이야기다.

라다크는 언어학자이며 세계적인 환경운동가인 헬레나 노르베리-호지의 저서 〈오래된 미래〉를 통해 알려졌다. 〈오래된 미래〉는 호지가 1975년 언어 연구를 위해 인도 북부 작은 마을 라다크에 들어갔다가 빈약한 자원과 혹독한 기후에도 불구하고 생태적 지혜를 통해 천년이 넘도록 평화롭고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해온 라다크가 서구식 개발 속에서 환경이 파괴되고 사회적으로 분열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호지는 "인류의 미래를 담보해줄 가치,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 방법을 우리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알고 실천해 왔으며 이제 우리의 미래는 그 가치를 재발견하는 데에서 찾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라다크 사람들의 삶과 문화, 그들의 생각을 통해 전달한다. 이후 많은 사람들이 라다크에 대한 호기심과 동경을 키웠고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라다크라는 이름은 이상향과 맞닿아 있다. 그리고 라다크를 다녀간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이미 관광객들의 수중에 떨어진 지금의 라다크에서, 오래된 미래를 발견하기란 어려울 것."이라고. 하지만 "누구도 그들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려 해서는 안 된다."는 호지의 말처럼 "누구도 그곳에서 원하는 모습만 보고, 원치 않는 모습을 외면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림동화나 모험소설처럼 아름다운 풍경과 흥미진진한 체험만을 생각한다면 나그네는 해발 3,500미터의 고갯길에서 눈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고 저자는 말한다.

오래된 미래의 땅의 이름 라다크는 지도상에서 찾을 수 없다. 라다크는 지명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다크라는 말은 10세기 중반 인도 북부 히말라야의 일부 지역을 지배했던 라다크 왕국의 옛 영토를 중심으로 그곳에 형성돼 있는 독특한 문화권과 그 영향 아래 있는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말이다.

해발 3500미터에 자리 잡고 있어 '하늘 도시'라는 낭만적인 별명을 갖고 있는 라다크의 중심도시 레는 중앙아시아와 인도를 오가던 카라반들이 모여들던 고산지대 교역로의 주요 거점지였다. 라다크의 문화나 관습, 종교적 특징은 전통적으로 티베트에 가깝다. 특히 1974년에 이르러서야 처음 외국에 개방된 덕에 라다크의 독특한 전통, 특히 티베트불교의 특징은 정작 티베트보다도 더 잘 보존돼 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다. 하늘과 땅, 사람과 자연, 그들의 신심과 삶이 하나된 거대한 꽃다발 같은 라다크. 희박한 공기 탓에 더 푸르게 빛나는 하늘과 만년설. 풀 한 포기 없이 황량한 산과 그 거친 환경 속에서 묵묵히 삶을 이어온 사람들, 그들이 지켜온 티베트불교문화 등 '미래'로 남겨두어야 할 땅 라다크의 모습들을 펜과 렌즈로 보여준다.



라다키 여인이 탑돌이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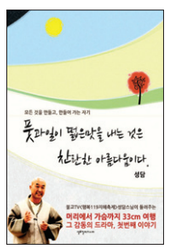
여정은 레를 중심으로 서쪽으로 리키르, 알치, 라마유르까지 이동하며 산재해 있는 불교사원 답사로 시작하여 히말라야에서 발원한 인더스강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라다크의 독특한 자연환경을 집중적으로 기록했다. 이어 중국과의 접경이자 중앙아시아의 출발점인 동쪽의 누브라계곡으로 이어진다. 지구에서 최고(最高)의 자동차도로로 불리는 카르둥라를 넘어 디스켓곰파, 삼텐링곰파와 캬라반들의 흔적을 따라간다. 북쪽으로는 민간인의 출입이 금지된 접경지 최북단 다마을까지 이동, 그곳에 남아있는 라다크 지역 소수민족의 독특한 문화와 역사를 소개하고 있다. 틱세곰파, 스톡팔레스 등 라다크왕국의 중요 불교 및 역사 유적이 남아있는 레 남쪽지역에서는 라다크왕조와 라다크불교의 역사 및 그곳 사람들의 생활을 담았다. 특히 라다크의 주요 불교사원 10여 곳과 왕궁 다섯 곳 등을 현장에서 기록, 라다크의 생생한 모습을 지면으로 소개하고 있다. 스님을 비롯해 청년층부터 노년층에 이르는 다양한 라다키들의 이야기가 그들의 삶과 문화를 생생하게 전해준다. 하늘의 땅일지, 사람의 땅일지. 정녕 우리의 '미래'가 그곳에 있다면 누군가는 가보아야 할 땅, 라다크 이야기다.

박재완 기자

행복의 시작은 자기를 바로 아는 것

풋과일이 떫은맛을 내는 것은 찬란한 아름다움이다

성담 지음 | 셀프컬쳐리서치 펴냄 | 1만5천원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집이 더러운 걸 보고 '여편네가 집구석에서 집도 안 치우고 뭘 하냐'고 화를 냅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화가 나서 '돈도 쥐꼬리만큼 벌어오면서, 집안일은 산더미인데 도와주는 것도 없다.'며 남편 탓을 합니다."

사람들은 행복해지고 싶어 한다. 그런데 누가 행복해지고 싶은 것인가? '자기'이다. 문제는 자기가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책은 잘못된 줄 알고, 잘못한 줄 알고 원망하고 자책하던 삶들에게 찬란하게 아름다운 자신을 알게 하여 바로 보고 바로 듣고 바로 심고 바로 거둘 수 있는 지혜를 전한다. 자기가 가장 아름다운 줄 모르는 풋과일에게 들려주는 따뜻한 햇살 같은 지혜의 말씀들이다. 책은 저자인 성담 스님(효심사 주지)이 불교TV '행복 119 지혜축제'에서 강연한 내용 중에서 자기 이해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전 강의 내용을 더해 엮은 것이다.

저자는 이 책을 읽는 것을 '머리에서 가슴까지 33센티미터 깨달음과 감동의 여행'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감동의 여행이 자신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아직 떫은맛을 내는 풋과일입니다. 누구나 완벽하게 다 잘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맛있게 익어가려면 먼저 '내 탓이다.' 라고 시작해 보십시오. 집이 더러우면 남편이 먼저 '애들 키우고 집안일 하느라 많이 바쁘고 힘들지. 못 도와줘서 미안해.' 해보고, 남편이 화를 내면 '여보, 일하느라 힘들텐데 청소도 못 해서 미안해.' 해보십시오.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소통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기 마련입니다."

책은 '누구 잘못이냐? 대체', '참회의 의미', '나도 다 알아! 안 되는 거지' 등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상황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한다.

박재완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3/6 ~ 3/12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만덕, 만현	현지궁현지사
2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3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4	닦는 마음 밝은 마음(개정증보판)	김재웅	용화
5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6	지금 당장 도법 스님의 삶의 혁명	도법	다산초당
7	마음 닦는 법	김재웅	용화
8	조금 특별한 불교 이야기	자현	불광출판사
9	대원만 수행 요결	직메 최기왐뽀	운주사
10	소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정천구	인라잇먼트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대부분의 병(病), 의외로 치료가 쉽습니다
익생양술대전(益生養術大全)
-천연의약요법전서-



어쩌면 밟고 지나쳤을 그러나 현대의학의 방향을 틀게 한 경이로운 가치가 숨어있는 이 땅의 각종 약초들을 명쾌히 총괄 도감화 했으며 이를 활용한 질병별 처방 및 약성에 따른 응용법 등 전통의약요법 5천년 정수를 총정리, 실용화를 꾀해 집대성함으로써 장구한 세월의 터득과 임상으로 얻은 양질의 천연의술을 누구나 가정에서 손쉽게 활용토록 한 명실공한 자가진단치료 시대를 개막시킬 기념비적 위업!

권혁세 저/ 전3권/ 4×6배판/ 양장본/ 3,600쪽/
할인보급가 24만원(정가 40만원)/ 신용카드 및 현금 분할도 가능

▶1권 약초 편: 1천 종류 약초를 총괄 도해화, 폭넓은 이해를 돕는 본초학도감으로 꾸밈.
▶2권 처방 편: 1천여 각 질병의 원인 증상 설명과 함께 전통민간요법 사상 최고의 처방(22,600여 단방)을 약재별로 제시, 택해 쓰도록 함.
▶3권 조제 편: 당대의 명의(名醫)를 위시, 민가 · 사찰 등에 전수 발전되어온 각종 주침(약술) · 탕전 · 약차 · 식이 요법 등 2,600여 응용치유법 망라.

◆자연과 전통에서 찾아낸 쉽고도 가장 완전한 의술◆

"현대판 동의보감 익생양술이 나왔다" –중앙일보–
"토종약초로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귀중한 유산을 담고 있다" –한방과 건강–
"무병장수를 향한 수천 년 지혜와 연구 노력의 집약판" –한국의약신문–
"건강에 관한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다"–일간스포츠–
"명약이 꼭 비싸고 구하기 어려운 것이 아님을 전통민간요법은 증명하고 있다" –권혁세(저자)–

사람아! 벗어날 수 없는 이 엄혹한 필연을 어찌할 건가.

업(業)



나(我), 어떤 원인으로 나이며
나는 또 어떤 결과의 원인일건가?
알면 삶과 운명이 달라질
그 인과(因果)윤회 이야기!

1. 전생인연의 비밀
2. 사후세계의 비밀
3. 심령치료의 기적
4. 내가 본 저승세계
5. 영계에서 온 편지
6. 영혼의 목소리
7. 전생이야기
8. 빙의령이야기
9. 살아있는 조상령들

지자경 외 저/ 전9권/ 신국판/ 총 3,000여쪽/ 할인보급가 97,000원(정가 121,500원)

불(佛)의 세계



생생히 묘사된 업고(業苦)에 혹자는
전율할 것이며 뼈저린 각성을 하게 될 것!

그림(佛畵)을 통한 강렬하고
즉발적인 깨우침을 겨냥한 기획!
사바의 미몽을 깨우는 불가 교리를
대중 친화적으로 도해(圖解)해낸 역저!!

1. 제불(諸佛 · 관음 고승) 편/ 2. 지옥도 편/ 3. 탕카(탱화) 편/
손기창 외 편/ 전3권(전국주요사찰명부별도)/ 국배판/ 양장본/ 올컬러/ 할인보급가 22만원(정가 65만원)

가장 해박했던 정신이 닿은 불교적 사유(思惟)와 성찰의 정점!

불교명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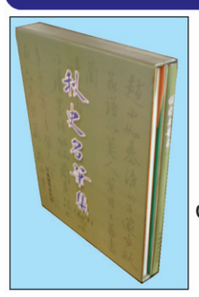


1. 불교란 무엇인가
2. 선이란 무엇인가
3. 부처는 누구인가
4. 관음이란 누구인가
5. 반야심경은 살아있다
6. 선방야화
7. 윤회전생
8. 반야의 문
9. 부처는 어디에 있는가
10. 부처님의 위대한 열반

일붕 서경보 저/ 전10권/ 신국판/ 총 4,500쪽/ 할인보급가 175,000원(정가 250,000원)

서(書)로 도(道)를 이루려한 치열했던 구도자 김정희, 서화사에 가장 우뚝한 분수령 추사 미학의 절창(絶唱)!

추사명필집(秋史名筆集)



"투박한 듯 날렵 경쾌하며
섬세 치밀한 듯 질풍노도인
추사의 그 도저한 경지를
어찌 말로 형언할 수 있겠는가"

한국학자료원 편/ 전2권/ 대형판형/ 양장본/ 할인보급가 13만원(정가 70만원)

모든 성패(成敗), 이것이 핵심
성공하는 사람들
-성공법칙-



여기 그간의 광범위하고 면밀한 조사 연구의 결론으로, 전체를 10개 영역으로 대별해 각 영역별 성공법칙들을 제시한다. 사람과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원리이자 위력적인 이 전략들은, 때로 폐부를 찔리는 아픔일 이 일침들은 당신을 강한 전사(戰士)로, 지혜로운 책사(策士)로 거듭나게 할 것이며 마침내 뜻한 바에 이르게 할 것이다.

한국인재경영연구회 편/ 신국판/ 전10권/ 총3,600여쪽/
할인보급가 99,000원(정가 13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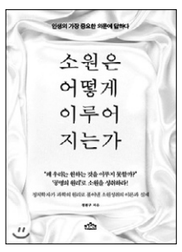
▶인간관계 : 반대자는 곧 협력자다 외
▶자기계발 : 완벽주의자는 위험하다 외
▶대화의 기술 : '알았다!'는 말의 의미 외
▶기획력 : 기획을 망치는 감정이입 외
▶리더십 : 리더십과 통솔력의 차이 외
▶창조력 : 아이디어맨들이 갖는 공통점 외
▶행동력 : 문제는 많지만 세 가지 밖에는 없다 외
▶관리력 : 어떻게 무엇을 꾸짖을 것인가 외
▶인간의 매력 : 가장 큰 약점, 허영 외
▶사업성공 : 장사가 좀처럼 궤도에 오르지 않을 때 외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책
본 시리즈는 직장인 직무능력계발을 위한 학습도서로 선정되어 독서통신교육 교재로 사용되고 있음.

"사람에 대한 명징한 이해 그리고 사람 간에 작동되는 상호 매커니즘에 대한 깊은 통찰에서부터 허를 찌르는 기발한 역발상에 이르기까지 읽으면서 줄곧 몰라 놓쳤던 것에 대한 아픈 자각과 함께 섬광처럼 번뜩이는 힌트를 만나게 된다" –전형찬(누리기획 대표)–

◈ 전화하시면 우송해 드리며 대금은 수령후 송금하시면 됨. 문의전화 02-2618-0700, 070-8811-5775 학술편수관

소원 실체 깨달아 판단력 기르면 성취 가능



소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정천구 지음
인라잇먼트 펴냄
1만5천원

누구에게나 꼭 이루고 싶은 소원 한가지씩은 있다. 돈 명예, 사랑… 등등. 그러나 막상 그런 꿈과 소원을 이뤄내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소원을 이뤄내지 못하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가 이뤄내고 싶은 소원의 실체에는 어떤 원리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

이 책은 '소원성취'의 해답을 역사적 사례를 들며 과학적인 논리와 이치로 풀어냈다. 이 책에서는 저자가 제시한 소원성취 방법인 '소리공명 튜닝'과 '관계공명 튜닝'으로 원하는 바를 이룬 유명 인물들을 만날 수 있다.

세종대왕과 링컨, 혜민 스님과 이혜인 수녀 그리고 스타벅스 CEO 하워드 슐츠 등도 '튜닝'을 통해 소원을 성취했다. 첫 단계인 소리공명 튜닝은 자성을 변화시켜 퀀텀점프를 이뤄내는 방법이며 그 다음 단계인 관계공명 튜닝은 소리공명 튜닝을 통해 변화된 자성으로 새로운 관계의 장을 형성해 원하는 바를 이뤄내는 원리다.

튜닝은 내 소원을 포섭할 수 있는 큰 소원의 원천과 주파수를 맞춰 그러한 힘과 합일하는 방법이다. 양자물리학이 증명한 우주와 인간의 본질을 바탕으로 '퀀텀점프'를 이뤄내 우리 모두가 원하는 바를 이뤄 더 높은 진화를 이뤄낼 수 있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소원성취법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소원이 있고 꿈이 있지만 그것을 이뤄내는 사람은 많지 않다. 다른 모든 자연현상과 마찬가지로 소원을 성취하는데도 객관적이면서 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설명 가능한 법칙이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함에 한탄하는 것이다.

이 책은 우리 모두가 우주라는 홀로그램의 일부분이자 그 자체라는 '전일성'의 원리를 통해 원하는 바를 이루고 행복해질 수 있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냈다. 또한 '함께 울린다'는 뜻의 '공명' 원리가 우리의 삶 전반에 영향을 끼치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실제로는 공명임을 알려줌으로써 과학적 논리와 이치로 풀어내고 있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불행수집가'의 삶을 벗어나 자신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과 올바른 판단능력을 갖추는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하다고 저자는 말한다.

이 책은 '튜닝'이라는 명상법이자 기도법을 올바른 느낌을 키울 수 있는 최고의 자기계발법으로 제시한다. 튜닝의 본뜻인 '조율'이 핵심으로 우리의 감각기관중 가장 예민하고 믿을만한 감각인 청각을 이용한 기도법이자 명상법이라고 할 수 있다.



소원을 이루는데도 과학적 법칙 있어
'전일성'과 '공명' 원리…성취 비결
링컨 등 유명인들 '튜닝' 통해 성취

소원한 만큼 진화할 수 있다

모든 종의 정보가 통합돼 있는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어떤 종은 간절한 소원의 결과로 필요한 정보를 얻어 놀라운 진화를 이뤄낸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모두는 변화할 수 있으며 지금도 진화해 나가는 것이다.

소원은 '공명' 통해 이뤄져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함께 울린다'는 뜻의 공명은 모든 물체를 비롯한 생명체가 고유의 진동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과 같은 진동수를 만나면 진폭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현상이다. 이 책에서는 공명의 원리를 이용해 둔재가 천재가 되고, 불치병을 치료하며, 마음먹은 것을 이룸은 물론 행복해 질 수 있음을 실제 사례들과 동서양에서 발견되고 정립된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의 사례들을 바탕으로 설명해 내고 있다.

아무 소원이나 다 이뤄지는 것 아니다

이 책에서는 개인의 소원능력을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먼저 분별력, 추리력 그리고 판단력을 높이는 법을 알려주고 다음으로 '소리공명 튜닝'이라는 명상법이자 기도법을 가르쳐준다. 또한 소원관계망을 건설하는 방법으로서 '관계공명 튜닝'이라는 놀라운 소원의 기술을 알려준다.

두 가지 튜닝법을 익혀 '퀀텀점프' 하라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할 때 가장 손쉽게 생활 속에서 공명과 전일성의 체험을 이끌어내고, 모든 재앙을 소멸함으로써 우리 스스로를 진화시켜 나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튜닝'이다. 튜닝의 원리는 음악을 연주하는 것과 같다. 튜닝의 본뜻인 '조율'이 핵심이다.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것도 튜닝이라고 한다. 튜닝은 우리의 감각기관 중 청각을 이용해 소원을 이루는 최선의 기도법이자 가장 간단하고 손쉽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연마할 수 있는 자기계발법이다. 이 책은 과학적 법칙이자 방법인 소리공명 튜닝과 관계공명 튜닝을 통해 누구나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음을 보여준다. **김주일 기자**

방송인이 가까이서 바라본 부탄의 속살과 행복지수

행복한 라디오

리사 나폴리 지음 | 김유미 옮김
수이북스 펴냄 | 1만3500원



2010년, 영국에 있는 유럽 신경제재단(NEF)이 각 나라의 행복지수를 조사해 발표했다. 1위를 차지한 나라는 바로 부탄. 국민 100명 중 무려 97명이 '나는 행복하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한 작은 나라 부탄은 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된 것일까.

이 책은 저자가 우연한 기회에 부탄에서 일하게 되고, 부탄과의 인연을 꾸준히 이어 가면서 보고 느낀 것들을 담은 책이다. 라디오 뉴스 리포터로 일하던 저자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 허우적대며 살아가고 있었다. 오랜 방송 생활은 그녀의 모든 경험을 뉴스 아이템으로 전락시켰고, 인간관계를 뉴스 자원으로만 생각하게 했다. 미디어라는 이름의 복잡하고 소란스러운 색안경이 그녀를 지치게 하고 있었다. 게다가 더 많은 소비를 위해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하는 악순환과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자신의 모습은 분명 무언가 잘못 되어 있었다.

그때 그녀는 부탄에서 일해 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고 부탄행 비행기에 올랐다. 이후 몇 년 동안 그녀는 부탄을 오가며 실제로 행복한 삶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단지 화려한 구호나 마케팅이 만들어 낸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느낀 것을 이 책에 덤덤히 써 내려갔다.

그녀가 가까이에서 바라본 부탄이라는 나라는 낯설기만 했다. 국민들에게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며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은 왕과, 그런 국왕의 결정을 환영하기보다는 망연자실해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충격이었다. 화폐 가치를 중시하는 국민 총생산(GDP) 대신 국민 총행복(GNH)이라는 기준을 만들어 행복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온 국왕은, 국민의 희생을 대가로 하는 경제 발전은 진정한 발전이 아니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자연 보호를 최우선 가치에 두고 모든 여행자에게 하루에 200달러씩의 세금을 물리는 것도 독특했다. 너무 많은 여행객이 입국하면 자신들만의 문화를 해치고 자연이 훼손된다는 이유였다. 사실 부탄 여행이 허가된 것은 1970년대부터였고, 국제화폐, 도로, 학교, 공항, TV 등은 모두 그 이후에 도입된 것이었다.

그녀가 부탄에서 해야 할 일은 부탄에 처음으로 문을 연 라디오 방송국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었다. '쿠주 FM'이라는 이름의 이 방송국은, 방송국을 세우고 싶어 하는 이들의 요청을 받은 황태자가 자신의 자동차를 팔아 마련한 돈으로 세워졌다. 비록 저자가 일하던 미국의 라디오 방송국에 비하면 시설이 보잘것없었지만 운영 방식과 청취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미디어에 지쳐서 부탄행 비행기에 오른 저자는 아직 미디어 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미디어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회의를 느끼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순수함에 마음을 열며 잘 적응해 나간다.

그렇다면 급격한 변화에 맞닥뜨린 부탄은 과연 행복을 이어 갈 수 있을까? 서구 문물은 빠른 속도로 부탄에 상륙했다. TV와 라디오 방송이 시작되며 사람들은 점차 도시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전통 문화 대신 서양 문화가 사람들의 삶에 파고들었다. 사람들은 점차 돈이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젊은이들은 서양 국가로의 이민을 동경했다.

저자는 부탄의 긍정적인 면만을 포장하지 않는다. 부탄 사람들이 침묵하는 네팔계 이민자들의 문제,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미국에 대한 동경을 보이는 사람들의 이야기, 컨설팅 회사에 국가 발전 청사진을 의뢰한 정치인들의 이야기 등을 통해 부탄의 감춰진 면도 바라보려고 애쓴다. **김주일 기자**

▲저자 리사 나폴리는?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나 햄프셔 대학을 졸업했다.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공동체의 심층부를 파헤치는 일에 매력을 느껴 언론인이 되었다. CNN, MSNBC, 「뉴욕 타임스」 등에서 리포터 및 칼럼니스트로 일했으며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도 했다. 40대에 접어들어 삶에 회의를 느끼기 시작할 무렵 부탄을 알게 되었고, 우연한 기회에 부탄 최초의 라디오 방송국에서 일하게 되었다. 현재는 뉴욕의 공영 라디오 방송국에서 일하며 부탄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 건립을 준비하고 있다.

평소 생활 습관부터 바꾸면 인생 심플해져

심플한 생활의 권유

마스노 슌묘 지음 | 김혜진 옮김 | 더난출판 | 1만3천원



이 책에서는 그 무엇에도 사로잡히지 않고, 치우치지 않으며, 얽매이지 않는 심플한 인생을 위해 먼저 나 자신을 바꿀 것을 권유한다. 저자는 평소의 생활을 조금 변화시키는 것만으로 나 자신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습관과 관점을 약간만 바꿔도 마음을 씻고, 인생을 가볍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실천 지침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명상, 좌선 등 정신집중의 수행방법인 '선(禪)'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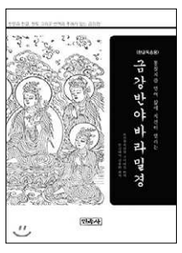
이 책의 저자는 일본 조동종 겐코지의 주지이자 정원 디자이너로 활동 중이며, 선 사상과 동양적 전통 문화를 바탕으로 한 '선의 정원' 창작 활동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 저자가 이 책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선의 철학은 너무나 소박하고 간소하다. 저자는 선이야말로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근본이 되는 가르침으로 즉,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한 습관이며, 사고방식, 삶의 지혜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현학적으로 어렵게 풀어낸 '선'의 사상을 덧입힌 책을 몇 권 읽기보다 이 책에서 제안하는 100가지 단순한 삶의 실천을 통해 가벼운 수행의 자세를 권하고 있다.

저자는 쳇바퀴 도는 일상 속에서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 선적 생활의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나에게 필요 없는 물건 하나를 버리는 것만으로 마음이 씻겨나가며,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행복한 마음으로 살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저자는 '멍하니 있는 시간 갖기' '15분 일찍 일어나기' '아침 공기 제대로 맛보기' '벗은 신발 가지런히 놓기' '글자를 정성껏 쓰기' '식사 소홀히 하지 않기' '맨발로 생활해보기' '천천히 호흡하기' '저녁노을 바라보기' '물건과의 인연을 소중히 하기' 등 심플한 인생을 위한 100가지의 선적 생활을 제안한다. **김주일 기자**

초심자 독송 위해 편역한 〈금강반야바라밀경〉

금강반야바라밀경(한글독송용)

요진천축삼장 구마라집 한역 | 김종학 편역
민족사 펴냄 | 9천원



경전 독송은 우리나라 불자들이 많이 하는 수행법 중 하나다. 그러나 한문으로 된 경전 원문을 읽고 이해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한글로 풀이된 경전을 본다고 해도 그 뜻이 쉽게 와 닿지는 않는다. 이번에 민족사서 출간된 한글독송용 〈금강반야바라밀경〉은 〈금강경〉 가르침을 이해하면서 독송할 수 있도록 기획된 책이다. 따라서 독송 하면서 경전공부를 동시에 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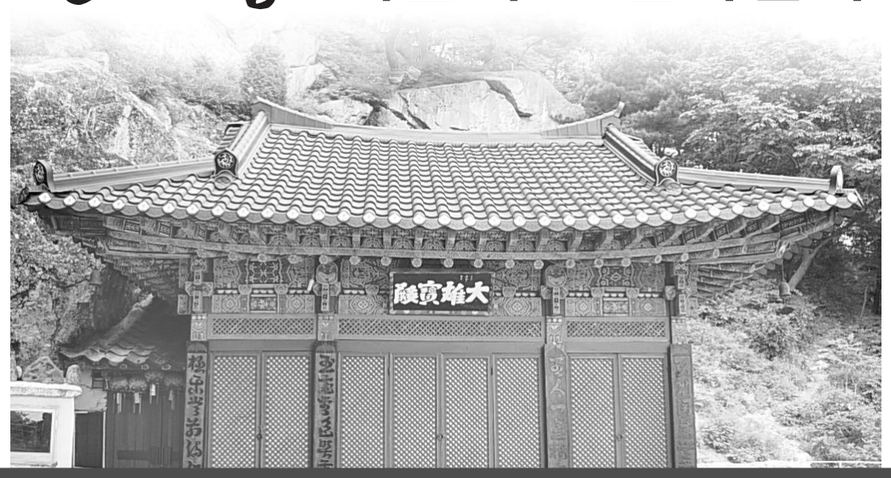
〈금강경〉은 대한불교조계종 소의경전이자 우리나라 불자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경전이다. 하지만 그 심오한 깊이 때문에 사람들이 자주 접하면서도 심리적으로 거리감을 느낀다. 이 책은 이러한 거리감을 없애고 쉽게 이해함으로써 독송을 생활화하기에 적합하게 한문과 한글, 현토, 그리고 번역과 주해가 일목요연하게 편집되었다.

한글번역은 시중에 유통 중인 많은 자료들을 참고해 초심자도 이해하기 쉬운 해석을 골라 선택했다. 저자인 김종학 선생은 이 책을 초심자들의 금강경 독송에 작은 보탬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출간했다고 한다.

이번 책은 저자가 2007년부터 수차례 수정 보완해 법보시하던 것을 독송용으로 재편집한 것이다. 이 책은 한역고려재조대장경 각판 영인본 중 구마라집 스님의 한역본을 저본으로 하고 행별 자수도 소명태자의 삼십이분과에 따름으로 인한 몇 곳 외에는 한역고려재조대장경 각판 행별 글자수와 같게 배치한 것이 큰 특징이다. 시중에 유통 중인 독송용 경전과 다른 곳은 난외에 따로 표시를 했다. 또한 2009년에 발간된 대한불교조계종 표준금강경에는 있으나 이 책의 저본인 고려재조대장경각판본에는 없는 것도 별도로 표시해 초심자들의 혼란을 줄여주고 있다. 권말에는 금강경 전체 줄거리에 대한 해설과 정리, 독송을 하는 방법도 소개돼 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지장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성 화 불 교 예 술 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서비스] 검색 →
114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주·야 상담 합니다



삼국유사 인문학 유행(遊行)

처용이 '처용가'를 지은 까닭은?

신라 서민층 타락 깨우치려는 경고

1. 처용은 누구인가

『삼국유사』「기이」편은 국가의 흥망에 관한 신이한 역사를 다루고 있다. 특히 이 편에 실려 있는 '처용랑 망해사' 조목에 대해서는 무속학적 관점, 불교학적 관점, 역사학적 관점 등 다양한 측면과 방법으로 고찰하고 있으며 결론 역시 여러 가지로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연구의 방향은 대부분 처용랑과 처용가에 대한 연구로 귀결되고 있다. 그렇다면 일연은 어떠한 의도에서 처용설화를 수록했으며 그것을 왜 「기이」편에 실었을까? 「기이」1이 건국 시조 기사들에 대해 집중하고 있는 것과 달리 「기이」2는 나라의 몰락과정을 다수 기록하고 있다. 신라 중고기(中古期)까지 불교의 르네상스를 경험하였던 신라는 하고기(下古期)가 시작되는 선덕왕과 원성왕대부터 기강이 해이해지고 망국의 조짐이 잇달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신라 말기에 재위한 헌강왕(875~886)은 총명하고 후덕한 왕이었지만 귀족세력을 압도하지는 못하였다. 당시 신라의 귀족들은 점차 경제권과 사병을 기반으로 세력을 확장하여 왕권에 맞섰다. 재위 5년에는 일길찬 신홍(信弘)이 배반하다가 사형을 받았다.(『삼국사기』). 왕은 멈추지 않는 귀족들의 향락에 불안을 느껴 개운포로 순행하자 때마침 동해용이 나라의 위태로움을 경고하였다. 때문에 처용랑 망해사 조목은 이 연장선에서 해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앙 귀족들의 향락에 영향을 받아 점차 일반 서민 계층까지 윤리적으로 타락해 갔다. 그러자 신라의 호국신들이 나타나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경고를 주었다. 하지만 나라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상서러움으로 이해하여 더욱 유흥에 빠져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시 전성시의 신라 서라벌 규모는 1360방 55리였으며 인구는 17만 8936호였다. 또 왕권에 견줄만한 권세를 누리던 유력 진골층은 35개의 호화저택인 금입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헌강왕대 역시 35개의 금입택과 사절유택이 있었다. 이들 진골층은 3000여명의 노비를 거느리고 1333결의 쌀을 절에 희사할 정도로 넓은 논을 소유하였다. 뿐만 아니라 저 남태평양과 인도 및 아라비아로부터 수입한 바다거북과 공작깃털 및 사파이어 등으로 금입택을 치장할 정도로 사치와 번영을 독점했다. 그러다보니 경주에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집이 촘촘하여 담장이 이어져 있었고 초가는 하나도 없었다. 풍악과 노래 소리가 길에서 끊이지 않았고 바람과 비도 사시사철 순조로웠다.

이때 대왕이 개운포에 놀이를 갔다. 왕이 어가를 돌려오다가 낮에 물가에서 쉬고 있는데 홀연히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길을 잃어버렸다. 황이 괴이하게 여겨 측근의 신하에게 물으니 일관이 말하였다. "이것은 동해용의 변덕이오니 마땅히 좋은 일을 행하여 풀어야 할 것이옵니다." 이에 관원에게 명하여 근처에 용을 위한 절을 짓게 하였다. 왕의 명령이 내려지자 구름이 걷히고 안개는 흩어져버렸다. 그래서 그곳을 개운포(開雲浦)라고 이름을 지었다. 동해용이 기뻐서 곧 아들 일곱을 거느리고 임금이 탄 수레 앞에 나타나 왕의 덕을 찬탄하고 춤을 추고 음악을 연주했다. 그의 아들 하나가 왕을 따라 서울로 와서 왕의 정치를 도와 주었는데 그 이름을 처용(處容)이라고 했다. 왕은 아름다운 여인을 그의 아내로 삼게 하고 그를 머물게 하고자 다시 급간(級干)이라는 관직도 주었다. 그의 처는 매우 아름다워 역신(疫神)이 그를 흠모하여 사람으로 변한 뒤 밤이면 그의 집으로 가서 몰래 그녀와 잤다. 처용이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와 두 사람이 누워 있는 것을 보았다.

2. 신라의 국제교류

"서라벌 밝은 달에/ 밤새도록 노닐다가/ 들어와 자리 보니/ 다리가 넷이로다./ 둘은 내것인데/ 둘은 누구인가./ 본래 내것이지만/ 빼앗긴 것을 어찌하리." (양주동 역) 이에 처용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물러 나왔다. 이때 역신이 형체를 드러내어

처용 이란 사람 가능성 높아
신라 말 국제교류 반증



울산 대표축제 처용문화제에서 처용무의 시연 장면.

처용의 앞에 꿇어앉아 말하였다. "내가 공의 아내를 탐내어 지금 잘못을 저질렀으나 공은 노하지 않으니 감격스럽고 장하게 여겨집니다. 맹세코 이제부터는 공의 모습이 그려진 것만 보아도 그 문안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나라 사람들이 처용의 형상을 문에 붙여 나쁜 귀신을 물리치고[辟邪] 경사스러운 것을 맞아들이게[進慶] 되었다. 왕이 돌아와서는 곧 영축산 동쪽 기슭에 좋은 자리를 잡아 절을 세우고 망해사(望海寺)라고 불렀다. 더러는 신방사(新房寺)라고 했는데 이는 용을 위하여 세운 것이다. 여기서 동해용은 누구이며 처용은 누구일까?

신라는 일찍부터 국제교류가 활발했던 나라였다. 경주 서라벌의 관문인 울산 개운포는 외국인들이 드나들었던 국제항구였다. 서기 645년에 서역의 강대한 제국이었던 사산조 페르시아가 무너졌다. 사산왕조의 태자 일행은 왕조의 복원을 염원하며 당나라로 망명하였다. 당 황실은 새롭게 들어선 왕조와 교류를 개시하면서 사산조의 태자 일행을 홍콩 아래인 해남도(海南道)로 이주시켰다. 이후 이들 태자 일행은 다시 배를 타고 신라로 들어와 신라 공주와 결혼해 살다가 돌아가 나라를 되찾았다고 적고 있다. 이란의 가장 주요한 구전 서사시인 『쿠쉬나메』((Kush-name)는 총 1만 129 쿠플레(對句)가 넘는 방대한 양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가운데 신라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곳은 1만 219절 중에서 2011~5925절이다. 이 서사시가 다루가 있는 시대와 지역 및 분량은 매우 광범위하여 일부 연구자는 16세기(1517년?) 이래 청나라에서 만들었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 그렇다면 신라 김(金)씨와 금(金, 後金, 淸)나라 및 이란 페르시아와의 연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여기에서는 7세기 이후부터 10세기 전반에 걸치는 신라 하대까지 언급하고 있다. 그가 머문 곳을 '신라' (silla) 또는 '바 실라' (ba silla)로 적고 있으며 '바' (ba)는 '아름다운'(good)을 뜻하는 형용사이다. '쿠쉬' 는 중국왕의 이름이며 '나메' 는 책[書]이란 뜻이다. 이 서사시에서 "신라 법에 이방인(아비틴)에게 딸자식을 내주지 않아요. 내가 딸을 내준다면 귀족들이 우습게 볼 겁니다"라고 한 기록처럼 여러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왕은 끝내 처용에게 딸(프라랑)을 주자 이를 반대했던 세력이 처용의 아내를 범한 것은 아닐까. 집에 들어와 이 광경을 본 이방인 처용이 노래와 춤을 통해 자신의 문화 방식으로 분노를 해결한 것은 아닐까. 사산조 페르시아 멸망 이후 이란 유민이 중국을 거쳐 신라로 망명하게 된 것은 처용설화가 전하는 신라의 헌강왕 시대이다. 이것은 사산조 페르시아 멸망 이후와 시대를 같이하는 것이며 처용의 아랍인설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삼국사기』에서는 헌강왕 5년 3월에 "나라 동쪽의 주군(州郡)을 순행할 때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네 사람이 나타나 가무(歌舞)를 하는데 그 얼굴과 옷차림이 해괴해 산해(山海)의 정령(精靈)이라 하였다"라는 대목이 있다. 『삼국유사』에는 울산의 개운포라는 지명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고 "자욱한 안개와 함께 헌강왕 앞에 나타난 존재가 동해 용왕과 일곱 아들이며, 그 중 막내를 경주에 데려와 급간(級干) 벼슬을 주고 아름다운 아내를 맞이하도록 했다"고 적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쿠쉬나메』에서 아비틴이 이란 유민들과 함께 "신라로 기항해 항구에서 신라왕 타이후르의 아들 가람의 영접을 받았으며, 왕정을 보좌하고 왕과의 돈독한 사이를 유지하며 신라의 공주 프라랑과 결혼한다"는 내용과 유사하다. 당시 헌강왕은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려 했으나 황소(黃巢)의 난으로 보내지 못하였다. 하지만 일본국 사신을 맞기도 하는 등 국제교류가 원활했으므로 아랍인과 교류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3. 「처용가」의 해석

헌강왕이 포석정에 행차했더니 남산의 신(神)이 왕 앞에 나타나 춤을 추었다. 주위 신하들 눈에는 보이지 않고 오직 왕의 눈에만 보였다. 어떤 사람(신)이 왕 앞에서 춤을 추자 왕 자신도 신이 추는 모양대로 따라 춤을 추었다. 신의 이름을 '상심' (祥審)이라고도 했으므로 지금까지 나라 사람들이 이 춤을 전해오면서 '어무상심' (御舞祥心)이라고도 하고 '어무산신' (御舞山神)이라고도 한다. 혹은 말하기를 원래 신이 나와서 춤을 출 때 그 모습을 자세히 본떠[審象] 조각하는 공인에게 그대로 새기도록 하여 후대에 보였으므로 '상심' (象審)이라고 했다. 더러는 상염무(霜髯舞)라고도 했는데 이것은 그 형상에 따라서 이름을 지은 것이다. 왕이 또 금강령(金剛嶺)에 행차했을 때 북악신이 춤을 추어 보였는데 춤 이름이 '옥도검' (玉刀鈐)이었다. 동례전(同禮殿)에서 연회를 할 때에 지신이 나와

처용설화는 당시 신라의 타락 상징
그럼에도 중앙귀족 환락이어가

서 춤을 추었으므로 춤 이름을 '지백급간' (地伯級干)이라고 했다.

처용 설화를 기술한 일연은 다시 『어법집』을 인용하여 "이 당시 산신이 춤을 추면서 부른 '지리다도파도파' (智理多都波都波)라는 말들은 대개 '지혜[智]로 나라를 다스리는[理] 사람들이 미리 알고 많이[多] 도망[都->逃]하여 도읍[都]이 장차 파괴[波->破]될 것이다' 고 말한 것이라 한다" 하였다. 그런 뒤에 "이에 지신과 산신이 장차 나라가 망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일부러 춤을 추어 경고한 것인데도 나라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좋은 징조가 나타났다 하여 유흥에만 너무 빠져 있었다. 그래서 끝내 나라가 망했던 것이다"고 하였다. 여기서 왕에게만 보였다는 것은 아마도 그들이 나라의 호국신들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서라벌 밝은 달에/ 밤새도록 노닐다가/ 들어와 자리 보니/ 다리가 넷이로다./ 둘은 내것인데/ 둘은 누구인가./ 본래 내것이지만/ 빼앗긴 것을 어찌하리." 「처용가」에 대한 해석에 큰 쟁점은 없다. 다만 처용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학설이 구구하다. 양주동은 『고가연구』에서 '처용' 은 원뜻은 "한자의가 아닌 '제융' 혹은 '치융' 이란 말에서 그 원뜻을 찾아야 한다"고 하였다. 김용구는 '數' (징)에서 '용' 이 되었다고 하고, 엄원대는 "용이 머문 곳의 뜻인 '처용' (處龍)에서 '처용' (處容)으로 변화했다"고 하였다. 김영수는 '터' [處]+알[下]+바가지[容]에서 '하' (下)가 생략되어 '처용' 이 되었다고 하였고, 김동욱은 "용신제의 사제자인 무당 즉 자차충(次次雄) 곧 자충(慈充)에서 처용이 나왔다고 했다. 이용범은 "이재술에 능한 이슬람 상인"으로 보았다. 실크로드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정수일은 '처용' 이 서역인, 즉 '아라비아인' 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전승되어 오는 처용탈의 모습이 아랍인의 형상에 가깝고, 헌강왕 당시 개운포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드나들던 국제 무역항이었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이것은 『쿠쉬나메』에서 중국으로 숨어든 이란 유민들이 신라의 항구를 통해 이주했다는 내용과도 일치한다. 이어 『삼국유사』가 기록하고 있는 여러 춤들도 서역의 페르시아 춤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 조목에서 일연은 신라의 국망에 대한 수호신들의 경고를 상서로움으로 알고 유흥을 멈추지 않은 신라에 대한 안타까움을 감추지 않고 있다. 경주에 정착하여 왕을 보좌하는 처용이 유락(遊樂)에 빠져 밤늦도록 놀러다니자 성적으로 문란한 그의 처와 타락한 인간을 상징하는 역신의 교접을 통해 서민계층의 윤리적 타락상을 보여준 것은 아닐까. "둘은 누구 것인가"는 너의 정체성을 드러내라는 주가적(呪歌的) 언표이며, "빼앗은 것을 어찌하리오" 하면서 춤을 추고 물러나는 것은 분노와 허탈을 극복하여 조용히 체념하는 초월의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짐작된다. 결국 처용의 관대한 대응에 역신이 개오(改悟)하여 무격(巫覡) 사회에서 처용은 존숭의 대상이 되었고 민간에 널리 퍼져 문신으로 추앙되었다. 그 결과 사기를 물리치고 경사로 나아가는[辟邪進慶]의 무속과 처용무의 민간적 풍속을 낳았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중앙귀족들은 소비적 기풍과 퇴폐적 환락 생활을 통해 그 불안을 잊고 태평을 가장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결국 신라는 망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일 연, 『삼국유사』, 권상로 역주(동서문화사, 1978; 2007; 2010).
양주동, 『고가연구』(일조각, 1975).
김완진, 『향가해독법연구』(서울대출판부, 1983).
이도흠, 『신라인의 마음으로 삼국유사를 읽는다』(푸른역사, 2000).
이범교, 『삼국유사의 종합적 해석(상)』(2005; 2007).



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스님…
대출이 필요하십니까?

- 사찰매매 잔금 대출
- 불사 자금 대출
- 기타 대출 상담

전문상담 : 전무 서일영 010-3527-1037
차장 정종철 010-2543-1037

사찰안내

경북 영덕군 영덕읍 천전리 118-1번지 외
- 토 지 1,220평
- 대웅전 45평
- 요사채 38평
- 매매가 7억 5천만원

전문상담 : 전무 서일영 010-3527-1037
팀장 장재영 010-4505-7180

보현사신협
문의전화 (053)428-1133

제2기 영남 불교의식 (범음·범패) 학인모집

본 금수사 불교의식교육원에서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 정
초급과정 : 도량석, 쇳송, 천수경, 상단불공, 각단예불, 불공의식
중급과정 : 사물 (광쇠, 법고, 태징, 목탁) 요잡, 시다림
고급과정 : 49재, 천도재, 점안식, 예수재

작법무 (중급과정 부터)
1. 천수바라
2. 오공양 작법, 요잡바라
3. 화의재바라

개 강 일 시
2013년 3월 7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2시 ~ 오후6시까지)

■ 주소 : 부산 동구 초량6동 843 금수사
■ 전화 : 051)467-3316 종무소. 010-8526-3356

행자 모집합니다

대한불교원효종 대본산 금수사 영남범음범패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www.yangjikukak.com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해가 떠오를 때까지 잠을 자고 게으르고 늦은 달밤에 돌아다니고
사치스럽게 살고 행실이 바르지 않으면 손해만 있을 뿐 전혀 이익이 없어라.
다른 사람을 정복하는 것보다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 훨씬 훌륭하다.

– 법구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 (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동양철학 특별할인 판매
동양철학 – 서화당인생풀이 Ver 2.2
(인장성명학과 네오헬스 CD 제공)
동양철학CD, 만세력 2045년까지 구성
생년, 월, 일, 시만 알면 *인생풀이가 척척*
인생총운, 가족운세, 애정운, 건강운 등
총44만원을 *50%할인 후* -> 22만원
www.사주천하.com
익일특급배송 010-8888-4684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빙의(신병)출장 퇴마해 드립니다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허리병 고치는 법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출원
아픈분 및 배울분은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쑥뜸방, 돌뜸방 기술지원
50년전통 011-829-7582

찬찬히 잘 읽어 보세요
오래된 위장병. 대장질병. 심장병. 당뇨병. 간질. 화병. 우울증무기력. 부부문제. 정신질환. 피가 탁해서 생긴 신장병. 신내림 병. 임신이 어려워 고생하는 불임증. 강박증. 성기능 장애 불면증. 비만. 강박장애. 암투병 등 몸과 마음이 힘들어서 고생하는 환자
문제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메모하고, 연락하세요
Medicine Buddha MindOne (마인드원)
032) 434-5990
010-8730-5690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49재회향·바라무·
점안식·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기문둔갑 강의
역학을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기문비법을 전수합니다.
사업자, 성패에 대해서, 학업생 학과 선택, 남여결혼문제, 부부문제 등
세밀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스님직접 강의. 수시모집
011-544-9777
051)721-6444

지리산 청학동 (자비수양원)
황토방과 건강치료설비를 갖춘 수양원에서 식이요법 및 유기농 식단 등으로 병을 치유하시고 건강을 되찾고 싶으신 분들께선 많은 연락바랍니다
* 또한 암자에서 참선수행 하실분 편안한 마음으로 언제든 찾아주십시요
011-759-0183
010-8484-6124

전통사찰 등록
문화재 등록
법인 종교법인 등록
법인 아닌 법인 등록
서 류 대 행
010-9476-9001
성산개발

동영상 역학 강의
용신, 실전사주. 고급 – 일진내정법 (명반법, 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성명학, 저렴한 수강료.
단기간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음
범 천 명 리 강 의 실
02)389-6597
www.beumchun.com

백발 백중 정확한 비방술을 출판하였다
*일반서점에는 공급하지 않습니다
• 정가 25만원
농협 : 352-0284-3938-73 하영옥
010-4735-3232

쉼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립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2766-7677

모든 영가장애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목신
고통, 불안초조, 주의력 결핍,
약효가 없는 분, 병명이 바뀌는 분,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
병원 치료가 어려운 분.
43년 이상 된 염불 수행자
010-5912-2377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영통철학 1개월 완성
○ 개인지도
○ 교육 후 바로 상담 책임지도
○ 동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010-2586-7938

상 담 안 내
여러분의 영적세계는 편안하십니까?
신통력으로 운명 예견 고민해결
전화상담 가능
대구은행 : 087-13-035968
010-2125-4684
(사주팔자)

범음범패 학인모집
초급, 중급, 고급반
실전위주 최단기간 교육
사찰행사 접수 받습니다
(49재, 천도재, 회심곡 등)
법선암 (부산 진시장 앞)
010-6569-1010

양 도 공 고
(법원 등기된 종무법인임)
법인불교단체 양도
법인종단 양도
불교법인 양도
011-412-8040 법광

(사)금조선원 종무직원 모집
사무장(유경험자),
공양주2명(유경험자)
(분당 태재고개)
010-6440-4085

한문으로 된 불교대장경과
고려대장경을
매입 소장 하실분은
꼭 필요하신 분만
전화 바랍니다
010-4383-5077

부처님 잘 모실분
금부처 아미타불,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삼보 궤불탱화
절 사용도구 일체 시주합니다.
소중히 잘 모실 분
연락바랍니다.
010-5009-1772

범음범패 학인모집
실전교육
천수바라,작법(나비무),
송주북,정근북,태징및법고
사찰행사 점안 천도재
(경남 양산시 주남동)
금륜사
010-7579-8200

신통력과 사십일
• 이 기도법을
원하는 스님에게 일러드립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사 주 운 세
10초 내 맞추면 수강 (여자) 신청하시고
상담은 통장 입금 상담
교재 : 사주첩경(이석영)통달
010-5498-5067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풍수지리 작명 수강생모집
주역,풍수지리, 관상, 작명의 달인인
백운선생이 부산 무량사에서 직접 강의함.
풍수지리 – 매주 목 7시~9시
작 명 – 매주 금 7시~9시
문의 : 051)638-9678 , 010-9310-6780
주소 : 부산 남구 문현1동 54-5번지 2층

행 자 모 집
(40~60세 미만),
기도스님 모심
천년고찰 향림사
(순천)
061)752-6380
010-4608-5945

구 직
공무원 34년 정년퇴직
사찰근무경력 3년
자동차 운전면허 1종 소지
신심으로 일하겠습니다
011-716-7885

인비록人秘錄 – 죽어서 가는 길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 이제는 신(神)의 세계를 바로 알고 자신의 죽음 이후 사후세계를 준비해야 한다!!!
• 사람 몸 안에 사람을 지배하고 아프게 하는 존재인 악신이 있다!!!
• 신 내림을 통해 악한 신을 받을 것이 아니라 성신의 도로 싸워야 한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예스24 등)

神내림 받아야 할 운명은 없다

모든 (동자, 조상, 장군)신 등을 처리하고 제도.
전생, 천도, 우울증, 빙의, 산소, 집터, 神내림 해결.
053)623-2202. 010-5159-5778
TV다수출연 (대구 남구 대명동)
네이버 블러그 : 한마음 세성제

주 지 모 집
자 격 : 법당 10년 이상 경험있는 비구, 비구니로 본 사찰 중창불사에 전념하실 수 있는 사람.
대 우 : 종신 주지 및 사제 상승 보장 (단, 노스님 모시는 조건)
재 산 : 법당 70평, 요사 100평, 회관 100평, 종무소 30평, 대지 1천평, 농지 1500평, 임야다수
위치 : 경기도 퇴촌 010-9167-744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2)2234-2198
010-8721-2198

조그마한 절입니다.
절 운영하실 스님이나
기도스님 모십니다
(포항 흥해읍)
010-3194-7969

한국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동대문, 감포, 영천, 미국, 중국, 호주, 이스라엘
▶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직강!
– 목요일 저녁반, 화?금요일 오전반
– 실참(기도,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희 힘"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 문의 053)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 모집 ☎ 010-9562-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불사용(佛事用) 달마도 보급안내

규격 : 40 cm * 60 cm
불사하시는 스님들을 위하여
청암 친필 달마도를
정성껏 저렴하게 그려 드립니다.
보급처 051)202-8770. 010-2953-8770
부산청암달마원
*달마도 전문 표구사 직영합니다.

제11기 지도자양성 부업봉사자
무엇이든 물어보셔요
가정, 회사방문 상담과 기도해 드림. 치매, 암예방, 가족갈등, 대학입시, 취업기도, 비만, 스트레스, 새학기 입학기도.
010-2353-2010, 010-6703-9904
010-3033-8889, 010-5523-9181
꿈바위불교교육원
010-6789-5008
대전,서울,부산,대구

아담한 토굴에서
공부하며 수행기도
하실 50~60세 보살님
연락주세요
018-270-4557
010-4279-4557

비구니 주지스님 및
비구니 초보
부전스님 모십니다.
공양주 모십니다.
(경남 거제)
010-7169-9878

932호 | 불자정보

TEL 02) 2004-8215(直) FAX 02) 737-0696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의령
• 건물: 법당 25평, 요사 방2, 20평
• 평수 450평
• 삼존불, 산신, 용왕, 목탱화, 노천약사여래불
• 가액 : 2억
010-4258-655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의 중심지인 수성구에 有
• 지하철 5분거리(도보)
• 평수 : 상가건물 4층(43평)
• 시설 : 일체 완벽(몸만 오시면 됨)
• 보증금 : 4000만원(월 30만)
• 시설비 : 답사 후 조정
010-2110-2555

종 교 관 련 시 설 터
• 요양시설, 수련원, 선방, 포교원 등
• 서울 은평구 진관동 (북한산 자락)
• 평수 400평(대로에서 200m)
• 건물 : 약 40평 있음
• 특징 : 산 밑에 위치한 산세수려한 조용한 곳
• 가액 : 15억 • 신축도 가능합니다
011-372-7744

좋은인연 대출안내

33년의 역사와 자산825억원의 형산새마을금고는 변함없이 전국의 많은 사찰과 좋은인연을 맺고 있으며 늘 불교와 함께하는 은행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어 좋은 인연되기를 소원합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❶ 대출이자 ☞ 1억 대출시 최고 58만원
❷ 대출기간 ☞ 5년 (만기시 연기 가능)
❸ 근저당설정비 ☞ 면제
❹ 대출지역 ☞ 전국 (제주도포함)
❺ 단체명의, 종단 소속사찰 모두가능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상무 이 강 욱
☎ 010-9842-4200
과장 김 상 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무형문화재 범음범패
(사) 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본산
제 9호 영산재 연수원(바라 작법) 3개월 과정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제9호 천수바라 오공양작법무 사물 불교의식
특전 1) 본교(졸업)우수한 자는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추천
2) 부산시 문화재행사 출전 실무
3) 다게 • 운심게 작법반
사찰행사 전문 (점안대법회, 산신, 수륙대재, 천도(49)재)
부전스님 사찰 연결드림 총무스님 010-5511-7000

사찰 운영하실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철학(명리)
가능 한 스님
(부산)
051)266-0318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경북 영주)
010-9169-6669

고려불상 석조
비로자나불 꼭 필요하신
분만 연락주세요
010-3591-776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숙식가능, 경기도)
011-710-729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강원도 사명산 상운사)
033)482-3382
010-3764-3661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공양주 보살님도 모십니다
(강원 영월군)
033)372-5009 / 010-5382-1329
010-5203-132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9214-0509

비구 부전스님
(50세 미만)
모십니다
(마산)
010-3428-6665

불 자 정 보

▷ 마 감 : 매주 월 ~ 수요일.
▷ 문 의 : 02) 2004-8215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 / 가로 7cm 70,000 / 가로 10cm 100,000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욕망의 누더기를 벗어버리고 훨훨 날듯이 살아가는 사람, 삶과 죽음으로부터
초월하여 편안한 곳으로 돌아가 맑고 푸르기가 호수 같은 사람, 그에게는
무한히 솟구치는 예지가 있어 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는다.
- 숫타니파타 -

사 찰 안 내

삼보도량은 스님들의 도량입니다.

- 위치 : 서울
- 법당 : 40
- 요사 : 30
- 대지 : 100평
- 산신각,건평 150
- 가액 : 15억

- 위치 : 경산
- 법당 : 30
- 요사 : 60
- 대지 : 350
- 종각,가액 2억

- 위치 : 경기
- 법당 : 40평
- 요사 : 100
- 대지 : 650
- 가액 : 13억
- 가액 : 80억

※서울 경기 근교 포교당 전세암자 급히 구합니다.
법률, 세무, 무료, 상담. 매매, 전, 월세, 경매, 분양 등 상담환영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찾고있는분 많음, 매물 접수 합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사 찰 안 내

토 굴
- 위치 : 대전
- 법당 및 요사 : 35평
- 부지 : 700평
- 가액 : 2억5천

사 찰 터
- 위치 :충북 단양 (구인사 부근)
- 부지: 18,000평
- 가액: 평당 2만원 특급 명당터 차량진입가

포교원안내
- 위치 :경기
- 법당및요사:60평
- 임대료:1300/70
- 시설비 : 8000만 (조정가)
- 철학인적합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부산 바다 전망 좋은 절
- 총 대지: 약 2.700
- 법당 약 50평, 요사채 40평, 산신각
- 바다전망 최고, 사찰 뒤편 산
- 텃밭 300평
- 가액: 6억 8천만원

토 굴 안 내
- 총부지 : 970평
- 법당 및 요사채, 산신각, 용왕각, 독성각
- 계곡 물 철철, 산세 최고
- 양도가액: 1억 5천만원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다량확보
직011)560-8522,051)863-6622

< 다음카페 : 이박사 공인중개사 >

♣ 사찰안내는 사찰부동산전문 이박사에게 ♣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매도 하실때는 이박사에게
-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방문접수. 비밀보장)

■ 사찰, 암자, 토굴 포교당, 사찰부지 매매,임대 전문중개사

직통 : 010-7347-1010 <이박사(이규철)드림>

■ 사찰, 암자, 토굴, 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 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010-8980-4789 (사찰전문 공인중개사)

사 찰 안 내

- 위치: 충남 보령시 남포 저수지 앞
- 법당, 산신각, 요사2채
- 개금, 탱화 불사 새로 하였고 손볼곳 없는 완벽한 도량
- 즉시 입주가
- 가액: 5억

010-4222-6825

사 찰 안 내

산세 수려하고 전망 좋은 서울 수도권 전통사찰입니다 신도 포교도량을 찾는 사부대중은 연락하십시오 부지 200평 위에 웅장하고 아름다운 사찰 가액: 9억

010-5466-3321

사 찰 안 내

- 위치: 울산 남구 신정동 시장 앞
- 평수 45평
- 시설완비
- 보증금 3천만원, 월 50만원

010-3595-9856 불문스님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이천시 대포동
- 대지 188평. 법당 23평
- 요사 35평, 지하 암반수
- 전철 2014년 개통예정(인터넷참고)
- 가액: 2억 3천만원 (대출 3천만원 포함)

010-3194-3738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창녕군 남지읍
- 평수: 대지 400평
- 법당 20평, 요사채32평
- 융자 7,000만원 있음
- 가액: 1억 7천만원(융자 포함)

017-575-1194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예천군 상리소재
- 옆에 물 좋은 개울이 있고
- 연못에는 연꽃이 있는 청정지역 총 1,000평 (대지포함)
- 매실나무, 호두나무, 대추나무 있음
- 가격: 3억 (꼭 필요한분에게 가격조절가능)

011-861-6252

토굴 암자(급)안내

- 용인시 양지IC 부근 접근성이 용이함
- 임시법당 있고 전망 좋음
- 토지 대 911m 건평 79
- 조적조벽돌기와지붕
- 급양도가액 : 3억 3천만원

010-3426-9393
010-7347-1010

사 찰 안 내

- 충북 단양군 대강면 남천리 31번지
- 건평23평 대지100평외 과수원밭 1.500평(6년생사과나무 250주있음)
- 아주예쁘게지어놓은 황토집이며 법당
- 효험있는 천연노천불(약사여래불)있음
- 물좋고,공기좋고 전망좋은 단양온천진입로
- 가액:3억(마음에있는분 가격조절)

010-5380-8265

포교원 및 토굴 안내

- 치악산 맑은 물자락 산자락
- 명상 기도 공부할 수 있는 별장식 도량
- 위치: 강원도 원주
- 대지 120평, 건평 90평
- 3층건물
- 가액 3억 5천만원

011-9917-703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울산 남구 신정동 시장 앞
- 평수 45평
- 시설완비
- 보증금 3천만원, 월 50만원

010-3595-9856 불문스님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이천시 장호원읍 송산3리
- 대지 200평, 건평 35평
- 방3개, 창고3동 •올수리
- 삼존불, 후불탱화
- 주변에 소나무 숲 저수지
- 전세 3천만원, 시설비 없음 보증금 1천만원, 월세 25만원

010-6253-6892
011-729-6011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김천 혁신도시
- 김천역 및 구미 KTX역 각 10분거리
- 건평 1층, 2층 100평 대웅전 단청
- 대지 : 국유지 포함 사용면적 약 500평
- 가액: 2억 3천만원 (융자 1억포함)

010-8725-3196

힐링센터 및 사찰부지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 대지 700평 (2층주택 70평 포함)
- 야산 1300평
- 특징: 2차선도로에 접해 접근성이 좋으며 산에는 다수의 식수, 정원수 있음 사찰 및 힐링센터로도 적합하며
- 주인직접 매물임
- 가액: 10억 (방문상담 후 결정 희망)

010-4250-8566

암 자 안 내

- 위치: 영천시 금호읍에서10분거리
- 연못 옆 암자
- 법당, 거실, 방3, 주방, 화장실
- 106평
- 가액: 8,500 ~ 9,000만원

010-3071-8199
011-812-1363

사 찰 안 내

- 위치: 포항시 해수욕장 방생지
- 대지 약 700평
- 총건물 120평(목재건물)
- 1층 요사채 60평, 2층 법당 60평
- 보증금 3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3500만원 (가격절충)

054)261-1104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이천시 대포동
- 대지 188평. 법당 23평
- 요사 35평, 지하 암반수
- 전철 2014년 개통예정(인터넷참고)
- 가액: 2억 3천만원 (대출 3천만원 포함)

010-3194-3738

포교원(급)안내

- 위치: 강북구 수유동
- 큰 대로변 상가 3층
- 평수 30평, 등 200개, 인등 200개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60만원
- 시설비 1000만원
- 답사 후 절충가능
- 시설일체 완벽

010-2126-2526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합천
- 미륵산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아늑하고 풍광이 수려한 보궁터
- 평수 1600평
- 가액: 1억 2천만원

010-8828-1188

사 찰 안 내

- 위치: 고성군 동해면
- 평수: 150평
- 1층 법당 30평, 2층 법당 30평 요사채 : 각 각 30평
- 전망이 전국 최고 요지. 용도 변경 가능
- 군 체육 공원이 접해 있음
- 가액: 답사후 가격 절충

055)673-604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대구시 남구 대로변
- 2층 75평
- 전세 500만원 월 60만원
- 공양간, 찜질방
- 3층 75평
- 전세 1,000만원 월 60만원
- 법당, 산신, 관음전
- 몸만 들어오시면 됨, 시설비 절충

010-4071-3718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시 청학 2동
- 평수 : 57평
- 완벽한 시설로써 스님, 법사, 보살님 적합함
- 1층 : 요사채(도시가스 시설) 2층 : 법당과 스님방

010-3732-5237
051)412-0400

사 찰 안 내

- 위치: 청도 (대구에서 30분거리)
- 평수 130평
- 건평 42평(인법당)
- 가액: 1억 5천만원(절충가능)
- 남향 교통편리
- 비구니 스님 적합

010-2501-367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시 동래구 운천동 운천시장부근
- 평수 3층. 35평
- 내용: 법당1, 방2, 주방
- 보증금 2천만원 월세 30만원
- 시설비 500만원

051)894-3700

창건 사찰 안내

- 위치 : 전북 임실 섬진강 회문산
- 평수 : 법당 2동(대지 300평)
- 종교용지 허가 대지. 총 5000평 중 300평
- 부처님 세분 모셔져있음. 현대식 입식 한옥 목조 기와 시설. 섬진강 명당 위치
- 일체시설완비 몸만오시면 됨 • 호남 최고의 명당
- 보증금 2천만원 / 월 30만원 (총 건축비 2억 1천만원 소요)
- 저녁 9시30분 이후 전화나 문자로 연락바람

010-9647-0723

광 진 사 찰 안 내

- 위 치 : 부산전통사찰
- 종교용지 : 1000평
- 법 당 : 30평
- 요 사 : 40평
- 양 도 : 14억
- 위 치 : 서울전세(한옥)
- 부 지 : 40평(역세권)
- 인법당 : 35평
- 보증금 : 1억8천
- 시설비 : 3천(주차가)

※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있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 02)723-4082
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번지 종교부지 1700평(대웅사) 병산리, 산 168-2번지 4,130평 (총 5,830평)
- 건물, 대웅전1동, 요사채(1, 2층) 1동, 기도방 1동, 승방1동
- 입주조건 : 양도 또는 임대 (임대에서 매수전환, 절충가능)
- 주인직접 : 현장답사 후 협의 (조건 및 금액 결정)

010-4225-0012
02)403-333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 상가대로변 1층
- 법당 大, 방2칸, 공양간, 목욕탕1, 창고1
- 전세 1천만원 월세 50만원
- 시설비 1300만원, 절충가능
- 주차장 있음

010-3578-0639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부곡온천 및 화왕산, 영산IC에서 8분거리
- 평수 :532평, 법당 30평(목조단청) 산신각,칠성각,인터넷 가람참조
- 요사채(60평, 화장실2개)석탑, 주차장, 창고, 텃밭 150m 암반수
- 특징: 산 밑에 위치, 도로인접, 심야전기보일러, CCTV설치, 집기일절
- 가액: 4억 2천 5백만원(답사 후 조정) 시세 이하 양도(평당 70만원)

010-8664-8259

사 찰 안 내

- 위치: 영덕군 영해면
- 평수 73평
- 꼭 하실분만 전화주세요
- 가액: 9천만원

010-2510-0955

주 택 안 내

- 위치: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영영포리
- 대지 약 200평. 건평 약 40평
- 목재 황토 주택 뒤는 산
- 앞 수백리 전망 혐오시설 없음
- 양도가액 : 9,500만원

010-6460-1316

사 찰 안 내

- 위치:충남 논산시 연무IC 부근
- 대지 125평
- 건물: 법당, 공양간, 산신각, 요사채 (합 4동)
- 가액: 1억 2천만원

011-9004-1492
041)741-1497

포교원(급)안내

- 위치: 대구 달서구 진천동 월배 E-마트 옆
- 한옥단독주택 40평
- 사찰시설로 완비
- 가액: 1억6천만원
- 전세로 가능

010-2769-3397

사찰(급)안내

- 위치: 용인시 묘현면 에버랜드 근처
- 대지 100평, 건물 45평, 화장실2, 방3
- 법당, 지장,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아미타불 16나한, 주차장완비
- 몸만 오시면 됨, 즉시법회 가능
- 보증금 20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4000만원 (절충가능)

010-4732-4849

포교원안내

- 위치: 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 대지 175평
- 법당 17평, 아미타도량, 삼존불, 산신, 용왕
- 요사채 20평
- 가액: 9천 7백만원 (시설비 포함)

010-8503-5769

포교원안내

- 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 지하철 금곡역에서 도보 5분거리
- 3층건물 중 2층 35평
- 법당1, 방2, 화장실2, 창고1 에어컨시설완비,즉시법회가능
- 도시가스사용,시장골목,
- 가액: 보증금 3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2000만원
- 시설비 상담 후 결정
-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11-448-2159

수행 정토 터(부지)

- 위치: 경북 영주 시내에서 15분 거리
- 산에 위치하나 지목이 밭으로 관리지역임(200m 위치)
- 산 정상까지 묘, 송전철탑 등이 전혀 없음
- 영구포란형(靈龜抱卵形)으로 백두대간이 보이며 전망 경치가 좋음
- 도로(주차장포함), 전기, 부지 정리 완료
- 11년생 금강송 9백그루(3억 상당) 무상 양도
- 총 5,300평(평당 7만원)(필요하신 분만 금 ? 토 ? 일중 방문 요)

016 - 573 - 2032

사 찰 안 내

산세 수려하고 전망 좋은 서울 수도권 전통사찰입니다 신도 포교도량을 찾는 사부대중은 연락하십시오 부지 200평 위에 웅장하고 아름다운 사찰 가액: 9억

010-5466-3321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김천 혁신도시
- 김천역 및 구미 KTX역 각 10분거리
- 건평 1층, 2층 100평 대웅전 단청
- 대지 : 국유지 포함 사용면적 약 500평
- 가액: 2억 3천만원 (융자 1억포함)

010-8725-3196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거제시 둔덕면 산방리
- 건평 :177평 •건물 : 30평
- 산방산 자락 (한옥집, 다용도로 사용가)
- 전망 좋은 정자도 있음
- 가액 : 4억 5천만원

010-4199-234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대구 달서구 송현동
- 평수 30평, 3층. 대도로변
- 보증금 1천만원 / 월 55만원
- 시설: 아미타불, 지장불, 관음불, 후불탱화, 산신탱화, 인등
- 시설비: 상담 후 절충

010-6205-6633

암 자 안 내

- 위치: 경남 양산시 통도사 근처
- 3층 건물중 2층 (40평)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1600만원)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 꼭 하실분만 연락 요망

010-6434-3389

포교원(급)안내

- 위치: 경남 양산시 통도사 근처
- 3층 건물중 2층 (40평)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1600만원)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 꼭 하실분만 연락 요망

010-6434-3389

암 자 안 내

- 위치: 울산 야음동
- 건평 130평
- 한옥3채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1500만원

010-2345-5558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시 동래구 운천동 운천시장부근
- 평수 3층. 35평
- 내용: 법당1, 방2, 주방
- 보증금 2천만원 월세 30만원
- 시설비 500만원

051)894-3700

요가 선원 임대

- 위치: 부산시 연제구 거제1동 국제신문사 건너편. 우리은행 옆건물 지하철 2분거리 도보에서 10분거리에 아파트 20동 둘러쌓여 있음
- 위치 최고. 10년째 운영중
- 출가 관계로 임대
- 보증금 3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1200만원

010-7330-2361

힐링 바람… 마음치유 강좌에 수강생 몰린다

연중기획 마음산업

'신행 · 포교 地圖' 바꾼다

〈5〉 올봄 강좌 개설 정원 초과 현상

그 어느때보다 마음치유 프로그램이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교계에서는 이런 열풍을 반영이라도 하듯이 동산불교대에서는 2013년 선명상학과를 개설했고 동국대 평생교육원에서 마가 스님이 운영하고 있는 마음치유사 과정은 5대 1의 경쟁자를 뚫고 수업을 들어야 할만큼 인기를 모으고 있다.

물질의 풍요 속에서 상대적 박탈감과 공허감에 시달리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마음치유 프로그램은 큰 위안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계 각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음치유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을까?

풍경소리는 올해 처음 '마음챙김 명상교실'을 개설했다. 명상을 대중들에게 보급하기 위해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목요일 오후와 저녁 두 번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마음챙김 명상교실은 초보 명상가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매순간 알아차림(사띠, Sati)'을 좌선과 걷기 명상 공동인터뷰 등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명상교실을 지도하는 이용성 풍경소리 사무총장은 "언젠가부터 명상은 힐링의 붐을 타고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했고, 그로 인해 값비싼 명상 프로그램들도 다수 생겨났다. 그러나 명상은 희망하는 누구나 접할 수 있는 평등한 행복의 길이기를 바라는 뜻에서 무료로 반을 개설하게 되었다"며 취지를 전했다.

한국마음치유협회가 동국대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음치유사 과정'도 주목할 만하다. 15주 과정의 강좌는 △명상심리와 자기치유 △자비명상과 긍정심리 △현대심리학과 위빠사나 마음치유의 실제 등을 내용으로 한다. 1 · 2학기 이수한 뒤 3박 4일 워크숍을 수료할 경우 2급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지며 학교, 복지관, 문화센터 등에서 마음치유사로 활동하게 된다.

풍경소리, 무료 명상 지도 눈길
동산불교대, 선명상학과 개설
동국대 평생교육원 5:1 경쟁

마음치유협회 회장 마가 스님은 "마음치유가 대세긴 대세다. 이번 학기에는 30명 정원에 160명의 신청자가 몰려 마음 치유에 대한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현재는 12명의 신청자를 더 받아 42명의 수강생이 마음치유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동산불교대는 2013년 선 · 명상학과를 개설하고 3월 7일 입학식을 가졌다. 4학기로 구성된 수업에는 △초기불교 선명상(청정도론) △티벳명상(람림) △조사전(임제록 · 간화선) △염불선(정토론) 등이 진행된다. 동산불교대 선명상학과의 특징은 대부분의 명상강좌들이 실습을 위주로 진행되는데 반해 충분한 이론을 공부 후 명상 실습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동산불교대는 "불교선명상의 이론적 토대와 실천원리를 체득해 선수행의 기본인 출입식념과 사념처수행을 계정삼학으로 정립하면서 시대별 지역적으로 성립된 불교의 다양한 선 · 명상을 체득할 수 있도록 개설된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아잔브람 한국명상센터 참불선원 선원장 각산 스님도 동국대 정각원에서 4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아잔 브람 명상강의를 개설한다. 아잔브람의 명상법은 위빠사나와는 다른 호흡명상(안반선)을 복원한 명상법이다. 각산 스님이 지도하는 이번 강의는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인 '붓다의 호흡명상'에 중점을 둔다. 각산 스님은 앞으로 '초기불교 수행과 간화선 통합수행의 이론과 실제'와 '붓다의 명상과 간화선 실참'을 연달아 강의할 예정이다.

대한불교진흥원 대원불교문화대학는 불교심리상담학과와 명상학과를 두어 마음치유에 매진하고 있다. 명상학과의 경우는 사마타수행의 이론과 실습, 불교명상학, 위빠사나 수행의 이론과 실습 등을 수업한다. 불교심리상담학과의 경우 불교심리상담사 자격증 발급한다. 졸업생들은 현재 고등학교 상담교사, 복지관 및 소년원 상담사로 활동하고 있다.

대원불교문화대학은 "불교 · 인문교양 · 상담 · 명상실수 등 불교 및 관련 분야과목의 통합적 교과운영을 통해 보다 현대적이며 대중적인 불교교양대학으로써 거듭나고 있다"고 설명한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마음치유 강좌가 그 어느때보다 인기를 모으고 있다. 사진은 풍경소리 '마음챙김 명상교실' 무료 강좌 장면

올봄 마음치유 강좌 리스트

기 관	수업내용	전화번호
풍경소리	마음챙김 명상교실	(02)736-5583
한국마음치유협회	마음치유사 과정	(02)2260-3728
동산불교대 선명상학과	청정도론 강좌 등	(02)732-1206
참불선원	아잔브람 명상법	(010)3149-7111
대원불교문화대학	불교심리상담학과 · 명상학과	(02) 707-1072
한마음과학원	한마음 공생실천과정	(031)471-6926
부산시선원	K-MBSR 프로그램	(051)746-7611

서구의 마음수행 현장

명상 복합교육공간… 자연과 연결되는 삶 지도

〈3〉 영국 명상 휴양센터 : 샤르팸 트러스트 · 가이아 하우스

영국 서남부 데번(Devon) 지방에는 명상과 휴양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두 군데 있다. '샤르팸 트러스트(The Charpham Trust)'와 '가이아 하우스(Gaia House)'다.

크리스토퍼 팃무스(Christopher Titmuss)와 크리스티나 펠드만(Christina Feldman)은 샤르팸 트러스트를 1982년에, 가이아 하우스를 1983년에 공동설립하고 영국에서 손꼽는 휴양센터이자 불교를 배울 수 있는 명상센터로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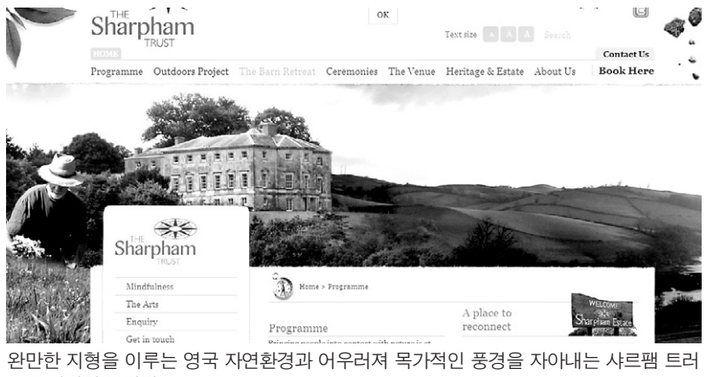
기자였던 크리스토퍼 팃무스는 1970~1976년 태국과 인도에서 수행을 하고 불교 승려로 출가했다. 말하기와 글쓰기를 통해 사회 · 정치 문제에 참여하는 불교도로 잘 알려진 그는 주요 저서로 〈생활에서의 마음챙김(Mindfulness for Everyday Living)〉〈깨달음의 빛(Light on Enlightenment)〉 등을 펴냈다.

크리스티나 펠드만은 1970년부터 티베트불교와 대승불교, 테라와다 불교 전통을 익히고 1974년부터 전 세계에서 명상을 지도하고 있다.

해외포교의 선구자인 구산 스님의 제자였던 스티븐 배첼러와 마르티네 배첼러도 이곳 샤르팸 트러스트에 합류해 가이아 하우스를 공동운영하며 위빠사나를 가르치고 강연과 출판을 통해 전법을 하고 있다.

명상, 자연교육, 결혼 · 장례를 한곳에서

샤르팸 트러스트는 데번주에 위치한 소도시이자 영국에서 가장 자유분방하고 진보적인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알려진 '토트네스(Totnes)'에 위치해 있다.



완만한 지형을 이루는 영국 자연환경과 어우러져 목가적인 풍경을 자아내는 샤르팸 트러스트 전경이 보인다.



가이아 하우스 법당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가이아 하우스의 중요 원칙인 '고요, 규율, 평온'을 지키며 수행한다.

샤르팸, 명상 · 사회참여활동 30년
아동 · 학습장애인 프로그램 운영
가이아, 통찰명상 · 요가 등 선택 수행
구산 스님 제자 배첼러 부부도 지도

사회참여에 관심이 많은 크리스토퍼 팃무스는 샤르팸 트러스트를 불교를 접목시킨 교육자선체로 성장시켰다.

이곳에서는 마음챙김(mindfulness)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코스와 프로그램을 포함시킨 휴양시설을 제공하면서도 사회참여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숲 학교, 공예, 환경활동 및 보존 자원봉사 활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샤르팸 트러스트는 "참여자들에게 불교명상과 마음챙김 수행을 일상생활에서 연습하도록 지도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람들 스스로가 자연과 연결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샤르팸 트러스트의 목표"라고 설명한다.

1996년 9월에는 1년 코스를 갖춘 불교대학과 기숙사를 세워 현대생활에 맞는 불교를 바탕으로 한 심리치료와 요가 및 서양종교, 서양철학도 함께 가르친다. 주로 마음챙김명상 인지치료(MBCT; Mindfulness Based Cognitive Therapy)를 가르치고 있으며 기숙사에 머무는 학생들은 명상과 함께 정원에서 일도 하고 지역사회에 봉사를 하고 있다.

명상프로그램은 6일 숙박기준 200~210파운드(한화 33~34만원)정도 지불해야 한다.

샤르팸 트러스트는 대체로 경사가 완만한 지형을 이루는 영국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져 목가적인 풍경을 자아낸다. 이곳에서 정기적으로 예술가와 시인을 초청해 시낭송회와 소규모 음악공연도 열어 문화와 예술을 공유하고 있으며, 결혼식과 장례식을 치를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샤르팸 트러스트는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숲, 연못, 초원, 강으로 어우러진 550 에이커(약 220만 ㎡)의 대지는 어린이 · 청소년과 학습장애가 있는 사람을 비롯해 성인, 가족들에게는 교육과 휴양을 위한 최적의 장소다. 아이들을 비롯해 학습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자연재료로 공예품을 만들고 야생동물을 관찰함으로써 자연과 더불어 사는 것을 배우고 강하고 독립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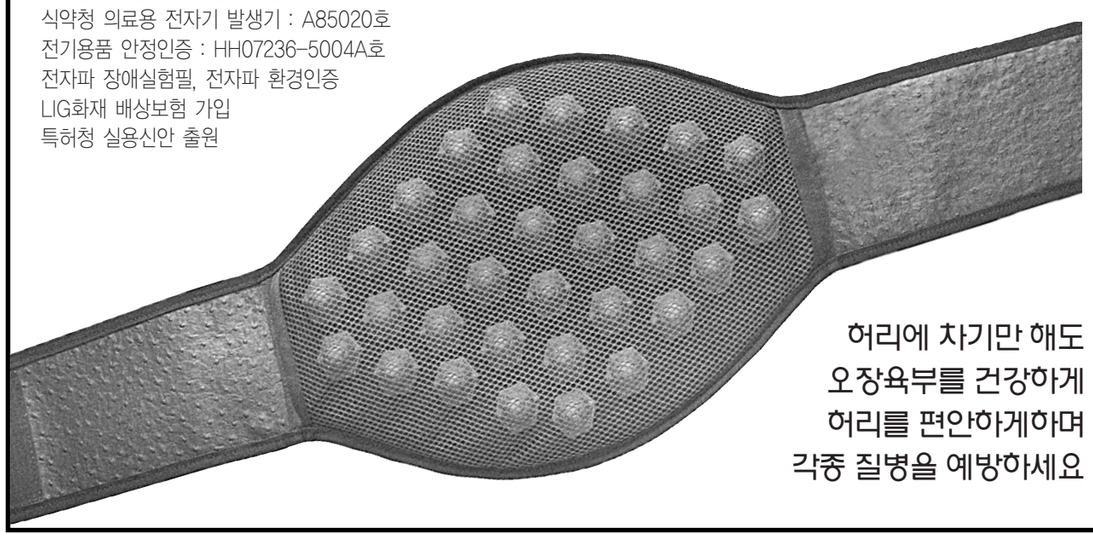
옛 수도원을 명상휴양지로 활용

샤르팸 트러스트가 공동체적인 삶을 추구하는 종합센터라면 가이아 하우스는 일상의 스트레스 심신의 피곤을 풀기위한 곳으로 제격이다. 녹음이 짙은 데번 남부에 있는 가이아 하우스는 언덕과 숲지사이에 위치한 옛 수도원에 자리잡고 있다. 불교 전통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종교와 인종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을 받으며 이곳 운영철학은 모든 것을 포용하고 자신의 교의를 강요하지 않는 것이다.

손님들은 단체로, 혹은 개인으로 휴식을 즐기기 위해 이곳을 찾는다. 젠 휴양, 통찰명상, 기공, 요가 등 다양한 테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정해진 일과를 지켜야 하는데, 보통 오전 6시에 시작해 오후 9시 30분에 끝난다. 이 시간의 대부분은 널찍한 명상 홀에 앉아서, 혹은 대지 위를 거닐면서 묵언 명상을 하면서 보내게 된다. '고요, 규율, 평온'이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이곳에서의 휴식은 완벽한 침묵 속에서 이루어지며, 그 고요를 완전하게 즐기기 위해 휴대폰 사용은 금지이다.

숙소는 베이직하면서 편안하게 꾸며져있다. 1인실도 있지만 대부분 다인실이며 숙박요금은 1일 기준 27~37파운드(한화 약 4~6만원)정도다. 또한 시설운영을 위해 자원봉사를 해야 하는 시간도 있다.

모든 참가자들은 하루에 한 시간씩 정원이나 설거지, 청소 등을 도와야 한다. 음식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건강에 좋으며, 잔디밭이 내려다보이는 공동 식당에서 채식 식사를 하게 된다. 이나은 기자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과거의 업을 뒤집을 수 있겠느냐"

불전속 신이한 이야기 (12)

유리왕이 석씨 종족을 멸망시키다 (상)

사위국의 바사닉왕(波斯匿王)이 왕위를 이어받고서 생각했다.

'먼저 가비라국의 석씨 여인과 혼인을 해야겠다.'

그리고 왕은 석씨 집안에 청혼을 했다. 하지만 청혼을 받은 석씨 집안에서는 반대하는 이가 많았으며, 한 편에서는 괜찮다고 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 때 부처님의 사촌 동생인 마하남이 말했다.

"바사닉왕의 사람됨이 포악한지라,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나라를 무너뜨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마하남의 여자 하인의 자식 중에 얼굴 생김이 단정한 여인이 하나 있었는데, 석씨들이 의논하여 그 하인의 딸을 보내기로 했다.

"이 아이가 나의 딸이오. 성혼을 하십시다."

마하남은 하인의 딸을 자기 딸이라며 왕에게 말했다. 이에 왕이 기뻐하면서 이 여인을 첫째 부인으로 삼았다. 이 여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은 유리다. 유리가 나이 여덟 살이 되자 바사닉왕은 아들 유리에게 말했다.

"가비라국에 가서 태자로서 배워야 할 무예를 배우도록 하라."

왕은 유리를 여러 하인들과 함께 큰 코끼리에 태워 마하남의 집으로 보냈다. 그리고 5백 명의 동자들을 모아 함께 공부하게 했다. 마침 그곳에 새로 법당을 세웠는데 마치 하늘의 궁전과 같았다.

"우리들이 먼저 부처님과 스님들을 이 법당에 청하여 공양을 하게 되면, 한량없는 복을 받게 되리라."

석씨들이 여러 가지 장엄물을 매달고, 향수를 땅에 뿌리고 향을 피웠다. 이때 유리 태자가 법당으로 가더니 사자자리(獅子座)에 올랐다. 석씨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종의 자식이라 고함치며 문밖으로 끌어내어 매를 때렸다. 유리 태자는 도반인 범지를 보며 말했다.

"석씨 종족들이 나를 모욕했으니, 뒷날 내가 왕위에 오르면 그대는 이 일을 나에게 말하여라."

바사닉왕이 죽고 유리 태자가 왕위를 이어받자 범지가 유리왕에게 예전의 일을 말했다. 유리왕은 병사를 모아 석씨 종족을 정벌하러 가비라국으로 갔다. 세존께서 아시고 길목의 마른나무 아래에서 가부좌를 하고 앉아 계시는지라, 태자가 수레에서 내려 예배하고 물었다.

"이 나무 말고도 좋은 나무가 많은데, 어째서 여기에 앉아 계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친족의 그늘이 본래 외인(外人)의 집보다는 나은 법이다."

이때 유리왕이 말했다.

"오늘 세존께서는 일부러 친족들을 위해 말씀을 하시는구나. 내가 정벌을 해서는 안 되겠다."

곁에서 범지가 왕에게 집요하게 상소하니 왕이 할 수 없이 다시 군사를 일으켰다. 이때 목련이 부처님께 말했다.

"유리왕이 석씨 종족을 치러 떠나려 합니다. 제가 그의 군대를 모두 옮겨 다른 지방에 던져버리든지 허공으로 뽑아내어 버리든지 하겠습니다. 아니면 바다 속으로 옮겨 놓거나 철위산 사이로 옮겨 놓겠습니다. 그도 아니라면 백성들을 다른 지방의 큰 나라 땅 안으로 옮겨 놓든지, 철롱(鐵籠)으로 성을 아예 덮어 버리든지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신통이 있지만 결국엔 가비라국 사람 모두를 편안하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사람 중생에게는 일곱 가지 피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첫째는 태어남이고, 둘째는 늙음이며, 셋째는 병듦이며, 넷째는 죽음이며, 다섯째는 죄악이고, 여섯째는 복이며 일곱째는 인연이다. 눈 앞의 고(苦)를 잠시 모면할 수는 있으나 끝내 완전히 면하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떻게 그 과거의 업을 뒤집을 수 있겠느냐?"



삽화 · 강병호

그러나 목련은 끝내 뜻을 접지 못하고 5천의 대중을 모아 발우 안에 모두 넣고 허공의 별 끝에 놓았다. 석씨들도 병사를 모아 유리왕과 맞섰다. 석씨들은 멀리서 유리왕을 쳐다보았고, 어떤 사람은 활로 유리왕의 귀와 머리에 올린 상투를 꿰뚫었다. 그리고 유리왕 군대의 병기와 깃발을 모두 다 깨뜨리면서도 끝끝내 사람을 상하게 하지 않았다. 이에 유리왕은 크게 두려워하면서 신하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이 화살을 보고 있느냐? 대체 어디서 오는 것이더냐? 그들이 만약 나를 해치려는 마음만 먹는다면 내가 반드시 죽고 말겠구나. 어서 사위국으로 돌아가자."

이때 범지가 다시 왕에게 말했다.

"왕이시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석씨들은 계율을 지키는지라 벌레조차 해치지 않습니다. 하물며 사람을 해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야 말로 전진할 때입니다."

왕이 범지의 말을 따르자 석씨들은 과연 퇴각하여 성안으로 들어갔다. 유리왕은 말했다

"너희들은 빨리 성문을 열어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 모두를 죽일 것이다."

성안에는 나이가 열다섯 살인 사마라는 동자가 있었다. 동자가 성벽에 올라가 혼자서 유리왕 병사들과 싸웠는데 병사들이 많이 죽었다. 당황한 유리왕의 병사들이 흩어지며 흙구덩이 안으로 숨었다. 이때 석씨 종족들은 동자에게 말했다.

"네가 우리 문중을 욕되게 하는구나. 누가 싸울 줄을 모르겠느냐? 우리 석씨들은 선행을 닦는 사람이라, 벌레조차 죽이지 않는다. 하물며 사람 생명을 어찌 죽일 수 있겠느냐? 우리들은 한 사람이 만 명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사람 생명을 다치게 하면 내생에 지옥에 들고, 만약 인간 세상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일찍 죽게 된다. 너는 이제 빨리 떠나거라. 여기에 머무를 필요가 없다."

사마는 이내 가비라성을 떠났고, 유리왕 군사는 다시 성문 앞으로 다가와 외쳤다.

"어서 성문을 열어라."

석씨들은 성문을 열었다.

동국대역경원 발행 〈경률이상〉에서 발췌 재구성

구성=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이대원성 보살의
바라밀 일기 ⑫



자연이 주는 설법

육교 위에 핀 쑥

시간이란 것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시간은 늘 흘러가고 있다. 새해인사를 나눈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3월이다.

며칠 전이었다. 저녁 시간에 전철에서 내려 육교를 건너는데 육교 위에서 할머니 한 분이 바구니에 무언가를 올려놓고 팔고 있었다. 할머니와 바구니에 눈이 가서 발길을 멈췄다. 그리고 왠지 그냥 지나쳐 갈 수가 없었다. 무엇이 되었든 팔아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바구니에 무엇이 들어있나 들여다보았다. 쑥이었다. 이 추운 날씨에 벌써 쑥이라니 3월이긴 해도 아직은 추운데. 내가 느끼는 계절만 계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김없이 흘러가고 있는 계절을 생각하니 사람처럼 게으른 게 없지 싶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랬던 것은 바구니의 쑥이 할머니가 직접 캔 쑥이라는 것이다. 무슨 사연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백발의 할머니는 손수 캔 쑥을 찬 바람 부는 육교 위에서 팔고 있었다. 쑥 한 봉지를 샀다.

"많이 파세요."

주위를 바라보는 것도 '신행'
들으려 할 때 들리는 '법문'
나의 작은 존재가 세상의 시작

집으로 오는 내내 왠지 육교 위에서 웅크리고 앉아있던 백발의 할머니가 생각났다. 할머니에게서 산 쑥으로 국을 끓였다. 봄 냄새가 집안에 퍼졌다. 봄이 이렇게도 오는구나 싶었다. 끓고 있는 국을 바라보고 있자니 왠지 부끄러운 생각도 들고, 고마운 생각도 들었다. 나는 이렇게 편하게 사는구나. 이렇게 편한 세상 살면서 나는 세상에 무엇으로 보답하고 있는지…. 나는 쑥이 돋았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누군가는 그 쑥을 캐다 팔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국을 끓이고 있다. 게으르지 말아야겠다. 계절이 성실하게 계절을 잇고, 생명이 성실하게 생명을 잇듯이 나 역시도 좀 더, 아니 늘 성실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다가올 음력 2월 보름부터 우리 소림연화회관에서 자비도량 참법을 기도하며 큰 스님들의 주옥같은 법문을 들을 예정이다. 훌륭한 부처님의 법문을 선망 조부모 그리고 부모형제 일가친척 여러 영가들도 법회에 모셔 함께 들으며, 새로워질 나를 발원하여 맑아진 영혼으로 좋은 인연 이어서 주변의 도반들도 부처님 품에 들게 하여 다 같이 행복해 지기를 빌어본다. 법문을 들음은 잊고 있던 나를 보게 되는 것이고, 기도에 마음 바치는 일은 멀어진 깨달음을 당기는 일일 것이다.

육교 위에서 만난 할머니의 쑥을 보면서 가르침은 경전 속에만 있는 것도 법당에만 있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우리 곁을 스치고 지나가는 모든 것들이 스치고 지날 때마다 우리에겐 '가르침'이다. 감로수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찾아다니는 일도 신행이겠지만 주위의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삶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는 일 또한 신행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부처님 법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신행이다. 올해 봄은 개나리 진달래가 아니라 육교 위에서 만난 할머니의 쑥으로부터 왔다.

물소리, 빗소리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고 계곡의 물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원래 물속에는 소리가 없다. 그런데도 흐르는 곳에 따라 물은 소리를 낸다. 개울을 흐르는 물소리, 강을 따라 흐르는 물소리, 작은 바위를 지나는 물소리, 큰 바위를 타고 흐르는 물소리, 제각기 장소에 따라 소리가 다르다.

나는 가끔 물을 보는 습관이 있다. 물은 깊을수록 소리가 없다.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것을 볼 때면 누군가의 눈물 같기도 하고, 졸졸졸 흐르는 냇물을 볼 때면 어린 시절 비 온 뒤 개울에 발을 담그고 고무신으로 물을 떠서 장난치고 놀았던 기억이 나기도 한다.

언젠가 제주도 약천사 팔각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여름밤을 지낸 적이 있다. 깜깜한 밤중에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있었다. 내리는 비도 내리는 곳에 따라 내는 소리가 달랐다. 소리만 다른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도 달랐다. 마당의 외등 위로 내리는 비, 담 밖에서 소리만 내며 내리는 비, 지붕 위에 내리는 비 그리고 각자의 가슴 속에 내리는 비.

내린 비는 어딘가를 또 흘러갈 것이다. 개울을, 강물을, 작은 바위를, 큰 바위를. 그 날 나는 빗소리를 들으며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누군가와 밤새 이야기를 나누듯 빗소리에 취해 밤이 가는 줄 몰랐다. 오랜 만에 차분히 빗소리를 들었다. 듣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소리였다.

부처님 말씀도 물소리 빗소리 같다는 생각을 했다. 들으려 하면 들릴 것이고, 듣지 않으면 귀가 백 개라도 들을 수 없는 것이란 생각을 했다.

나의시작
나는 작은 빗물 한 방울
하늘에서 내리는 빗방울 하나가 나(我)라네
땅에 떨어졌으면 흙 속에 스며들어 흔적 없으련만
다행이도 산골짝 작은 계곡에 흘러
나는 물이 되어 흐른다
가다가 바위에 부딪히기도 하고 높은 언덕에서
폭포가 되어 떨어지기도 하며
흘러흘러 강이 되었네
작은 빗물 한 방울이
강의 시작이었네
나의 작은 존재가 세상의 시작이었네

부산 연꽃모임회장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달마의 일할도 허락지 않는다
선문염송 21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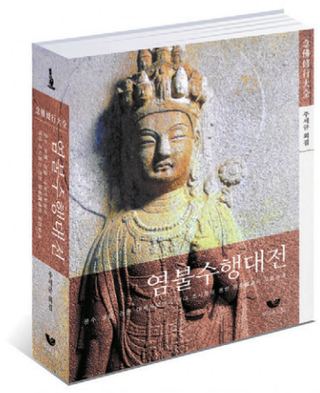
바른 신앙과 수행의 길잡이!
바른 불자가 됩시다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031-534-3373

성현과 범부가 함께 닦는 성불의 지름길!
"염불은 가장 쉬우면서도 모든 법문을 뛰어넘는다!"

상중하 모든 근기가 두루 이익을 보고, 착수하기 쉽고 성공율 높으며,
힘 적게 들이고 효과 빠르며, 만 가지 공덕을 원만히 성취하는 수행법



제불보살과 역대 조사들이 권한
원통圓通의 묘법
《염불수행대전》

주세규 회집
46배판 | 양장 | 2도 | 808쪽 | 3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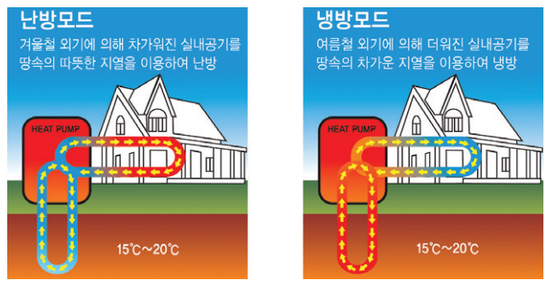
※ 전국 서점과 인터넷에서 판매

대승경전과 정토종 및 선종 조사의 염불법문 총망라
흥미진진하고도 상세한 주석으로 염불에 대한 확신과 방향 제시!

이 책은 '염불'에 관한 부처님과 보살님, 역대 고승, 거사님들의 말씀들을 모아서 해설하거나 주석(註釋)을 단, 무려 808쪽에 달하는 이른바 '벽돌책'이다. 염불, 그중에서도 주로 부처님의 이름을 생각하거나 부르는 칭명염불에 관한 부처님과 고승들의 고귀한 말씀들을 회집會集해 놓았다. 방대한 주석에는 살며 사랑하고, 염불하며 깨달아 가는 구도자들의 생활 속의 수행지침과 감동적인 예화, 역사적인 영험록이 가득하다.

출판 및 법공양(특별할인) 문의 02-2632-8739 | 비움과소통 buddhapia5@daum.net

초절전형 슈퍼에너텍 전기 보일러
전국 사찰 300여곳 시공
지열히트펌프 냉 난방 기름값의 90% 절감
월난방비 40평 약 15만원(겨울철 기준)



태양광 발전사업 최고의 안정성 · 수익성



노후에 "연금이 따로 있나? 태양광이 연금이다!!"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소 사업은 개인에게 사업권을 부여하여 안정적 소득 창출과 향후 노후대책은 물론 지속적으로 수입을 12년 동안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100Kw 발전 기준시 년소득 약 5,000만원 (불자우대)

내일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慧峰 합장

직통 011-335-6389, 대표전화 1688-5687


대행 스님

배낭 매고 한 철 날 때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해야

(지난 호에 이어서)

그래서 오신통에서 벗어나서, 그 통에서 벗어나서 그거를 굴릴 줄 아는 누진이 돼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저 조금 보이기만 했다, 좀 들리기만 했다, 좀 이랬다고 하면 이건 장땡이다, 내가 오신통을 한다, 뭘 한다, 이 짓들을 하거든요. 이거는 잘못하면 마구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에게 해를 입힙니다. 그러니까 사기를 치는 사람도 그렇고 사기를 당하는 사람도 그렇고 다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이라고 하는데, 정신이 있으니까 바로 정심이 있죠. 또 자성신이라고 하고 자성불이라고 합니다. 불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근본입니다. 이 세상만사 생명 없는 게 없는 것을 외국에서는 바로 블랙홀이라고 하고 한국에서는 불바퀴라고 합니다. 그거는 평등공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레공법이라는 것은 법입니다. 돌아가는 그것을, 작용하는 법을 말합니다. 활궁법이라고 하는 것이 평등법입니다. 또 법이라는 자체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내고 돌아가는 걸 말하죠. 중심 없는 법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법을 바로 도권법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모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불법승 삼보에 귀의한다고 하는데 자기한테 자기가 귀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얼굴에 듣는 거 따로 있고 보는 거 따로 있고 맛을 아는 거 따로 있습니까? 이름은 귀다, 눈이다, 입이다, 코다, 다 따로 있지마는 한 얼굴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갑니다. 가서 싸우는 것을 보면 누가 잘못하고 잘하는지 판단이 아주 그 자리에서 나옵니다.

그렇듯이 자꾸 이름을 찾고 구하려고 하지 말고 그 이름 속의 뜻을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무조건 몸속에 있는 수십억 마리의 의식을 한데 합쳐서 한마음으로 다스려야죠. 한마음으로 뭉쳐서 그걸 중심으로 세운 게 주인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주인공을 믿지 않는다고 해 봐야 여러분이 여러분을 믿지 않는 건데 그걸 누구한테다 한가를 합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 주인을 안 믿는데 어떡합니까?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인연 없는 중생은 어찌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타의에서 구하는 것은 절대로 금하는 겁니다.

외국에도 가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대학가에서 교수들이 정신계를 얼마나 집요하게 추구하는지 모릅니다. 과학 따로 생활 따로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를 제가끔들 가지고 내 종교니 네 종교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비유해서 그랬어요. "케네디 대통령 묘지에 가니까 항상, 자나깨나 불봉에 불이 일어나더라. 그건 무엇을 상징하려고 해 놨느냐. 우리 생명의 근본은 죽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언어가 붙지 않는 자리다. 그냥 불바퀴다. 그냥…." 그런데 이 지구라는 독 속에서 내 종교 네 종교 하고 찾는다면, 즉 말하자면 진드기들이 이건 내 집 이건 네 집, 이런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알고 보면 우리도 지구에 붙어서 사는 진드기나 한가지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제일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제일이라는 데서 고만 한마음이 되지 않는 거죠. 좀 마음을 죽이고 '내가 어떤 거 할 때 나라고 할 수 있나?' 잘못하는 사람을 본다면 '저거는 꼭 저렇게 잘못하고…. 저건 나쁜 놈이야.' 이러지 마세요. 사람이 고정되게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좋은 일도 합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이게 자꾸 바뀌집니다. 고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먹는 것도 고정된 게 없고,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가고 오는 것도 모두가 고정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꼬집어서 저놈 나쁘다 할 필요가 없다 이 소립니다. 그저 모두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뜻을 가져야만이 무주상 보시가 되고 공덕이 되죠. 물질을 줘도 못 먹는 걸 줘서는 아니 되죠. 못 먹는 것은 씻어서 우리가 먹더라도 먹을 수 있는 거를 남을 줘야죠. 뒤에 대가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조건 없이 모두 보시를 한다면 그게 공덕입니다. 그게 무주상이고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말합니다. 천도재를 하더라도 부모를 원망하면서 '왜 우리 조상이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만들어 놨나.' 하는 생각이 있으면 아예 천도재를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평상시에도 부모는 자식을 무조건 사랑한다고 그랬죠? 그저 자식들 잘되게 하는 것이 나한테 복이다 하고요. 그런데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잘못되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부모가 몰라서, 잘되는 것인 줄 알고 구덩이로 끌고 가는 것은 있을 수 있을지언정….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부모가 자식들하고 한번 살아 보겠다고 끌고 가다 보니까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몰라서 그런 거지 자식을 일부러 구덩이에다 빠뜨리려고 해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탁하는 것은 가정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조상의 탓을 하지 말고 누구 원망도 하지 말고 '내가 없었더라면 이 모든 부딪침이 없었을 텐데, 내가 없었더라면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었을 텐데 내가 있으니까 바로 상대가 있었던 거 아닌가.' 하고 내 탓으로 돌리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모든 거를 내 탓으로 돌리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면 그 상대방의 마음에도 환하게 불이 들어와서 내 의견대로 따라 주게 돼 있어요. 내 한마음 주인공에다 모든 거를 놓고, 자식이나 부모가 아팠을 때도 '주인공, 당신만이 우리 어머니 우리 동생 뭐, 누구든 낫게 할 수 있어. 당신만이 낫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한다면 그게 가설이 돼 있으니 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벌써 이 줄과 줄이, 전자와 전자가 한데 합쳐져야 불이 들어오고 에너지가 나오죠? 그렇게 무심의 줄이 거기까지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한생각을 그렇게 할 때 그쪽도 불이 들어와요. 그래서 나을 수 있어요. 정히 따라 주지 않는다면 그렇게 해야죠. 따라 주면 더욱 좋고요.

모두가 이 귀한 도리를 모르고 교리를 좇아서 가거나 학설로 가거나, 이게 옳다는 둥 이게 정법이라는 둥 이게 사법이라는 둥 이렇게 논란을 하게 되면 선(禪)에서는 아예 팔만 사천 리로 멀어집니다. 여러분이 몸이 있고 이런 인연이 있을 때, 이 배낭을 짊어지고 한 철 날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몸을 벗고 죽었을 때 내 몸뚱이가 그대로 있는 줄 알고 집안으로 돌아다니거나, 그 뜻을 모르고 보질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의식만 있으니까 모든 게 부자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짐승이 잠자리를 하는데도 짐승인지도 모르고, 또는 새가 그래도 모르고 그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습

☞ 30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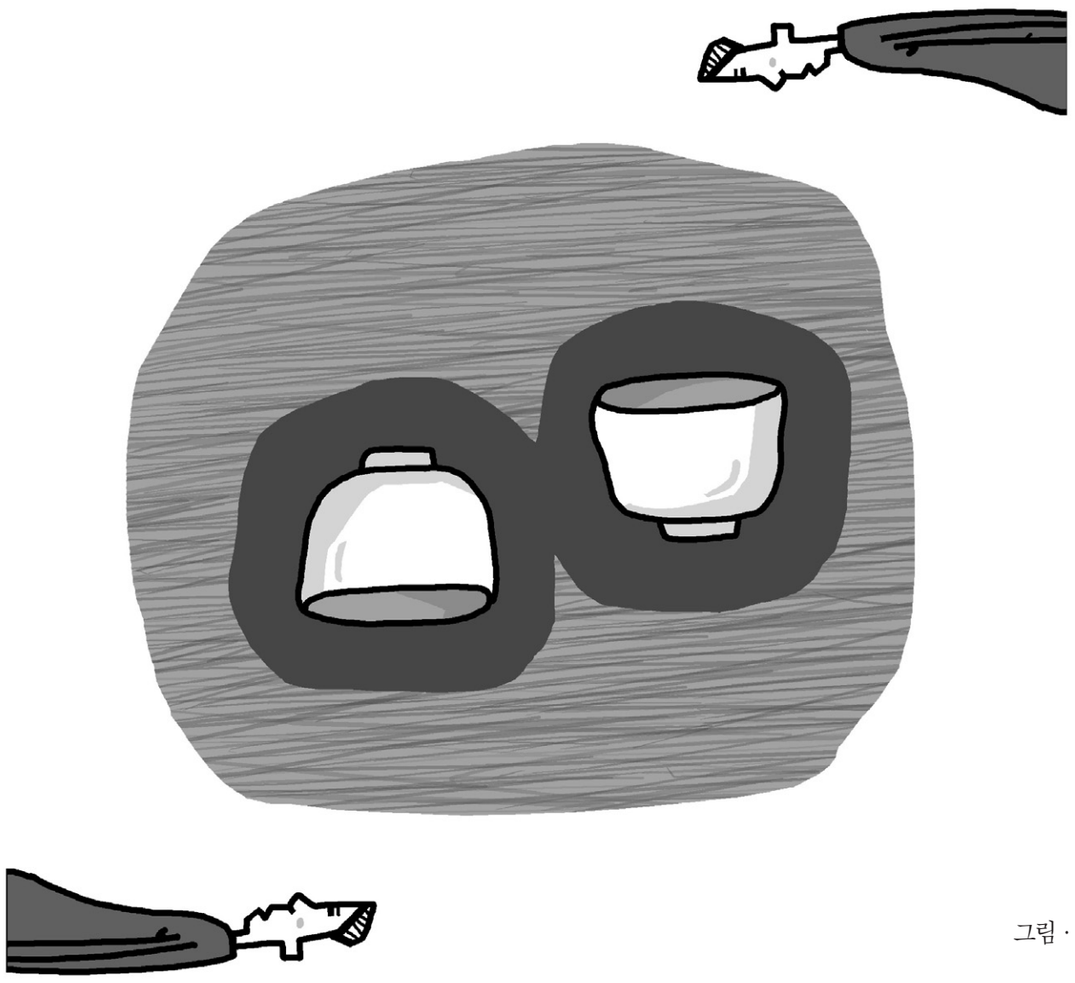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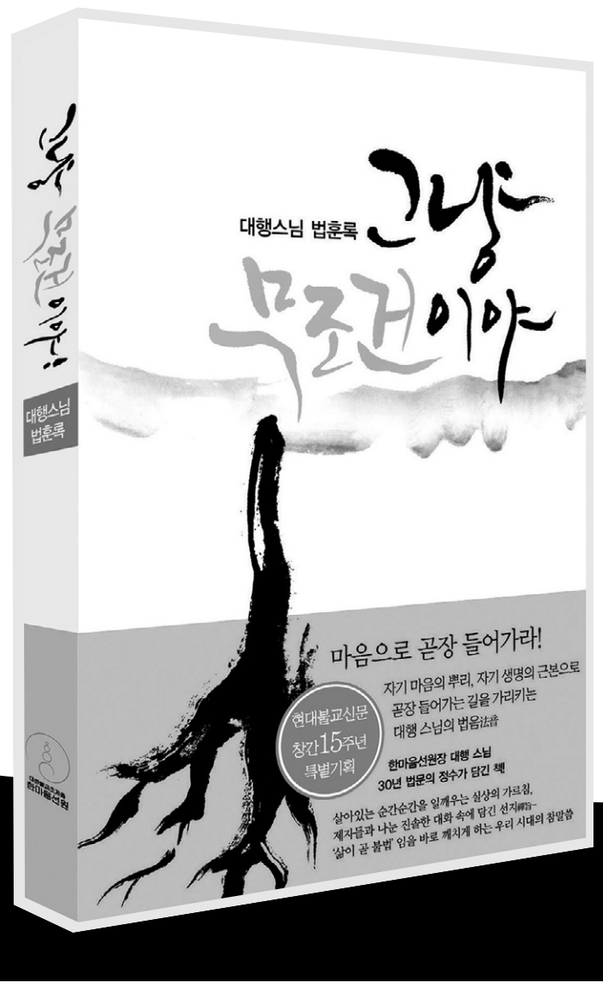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현대불교 현불샵**

광명세계의 맛을 보고 체험을 해 보세요

☞ 29면에서 계속

을 가지고 나오면 그 행동을 해야지 어쩔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천방지축이죠. 귀머거리 장님이 천방지축으로 돌아다니듯 하면서 다시 탄생이 될 때에 그 모습을 가지고 나온다면 또 다시 인간 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가에서 '아제 아제 바라아제' 하죠? 또 기독교에서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죠? 이것이 다, 살아생전에 내 몸이 공했다는 이 도리를 몰랐으니까 죽어서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가야 할 텐데 물에 빠져 죽을까 봐 못 건너가는 겁니다. 그러니 백 년이고 오백 년이고 배 올 때를 기다리고 서성거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타 죽을까 봐 불바퀴를 넘지 못하고요. 그리고 내 몸 안의 업식이 잔뜩 나와서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니까 또 그것도 넘어설 수 없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부처님께서는 네 여자로 비유를 해서 설법을 하셨습니다. 근근득생 내외가 살다가 어떻게 어떻게 먹고 살 만하니까 첩을 턱 얻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아시더라도 한 번 더 들어 보세요. 첩을 얻어 가지고 아주 죽자사자 하더니 또 둘째 첩을 털컥 얻었지 뭡니까. 또 죽자사자 하더니만 또 셋째 첩을 얻어 가지고도 그렇게 죽자사자 하더니 어느 날 죽어 버린 겁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셋째 첩은 남편이 죽어서 나가는데도 방문 안에서 나가 보지도 않는 겁니다. 둘째 첩은 대문 안에서 나가 보지도 않고요. 첫째 첩은 그냥 동구 바깥에서 인사하고는 그만인 겁니다. 그런데 큰마누라는 산소에까지 쫓아가서 울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셋째 첩은 금은보화를 말합니다. 금은보화가 바깥에 나가는 것 봤습니까? 둘째 첩은 큰 집을 말하는 겁니다. 집이 대문 바깥에까지 나가서 인사합니까? 첫째 첩은 자식이나 부부나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동구 바깥에까지 나가서 배웅하고 돌아설 뿐이죠. 그리고 큰마누라는 업식이란 말입니다. 항상 습에 의해서 돌아가는 우리의 업식 말입니다. 이거는 그저 잘하든 못하든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업식을 벗어나야 될 텐데 그게 쫓아다니니 어떡합니까. 내가 잘되려고 '뭘 좀 해 볼까?' 하고 어떻게 시작을 하면 아, 요게 핀트가 맞질 않아요. 모두 잘못돼 돌아가고 있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업식이 쫓아다니기 때문입니다. 눈이 밝지 못하고 귀가 뜨이지 못하고 이러는 것도 업식이 가로막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업식을 벗어나야 허공을 훨훨 날고, 그냥 만공에 꽃이 필 텐데 말입니다. '내가 이놈의 집 아니면 못 사나.' 그러고선 이혼을 하고 다른 데로 가 봤던들 그 업식이 또 그림자처럼 쫓아오죠. 먼저 가 있어요. 하하하…. 사람보다 먼저 가 있단 말입니다, 벌써. 그러니 바로 나한테, 모든 것이 각자 자기로부터 있는 거지요. 자기 마음의 차원과 업식의 문제거든요. 그런 것이니 딴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딴 사람들에게 해롭게 마음을 쓰거나 이렇게 하지 마세요.

언젠가 한번 얘기했지만…, 여긴 도인들만 계셔서 질문을 안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한마디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하하하…. 어느 집에 남편이 술만 먹고 들어오기만 하면 그냥 마누라를 복 패듯 패는 겁니다. 아무거로나 닥치는 대로 때리고 부수는 겁니다. 예전에는 뭐, 이혼을 한다 이런 것도 없고 '그 집 귀신이 돼야 된다.' 이런 것밖에는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애 셋 넷을 낳도록 그렇게 살아나가는데 어느 날 스님 한 분이 오셨더랍니다.

그 스님을 붙들고 사연을 얘기했습니다. 밥 한 그릇을 시주하면서 "우리 남편이 이러니 제가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몸에 먹물을 갈아 부은 듯이 멍이 들고 인제는 도저히 배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고 붙들고 우니까 스님이 "여보시오, 당신은 예전에 마부였고 당신 남편은 바로 당나귀였소. 그래서 그 당나귀를 끄는데 얼마나 모질게 때렸는지 너무너무 그 당나귀가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아주 애원해서 당신 남편으로 태어났소."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얇은 돗자리를 짜악 말아서 매 가지고 손쉽게 그걸 들고 때리게끔, 그 돗자리 올의 숫자대로 수효가 많으니까 그냥 그걸 붙들고 때리게끔 찾기 쉬운 데 놔두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러면 그 업이 다 무너질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치우고 그것만 놔두었는데 이 사람이 들어오더니만 뭐 다짜고짜 그걸 잡고는 그냥 복 패듯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한 번만 때려도 벌써 그 오락지가 몇 개입니까? 그 돗자리 올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때리는 데 천 대요.' 하는 겁니다. 한 번 때리면 천 대가 없어져요. 그래서 한 번 때리는 데 천 대씩 면하고는 한 사나흘 그렇게 때리더니 나중에는 들어오더니만 "당신을 내가 왜 그렇게 때렸지?" 이러더랍니다. "당신을 왜 그렇게 때렸지? 나도 몰라. 내가 미쳤나 봐." 이러면서 그날부터 "아유, 이거 인제 보니까 당신 몸이 성한 데가 하나도 없구먼." 이러면서 나가더니 약을 지어다가 달여서 주고 이렇게 다복하게 살더랍니다.

그러니 내가 한 일은 내가 꼭 받게 돼 있습니다. 천당 지옥을 딴 데 가서 찾지 마세요. 내가 여기 이 세상에서 살면서 천당 지옥을 바로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천당도 있고 지옥도 있고, 또는 생산처도 있고 멸하는 죽음의 터도 있습니다. 다 이 자리에서지 딴 데서 나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잘 쓰셔서 가정을 다복하게 이룩하는 것도, 인연에 따라서 발전시키는 것도, 창조력을 기르는 것도, 과학을 발전시키는 것도 다 부처님 법입니다. 죽어서 천당에 가라고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닙니다. 현실에서 발전하면서 인연에 따라 돌아가는 그 공한 도리를 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나쁜 일은 씌우지 말고 조금 야속하더라도 참고, 참는 게 아니라 거기다 맡겨 놓고 '거기서 나온 거니까 거기서 해결하라.' 하고 맡겨 놓고서 그저 좋은 말로 부드럽게 해 주면 그쪽에서 반성을 하고 다시 감사함을 느끼고 나한테 회개를 하고 들어온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 법이라는 것이 무슨 글자로 배우는 것도 아니요 학술로 배우는 것도 아니요 또 학식으로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생활에서 터득하고 나가는 자체입니다. 그리고 마음이라는 건 체가 없어서 허공을 날 수도 있고 지구를 벗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좀더 넓게 생각하셔서 좀 지혜롭게 사신다면 그게 보살행이고, 그게 때로는 부처님이 됐다가 때로는 보살도 됐다가, 때로는 약사도 됐다가 지신도 됐다가 용신도 됐다가, 전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할 것은, 부모들이 돌아가시면 위패를 해서 모두 갖다가 묶어 놓는데, 산 사람을 그렇게 묶어 놓으면 좋겠습니까? 네? 혼백이 있다면 좀 활보하게 놔둬야지 그렇게 묶어 놓는 게 좋겠습니까? 제사 지낼 때 위패를 해서 놓고 끝나면 소해 드려야지요. 형체가 없으면 혼백이 와서 붙질 않습니다. 그래서 위패를 해 놓는 겁니다. 그런데 위패에 이름 석 자를 써서 딱 붙여 놓고 부착을 시켜 놓곤 옴짝을 못하게 하는데 그게 자식의 도리입니까. 부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또 여러분이 인등을 켠다고 하는데, 그저 등잔 요만하게 해 놓고 꼬리표를 붙여 놓곤 거기다가, 지금은 초도 안 켜고 기름도 안 켜고 전기로 켜요. 그래, 이름을 써서 거기다 놓고선 백 일 인등을 켠다는 둥 뭐 그러는데, 인등이라고 한다면 마음의 인등, 마음의 불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의 불, 마음의 불씨 말입니다. 아니, 백일기도 드릴 때만 지구가 돌아가고 백일기도가 다 끝나면 아예 그냥 멈춰 버리나요, 네? 세상이 멈춰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음의 불씨를 켜고 있기 때문에, 본래 켜고 있기 때문에 꺼졌다 켜졌다 이런 언어도 붙지 않는 자리다 이러는 겁니다. 자나 깨나 마음의 불씨가 항상 밝아 있으니 그걸 인등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의 걱정을 항상 하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믿고 맡겨 놓고 그런다면 항상 불이 밝아져요. 광명세계가 와요. 그러니까 그 광명세계를 맛을 보고 체험을 하고 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런 것도 있죠. 자기 맛을 자기가 모르면 항상 가난합니다. 떠다 놓은 물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썩어요. 그러나 마음 골짜기에서 나오는 샘물이라면 항상 퍼 써도 줄지 않고 또 갖다 부어도 늘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새 맛이 나고요. 우리가 이러한 도리를 알자고 공부하는 거지 말이나 배우고 이론이나 배우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은혜를 갚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유, 나를 낳아서 이날까지 길러서 이렇게 성장시켜서 살게 해 주셨으니 감사하구나. 부모가 받든 안 받든 자식의 도리로 부모를 위해서 해 드려야지. 또 그 도리를 몰라서 부모가 업식으로 인해 떠돈다면 안 되니까 우리가 지극한 마음으로 천도를 해 드려야지.' 하고 내 성의껏 해 드린다면 모르지만 '부모 조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되니까 천도를 해야겠다. 부모 조상 탓이다.' 이렇게 한다면 아예 그것은 하지도 말아야지요.

여러분, 오늘은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마음공부라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그대로 해 나가야 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에 염송을 하고 절을 하고 온통 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반야심경을 외우고 금강경을 외우고 이러지마는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죠. 달마 대사가 양 무제더러 한 소리를 들어 보세요, 어림이나 있나. 역대 조사들이 말씀하신 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림이나 있나. 오히려 그런 것은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이겁니다. 우리 아까 뜻으로 푼 반야심경과 천수경을 독송했지만 그게 다 설법입니다.

여기 테이프도 있으니까 마음이 산란할 때는 테이프를 틀어 놓고 가만히 들어 보세요. 어떤 때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듣지 마시고요. 그리고 다달이 설법한 걸 책으로 묶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것을 하루 한 장씩이라도 보시면서, 다 보면 또 되풀이해서 보시면서 자기 것을 만드세요. 그 글자가 자기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 뜻이 자기를 자꾸자꾸 지혜롭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물리가 터지게 해 주는 거지요. 그럼으로써 진실한, 바로 자기 아닌 자기를 구하는 소식이 당도한다 이 소립니다. 여러 부처님들, 그럼 이만 하겠습니다.

자기 맛을 자기가 모르면 항상 가난합니다.
떠다 놓은 물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썩어요.
그러나 마음 골짜기에서 나오는 샘물이라면
항상 퍼 써도 줄지 않고
또 갖다 부어도 늘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새 맛이 나고요.
우리가 이러한 도리를 알자고 공부하는 거지
말이나 배우고 이론이나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위 법문은1992년 3월 22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절교육 절수행 깨달음

700만 배 절수행
청견스님 노하우

완벽한 표정 + 자세 + 동작 + 부처님호흡법대입
+ 동작알아차림 + 염불알아차림

전신의 챠크라 열어드리고 숨통 뚫어드려
우주 태양의 氣를 받고 지구 땅의 기운 모아
자동으로 수승화강 절해야 숨고요 마음고요로
저절로 몸 나쁜기운, 맘 나쁜 생각 쏙쏙 빠져나가는
완전웰빙 심신건강 예방, 진짜 힐링, 만병통치유

숨차고, 헐떡거리며 상기되고 힘빠지며
피곤하고 몸이 냉해지면 절을 잘못 하는 것

⊙ 장소 : 울산시 언양읍 남부리 81-1
KTX 울산역 3분, 서울산 IC 3분, 언양버스터미널 1분

홈페이지 : www.법왕정사.net

울산 언양법당 : 052)254-7768
대구법당 : 053)743-0063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제1회 한국불교 홍익범패단
학인모집(서울범패)

소승은 한국불교 범음범패 및 불교무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10여년을 연구하고 공부해 온 염불승
으로서 한국불교 홍익범패단 창단을 꿈꾸고 있습니다.
뜻있는 분들께서는 직접 오셔서 일차로 청강하시고
뜻을 함께 하실분은 연락바랍니다.

강의내용

1. 기초 : 삼귀의, 사홍서원, 거불, 도량석, 종송, 조석예불, 사시불공, 요령, 목탁, 태징,북 등 사물 다루는 법.
2. 중급 : 시련, 대령, 관욕, 신중청, 상용영반, 관음시식, 고혼소, 봉청(짖소리), 39위, 복청게, 고혼청, 현좌게, 진령게, 칠언사구성, 가영, 향화청, 고아일심귀명정례, 긴소리, 짧은소리
범패 - 요잡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도량게, 다게, 법고춤, 호적
3. 상급 : 시다림, 다비, 일반장례, 산신제, 용왕제, 방생, 생전예수재, 수륙재, 종사이운, 괘불이운, 종사영반 화청, 공덕게

■ 접수기간 : 수시모집
■ 회 비 : 월10만원, 6개월 50만원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반명함판 사진 2장
■ 장 소 : 김해사암연합회 불교문화원 3층 법당
■ 주 소 : 김해시 홍동 7-5번지
■ 전 화 : 055)322-0088 / 055)332-1675
■ 강 주 : 민지효 010-4466-3575

사부대중 칼럼

사지 보존, 성보를 되살리는 불사

불교문화재연구소의 '사지 조사 사업' 결과 체계적인 보존관리가 필요한 옛 절터와 그 절터에 소재한 문화재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전국적으로 추정되는 옛 절터는 5400여 개. 대부분이 흔적조차 찾기 힘든 곳들로 변했지만 이들 중에는 역사적인 기록과 함께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유물이 남아있는 곳도 적지 않다.

이런 가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옛 절터는 부처님 법을 따르던 역대조사 스님들이(선조들이) 수행하던 곳이란 점이다. 단순히 불교란 종교적 공간을 넘어 그 당시 불교를 매개체로 이어진 수행상(생활상), 사유체계 등 사회문화의 흔적들이 바로 옛 절터다.

옛 절터와 관련된 가장 큰 문제는 국민 대부분이 문화재를 비롯한 옛 문화의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사를 진행하며 절터와 소재 문화재들이 인위적으로 훼손된 것을 상당수 볼 수 있었다. 자연적인 훼손 외에도 농경지 개간과 민가 확장 등으로 문화재가 훼손되고, 관리부실을 틈타 도난·반출된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절터가 가진 다양한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

먼저 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와 불교계 유관단체,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 정책입안을 서둘러야 한다. 사지보전정비위원회를 구성해 5400여 절터 중 시급히 보존 정비돼야 할 절터나 활용성이 높은 절터를 선정해 정비활용에 나서야 한다.

절터 보존과 관리는 연관된 지역 사찰과 본사에서 맡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옛절터의 대부분이 국유지이거나 사유지이기 때문에 불교계에서 직접적으로 나서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문화재보호기금법의 민간경상보조를 통해 기금을 지원해 불교계와 함께 중요 절터부터 복원해야 할 것이다.


무단반출돼 건물자재로 사용된 영주 여륵리 한절골사지 연꽃무늬 좌대


나무 뿌리로 인해 자연적 훼손이 진행 중인 예천 덕봉사지 탑재


보수과정에서 발부분이 손으로 붙여진 나오리사지 석조여래입상

전국 절터 5400여 곳
문화재 가치 높은 유물 많아
국민인식 부족에 훼손 심각
사지보존 박물관·기금 조성해야

국민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지보존박물관 건립이 대안으로 꼽힌다. 사지보존박물관은 국민들에게 절터가 갖고 있는 역사성과 당시 시대와 지역적 특색이 절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알리는 자리가 될 것이다. 또 박물관 내 전문 보존관리시설을 비롯해 연구시설이 들어서 관련 연구역량을 한 단계 높일 것이다. 절터에 소재된 문화재를 보존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불교계도 절터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해야 할 시점이다. 옛절터를 단순히 버린 절터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시 찾고자 하는 문화가 자리해야 할 것이다. 복원가치가 있는 절터의 복원 뿐만 아니라 옛 절터에 얽힌 역사를 활용한 성지순례 등도 진행할 만하다.

종단에는 사찰은 많지만 역사적,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사찰은 부족한 상황이다. 불교계에도 옛절터 보존은 향후 다양하게 불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한때 스님들이 부처님 법을 전하기 위해 수행하던 곳을 후세에 알린다는 사명을 갖고 이번 사지조사에 임하고 있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2013년 '불교문화유산 보존 정비 종합계획'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조사 범위에서 벗어나 있던 근현대 문화재에 대한 기초자료 확보가 '근현대 불교문화유산 목록화' 사업으로 진행되며 '사찰문화재 일제조사'(2002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와 '전국 사지 조사'(2010년부터 2015년까지) 등 중장기 사업 또한 지속 진행된다.

사찰문화재 일제조사는 2013년 전국 사찰에서 새롭게 발견된 문화재에 대한 보강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014년부터는 전국 사찰 소장 경판조사사업이 실시하는 등 기존 사지조사에서 소장 문화재 조사로 범위가 확장될 예정이다.

2013년에는 울산, 경남, 전북,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600여 개 사찰에서 사지조사사업이 실시되는데 특히 비지정소재문화재가 있는 사지, 훼손 우려가 있는 사지가 우선적으로 조사된다.

사지조사사업은 흔적이 없어진 불교성보를 다시 살리는 일이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사지분포와 현장확인 조사를 통해 문화재청과 정부에 이를 보고하는 한편 보전 정비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논의해 불교성보를 보존하고 활용하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


불교문화재연구소 소장 각림 스님

社說

조계종 법인법 제정은 시대적 과제

현재 조계종과 관련 법인은 재단이 95개, 사단법인 111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법인들을 포함하면 그 수치는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조계종 소속 승려나 사찰이 출연한 법인들을 종단에 등록해 관리하는 법인법 제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법인법 제정은 2011년 3월 제186회 중앙종회 임시회부터 추진된 것이다. 당시 주요 법인들은 이사 추천과 소속 사찰 주지 스님들의 인사와 관련해 운영권과 인사권이 침해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그로부터 2년, 총무원은 법인법 제정 수정안을 내놨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종단은 법인의 재산과 운영관리권 등 고유 권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명시했다. 선학원과 대각회 등과 문제가 됐던 조항에 대해서는 △법인 사찰 주지는 이사장 임명 후 총무원에 보고 △선학원 이사의 1/3은 종단이 추천하되 추천 이사는 법인 연고 사찰 승려로 하는 등 완화된 법안을 내놨다. 또한 선학원에 대해서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문제 사항을 조정할 것을 명시했다.

사실 법인 소속 스님이 사찰을 설립했음에도 종단에 등록하지 않고 법인 산하 뒤 조계종과는 무관하게 운영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법인이나 법인 산하의 사찰들이 종헌 종법 체계에 편제되도록 하는 최소한의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다.

일부 법인들의 반대와 우려도 있다. 하지만 해당 법인과 구성원이 종도임을 확인하는 기본적 기준과 절차로 법인법을 생각한다면 반대만 할 것은 아니다. 종단에서도 '법인의 재산·운영관리권 등 고유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것'을 누차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보정재 망실과 사유화를 막기 위한 법인법은 '시대적 과제'다.

불교방송 내홍 슬기롭게 해결되길

불교계의 유일한 공중파인 불교방송이 조용하지 않다. 성전 스님 등 7명의 불교방송 진행자 스님들이 3월 13일부터 순차적인 방송 중단을 선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유는 승가를 모독한 불교방송 이채원 사장이 물러날 때까지 방송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한 스님들은 3월 21일 오후 2시 불교방송국서 '불교방송 정체성 회복 기원대법회'를 대규모로 봉행하고 "이채원 사장의 참회와 사퇴 및 이사회의 결단을 재차 촉구하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불자들의 마음은 착잡하기 그지없다.

불교방송은 한마디로 대형사찰이나 다름없는 중요한 한국불교의 전파매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만큼 불교방송이 우리 한국불교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해 3월 첫 선을 보인 불교방송 경전 문자서비스는 1년만에 유료회원이 2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큰 성과를 낸 것도 그 증거중 하나다.

그러다보니 이번 같은 내홍이 밖으로 확대되는 것은 한국불교의 망신이다.

속사정이야 어떻든 불교방송의 현 상황은 회사의 성장 발전에 치명적이 될 수 있다. 가뜩이나 방송광고 시장의 환경이 다매체 다채널시대에 돌입해 상업성이 결여된 종교방송은 위축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다시말해 똘똘뭉쳐 합심해도 현실을 헤쳐나가기가 녹록지 않다는 얘기다. 실제로 불교방송 광고매출은 1~2월이 비수기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줄고 있다.

그래서 더욱더 불교방송의 잡음은 밖으로 새나가지 않게 빠른시일내에 슬기롭게 해결돼야 한다.

그것이 곧 불교방송이 회생하는 길이며, 더 나아가 한국불교가 사는길이기 때문이다.

생각해봅시다

출가·열반절, 부처님 법대로 살고 있는가

불교의 4대 명절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 출가, 성도, 열반의 의미를 되새기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3월 19일은 부처님 출가일이고, 26일은 열반일이다.

〈선가귀감〉에서는 불교의 '처음과 끝'인 출가와 열반의 의미를 이렇게 적고 있다.

"출가하여 승려가 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랴. 편하고 한가함을 구해서가 아니며, 따뜻이 입고 배불리 먹으려고 한 것도 아니다. 나고 죽음을 면하려는 것이며, 번뇌를 끊으려는 것이고, 부처님의 지혜를 이으려는 것이며, 삼계(三界)에서 뛰어나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인 것이다."

사실 부처님의 출가는 불교와 교단의 시작을 의미하고, 열반은 완전한 해탈지견과 적멸의 성취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부처님의 출가수행이 없었다면 후대에 불교가 형성되지 못하였다. 또한 완전한 열반의 모습이 없었다면 무상과 무아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중생들에게 일깨워 주지 못하였을 것이다.

올해 조계종 포교원은 '참회 발원 정진 및 범종도 승보공양 실천운동'을 선포했다. 신도들이 올바른 신행생활을 할 수 있도록 참회하고 발원·정진하도록 참여를 독려하고 재가자가 스님들의 출가에서 열반까지 책임지는 21세기 승보공양운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3월 19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출가·열반절 입재 및 선포법회' 이후 8일 동안 총무원, 포교원, 중앙신도회, 승려복지회와 각 사찰들을 중심으로 108배 참회 발원 정진 법회 봉행한다. 이를 통해 출가자들은 물론 불자들도 스스로 '수행'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운다는 데 포교원의 복안이다.

전국 주요 사찰들도 종단 기조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출가열반절을 기리고 있다. 이전에는 개별 사찰에서 추진해오던 출가 열반절 행사가 종단 전체의 정진 주간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2000년 초반 불교방송이 '출가 열반 정진 주간'을 추진한 것을 필두로 조계종 포교원은 2002년 '출가열반절 108 참회발원정진 기간'을 선포하는 등 일상적인 수행문화 형성에 일조했다.

출가열반절은 싯다르다 태자의 출가정신과 부처님의 열반의 의미를 되새기며 올바른 신행문화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또한 참되고 진실한 참회를 통한 일상적인 신앙실천에 대한 결의를 다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출가일에 1일 출가 혹은 단기출가를 체험하도록 유도하고, 열반일에는 부처님의 삶을 회고하고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는 등 일상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에 의존하여 깨달음을 얻을 것이며 다른것에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유훈을 남겼다.

이렇게 살고 있는지 자신의 삶을 반추해 볼 때이다. 신중일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부 산 지 사 : 070-7697-52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탈 종 공 고

• 사 찰 명 : 오 봉 사
• 창 건 주 : 김 태 안
•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양곡동 산 42-8

위 사찰과 창건주는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0일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법하

탈 종 공 고

• 사 찰 명 : 송 학 사
• 법 명 : 도 성
•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 662-3

위 사찰과 위인는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테라와다 상좌부 단기출가와 미얀마 봉사활동



테라와다 상좌부 6일간 단기출가 수행 (양곤 까바야 지역 탁발의식 체험)

국제불교지도자협회(회장 목탁)는 3월 1일부터 3월 6일까지 미얀마 양곤을 방문해 미얀마 승가대학에서 테라와다 상좌부불교 단기출가 및 수행과 국제불교지도자협회 미얀마 봉사활동 등을 진행했다.

이번 국제불교지도자협회가 진행한 테라와다 상좌부 단기출가는 사상최초로 세계불교 지도자 500인 선정을 위한 남방불교 단기수행과 비구 구족계 의식 체험으로 세계불교의 화합과 변화를 주도하고 미얀마에 대한 지원과 봉사활동의 확대를 위한 행사로 마련됐다.

수행단에는 종단과 법납 속납을 불문한 각 종단 원로 및 중진 스님 27명과 봉사활동 회원 재가자 5명이 참여했다.

3월 1일 양곤 밍글라돈 국제공항에 도착한 수행단은 2일 미얀마 양곤의 사사나 대학(세계불교승가대학)에서 단기 출가의식 및 상좌부 불교 사미계 및 구족계를 진행했다.

미얀마 승가대학 개교 후 최초로
테라와다 상좌부 단기출가 및 교육

아티사 스님을 학장으로 4년제 대학과 2년제 대학원 정규과정을 운영 중인 사사나 대학에서는 테라와다 불교 수행과 함께 팔리어와 영어 강좌가 진행된다.

국비로 기숙사 제공 등 전액무료로 진행되는 사사나 대학은 음행, 도둑질, 살생, 거짓말 등을 철저히 금기시한다. 특히 미얀마에서 공식 인정된 승가대학으로는 양곤과 만달레이 2곳 밖에 없는 곳이다.



사사나 양곤 승가대학

수행단은 이날 사사나 대학에서 사미계 · 구족계 등 227계를 수지하는 출가의식에 참여했으며 의식을 시작으로 4박 5일간 일정에 돌입했다. 수행단은 〈자애경〉 봉독을 시작으로 가사와 발우를 신도들에 보시 받았으며 미얀마 스님 70여 명이 증명법사로 나섰다. 특히 이날 출가의식에는 우싼신 미얀마 종교성 장관과 미얀마 종교성 관계자 등 불자 100여 명이 첨석해 한국 스님들의 상좌부 출가를 축하했다. 출가한 수행단 스님들은 곧이어 위빠사나 강의를 듣고 마하시 위빠사나 수행을 실수했다. 또 미얀마 스님 400여 명과 함께 합동예불을 진행했다.

민서윈 사사나 대학 사무차장은 "승가대학 개교 후 한국스님들의 단체 테라와다 상좌부 불교에 대한 출가 및 교육은 최초"라며 양국 불교 지도자들의 교류가 확대되기를 기원했다.

수행단은 3월 3일에는 우싼신 미얀마 종교성 장관을 예방해 한국과 미얀마 불교교류를 논의했다.

회장 목탁 스님과 우싼신 장관의 면담은 미얀마 국영TV와 미얀마 주요일간지에 자세히 보도될 정도로 화제가 됐다. 우싼신 장관은 장관 임명 후 2주 밖에 되지 않아 업무파악에 바쁨에도 직접 행정수도 네피도에서 양곤으로 와 한국스님들의 단기출가 수행을 직접 챙길 정도로 큰 관심을 보였다. 우싼신 장관의 관심은 직접 수행원들과 수행단의 일정 및 동선을 확인하고 미비점을 시정지시할 정도였다.

이날 면담자리에는 미얀마 정부 부장관과 차관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한국에서는 목탁 스님과 함께 상영민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사무국장이 배석했다.

종교성 우싼신 장관 면담
'양국 교류 활성화와 적극지원 약속'

우싼신 장관은 "한국의 스님들이 테라와다 불교수행에 참여한 것에 큰 감명을 받았다"며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했다. 우싼신 장관은 또 "국제불교지도자협회와 현대불교신문이 공동캠페인으로 진행하는 우물파기와 학교지원 사업 등을 잘 알고 있다"며 "한국 불자들의 봉사활동에 감사하며 향후 차량지원, 통역지원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우싼신 종교성 장관은 국제불교지도자협회가 추진중인 종합기술학교 건립에 대한 행정지원 등도 약속했다.

목탁 스님은 "한국스님들의 사사나 승가대학 수행에 직접 관심 가져줘 감사하다. 지속적인 교류에 노력하며 우물파기와 학교지원 등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며 종합기술학교 공사가 지연되는 부분에 대한 관심을 부탁했다.



목탁스님과 우싼신 종교성 장관 면담 (종교성 접견실)

수행단은 3월 5일 종교성 내 종정 접견실에서 미얀마 종정 닥터 우꾸마라 스님을 친견했다. 미얀마의 종정은 67명으로 구성된 연방승가회 원로회의에서 선출되며 원로회의 의장 겸 종정 직무를 종신토록 수행한다.

이날 한국 스님들로 구성된 수행단은 미얀마 종정 스님으로부터 부처님 진신사리를 받아 이운했다. 동참한 한국 스님들은 테라와다 수행에 대한 느낌을 밝히며 양국 불교교류가 더욱 활성화 되기를 기대했다. 닥터 우꾸마라 종정은 '부처님 말씀을 정확히 지켜나가는 것이 승가의 유일한 목표임을 항상 생각하고, 승가간 강한 연대를 유지하자' 고 말했다.

종정 친견 이후에는 쉐다공 파고다를 찾아 예불과 참선을 진행했다. 양곤에 위치한 쉐다공 파고다는 2500년전 지어진 미얀마의 상징이다. 고타마싯타르타 부처님 재세시 미얀마 상인들이 얻어온 부처님의 머리

닥터 우꾸마라 미얀마 종정스님 친견,
마정수기 및 쉐다공 파고다 참배

카락을 현재 위치 언덕에 쌓은 것으로 최초의 불탑으로도 불리고 있다. 15세기 버고왕조의 신소부 여왕을 시작으로 역대 왕들이 계속 금으로 탑을 증축해 현재 지상 98m에 이르는 모습이 됐다. 쉐다공 파고다 안에는 총 80여개의 건물과 66개의 작은 파고다가 있다. 2007년 민주화 시위의 출발점이 되기도 한 민주화 성지로도 의미가 깊다.

3월 6일에는 탁발과 함께 테라와다 남방불교 단기출가 환속의식을 진행한 수행단은 까바야 파고다에서 세계평화의탑을 순례했다. 천국사 혜정 스님은 마정수기 후 한국 · 미얀마 불교교류에 대한 공로로 미얀마 불교수호협회가 수여하는 훈장을 받기도 했다.

양곤 까바야 지역에서 진행된 탁발의식은 테라와다 상좌부 불교 전통방식대로 진행됐다. 이날 단기출가 한국스님들의 탁발은 종교성의 지원으로 진행되었으며 전날 탁발지역 주민들에게 사전 공지됐다. 3일과 6일 오전 9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승가대학 부학장 스님의 인솔 하에 진행됐다.

탁발의식에서는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셀 수 없는 수많은 주민들이 각자 준비한 밥, 국, 과자, 돈 등 형편에 맞는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 공양을 올렸다. 주민들은 복을 지을 수 있는 탁발공양의 기회를 부여받아 너무나 감사하다고 기뻐했다. 미얀마 주민들은 지열로 달궈진 길바닥에서 삼배의 예를 올리기도 했다.

주민 소미어 씨는 "한국 큰스님들께 공양을 올릴 복덕을 누리게 돼 너무나 감사하다"며 "비록 보잘 것 없는 음식이지만 정성껏 받으시어 큰 지혜 이루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광고영업부 이동격 부장 jabi1522@hyunbul.com

인터뷰

■ "한국과 미얀마 불교교류 디딤돌 될 것"
– 국제불교지도자협회 목탁 스님 –



"수행과정에 끝까지 함께한 스님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이번 한국 수행단의 단기출가는 한국과 미얀마 불교교류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한국불교계와 미얀마가 교류를 시작한지 20여 년이 지났다. 그동안 물적 지원과 봉사에 머물렀던 교류가 한층 발전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국제불교지도자협회 회장 목탁 스님은 "한국 스님들의 미얀마 승가대학에서의 단기수행은 한국불교 역사상 최초"라며 "대승불교와 소승불교의 이해와 상호교류에 큰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목탁 스님은 "이번 미얀마 방문단으로 동참한 스님들은 각 종단의 원로스님들과 중진스님들로 구성돼 종단과 법납, 속납까지 불문하고 출가의 초발심으로 돌아갔다"며 "수행과정을 끝까지 함께하신 것은 한국불교의 힘을 보여줌과 동시에 후학들에게 무언의 가르침을 몸소 행으로 보여 주신 것이라 그 의의가 참으로 크다고 하겠다"고 말했다.

국제불교지도자협회는 이번 행사를 계기고 한국불교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고 세계불교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앞정설 예정이다. 국제불교지도자협회는 미얀마 종교성 우싼신 장관과 관리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단기수행 및 봉사활동이 잘 마무리 되었고 종교성 장관과의 특별 면담으로 향후 계획과 협조에 대해 추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목탁 스님은 "함께 진행된 미얀마문화원과 현대불교신문의 미얀마 지원 공동캠페인 또한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모금으로 계속되고 있는 극빈촌에 대한 우물파기지원과 학교지원 등의 결과도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현대불교신문사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❶ 우물파기 지원

이번 수행단 방문에서는 미얀마문화원과 현대불교신문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미얀마돕기 캠페인이 진행되기도 했다.

양곤 북쪽 90km 레그시 미앙청 마을에서 진행된 우물파기 캠페인에서는 우물 2기가 마을 측에 기증됐다.

레그시 미앙청 마을은 2000년도부터 기독교 관련 단체에서 저리 금융할부와



미앙청 극빈촌에 우물 2기 기증

식수지원을 조건으로 선교활동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 주민들은 이를 거부하고 불교를 지켜가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극빈지역이다. 350여 가구가 1기의 우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에 모금된 기금으로 이번에 2기의 우물과 발전기를 기증한 것이다.

수량이 한정돼 있어 하루 1회 발전기를 통해 물을 퍼 올려 정해진 시간만 급수하고 있으며 물이 좋지 않아 생활용수로만 사용한다. 음용수는 각 가정에서 구매해 사용하고 있으며 발전기 운용 등 우물관리는 각 가정에서 형편에 따라 낸 돈으로 공동운영 한다는 것이다.

우물 기증을 받은 꼬조우매 이장은 "한국불자들의 도움으로 가장 필요한 생활용수 문제가 해결돼 너무 감사하다. 물을 퍼올릴 때마다 그 감사함에 마음을 모아 합장한다"고 말했다.

❷ 학교 지원

이밖에 양곤 북쪽 외곽 홀라잉따야 지역 암마까15마을 학교와 레괴 41마을 학교를 방문해 공동캠페인으로 모금된 정성금과 학용품, 구충제, 의류 등의 물품을 전달했다.

초등학생 850명이 있는 암마까 15마을 학교는 진흙땅으로 체육 및 전체 활동이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모금액 300만원으로 1차로 흙을 깔았으며 극빈 아동 20 명을 추천받아 매달 장학금 형식으로 1년간 학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초등학생 420명이 다니는 레괴 41마을 학교는 생활용수 부족으로 우물 1기 제작을 지원하고 구충제, 학용품을 전달했다. 특히 열악한 학교현장을 둘러본 한국 스님들은 논의를 거쳐 현장에서 미화 2,000달러를 모금해 국제불교지도자협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양곤 인근 암마까 15마을학교 학생들에게 학용품 및 1년 학비지원금 전달

미얀마 돕기 공동캠페인 정성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 문 의 : 현대불교신문 02)2004-8214 / 미얀마문화원 02)733-5665
- 후원계좌 :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농협 301-0016-0537-91 / 국민은행 023501-04-147581

■ "승가와 재가 상호 존중 마음 느낀 기회"
– 경주 용암사 회주 용암 스님 –



테라와다 불교에 대한 관심과 국제불교지도자협회의 미얀마에 대한 교류에 동참하고자 이번 행사에 참가한 경주 용암사 회주 용암 스님은 "미얀마는 범죄와 욕심이 없는 부처님의 법음이 가장 잘 구현되는 나라로서 불교의 역할을 승가로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며 "이번 행사에서 미얀마 불심에 감동받았으며 승가와 불자들의 상호 존중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용암 스님은 "이번 테라와다 불교 수행을 계기로 승가로서의 아상을 버리고 한국불교의 변화와 신도교육, 봉사지원 활동에 대해 적극 동참 하도록 하겠다"며 "어려운 미얀마 불자들에 대한 다각적 지원으로 미얀마 불교를 수호하는데 일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미얀마 종정 닥터 우꾸마라 친견



까바야 지역 불자들의 정성어린 탁발공양



테라와다 상좌부 불교 단기출가수행